

2014-02  
고령사회연구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JDI**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 발 간 사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이슈로써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비롯하여 빈곤, 의료비용 증가, 세대갈등, 노인 소외와 고독, 돌봄, 자살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책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물리적 환경 조성이나 사회문화 등은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을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참여시키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노인이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닙니다. 신체적·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라면 노인을 비롯하여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고루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일 수 있다는 것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범 세계적·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노력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WHO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확산되며,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연구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고령친화적인 사회적·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주지역이 세계 유수의 고령친화도시를 선도해가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 기 춘

# 목 차

## 제 1 장. 연구의 기초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및 범위 .....	3
3. 연구내용 .....	4
4. 기대효과 .....	4

## 제 2 장. 고령친화도시 현황

1. 고령친화도시 개요 .....	5
2. 해외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례 .....	7

## 제 3 장. 제주지역 고령인구 특성 및 정책현황

1. 제주지역 고령인구의 변화와 전망 .....	11
2.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화 관련 정책 분석 .....	20
3.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정책 현황 .....	24
4.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관련 정책 .....	29

## 제 4 장.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지표 개발

1.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고령친화도시 지침서 내용 분석 .....	40
--	----

2. 고령친화도 평가지표 구성 .....	42
3. 고령친화도 평가문항 .....	62

## 제 5 장.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실태조사 결과 및 해석

1. 조사개요 .....	68
2. 사회인구학적 특성 .....	70
3. 고령친화도 종합점수 .....	78
4. 지표별 고령친화도 실태 조사결과 .....	81
5. 응답자 특성별, 영역별 고령친화도 .....	99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 결과 요약과 시사점 .....	141
2. 정책과제 .....	160

부    록 .....	165
--------------	-----

참고문헌 .....	178
------------	-----

# 표 목 차

## 제 3 장. 제주지역 고령인구 특성 및 정책현황

<표 3-1> 연령대별 인구수 및 비중 추이 .....	12
<표 3-2> 생산가능인구 추이 .....	15
<표 3-3> 부양비 추이 .....	16
<표 3-4>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변화 현황 .....	17

## 제 4 장.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지표 개발

<표 4-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옥외환경과 건물 .....	43
<표 4-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환경 .....	46
<표 4-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	48
<표 4-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참여 .....	50
<표 4-5>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존중과 사회적 통합 .....	53
<표 4-6>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와 고용 .....	55
<표 4-7>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정보 .....	58
<표 4-8>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의료서비스 .....	61

## 제 5 장.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실태조사 결과 및 해석

<표 5-1> 응답자 특성별, 영역별 고령친화도 평균점수 .....	79
<표 5-2> 옥외환경과 건물 .....	82
<표 5-3 > 교통 환경 .....	85
<표 5-4 > 주거환경 .....	87
<표 5-5> 냉방 설치 유형 .....	88
<표 5-6> 난방 설치 유형 .....	89
<표 5-7> 사회참여 .....	90
<표 5-8> 존중과 사회통합 .....	92
<표 5-9> 시민참여 및 일자리 .....	94
<표 5-10>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	96
<표 5-11>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	98
<표 5-12> 찾길과 인도가 구분되어있다 .....	99
<표 5-13> 신호등이 켜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다 .....	100
<표 5-14> 산책이나 운동을 위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	102
<표 5-15> 시내(외) 버스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다 .....	102
<표 5-16> 시내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다 .....	103
<표 5-17> 시내버스 정류장에 의자와 차양막이 있다 .....	105

<표 5-18> 버스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배려한다 .....	105
<표 5-19> 도로의 폭이 넓어 자가용을 운전하기에 편하다 .....	106
<표 5-20> 택시비는 적절하여 부담스럽지 않다 .....	107
<표 5-21> 내가 사는 집은 문턱이 없어 안전하다 .....	108
<표 5-22> 내가 사는 집 화장실은 미끄러워 조심하는 편이다 .....	109
<표 5-23> 부엌 싱크대와 찬장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하다 .....	110
<표 5-24> 내가 사는 집은 냉난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	111
<표 5-25> 경제적 부담 없이 냉난방을 이용할 수 있다 .....	113
<표 5-26>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이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다 .....	114
<표 5-27>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이 있다 .....	115
<표 5-28>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 .....	116
<표 5-29> 경로당 등의 여가시설은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	117
<표 5-30> 경로당에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놀거리가 많아 즐겁고 유익하다 .....	118
<표 5-31> 경조사나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119
<표 5-32> 마을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 .....	120
<표 5-33>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직원들은 예의바르고 친절하다 .....	121
<표 5-34>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 .....	122
<표 5-35> 반상회 등에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한다 .....	123

<표 5-36> 무급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 .....	125
<표 5-37>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	126
<표 5-38> 공공근로나 유급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 .....	128
<표 5-39> 마을의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다 .....	128
<표 5-40> 소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	129
<표 5-41> 손자녀 세대의 사람들과 대화에 지장이 없다 .....	130
<표 5-42> 유선전화 사용이 익숙하여 쉽게 전화할 수 있다 .....	131
<표 5-43> 행정정보는 신속하게 전달된다 .....	133
<표 5-44>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안내문 글자가 커서 읽기 쉽다 .....	135
<표 5-45> 응급상황 시 도움 받을 곳이 가까이에 있다 .....	137
<표 5-46>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138
<표 5-47>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다 .....	139
<표 5-48>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 .....	139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표 6-1> 제주시와 서귀포시 고령친화도 비교 .....	153
----------------------------------	-----

# 그림 목 차

## 제 2 장. 고령친화도시 현황

<그림 2-1>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홈페이지 .....	8
-----------------------------------	---

## 제 3 장. 제주지역 고령인구 특성 및 정책현황

<그림 3-1> 60세 이상 인구비율 추계 .....	13
-------------------------------	----

<그림 3-2> 노인 가구 구성비 변화 추이 .....	14
--------------------------------	----

<그림 3-3> 연도별 제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인구 변화 .....	18
--	----

<그림 3-4 > 제주지역 100세 이상 장수노인 인구변화 .....	19
--	----

## 제 4 장.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지표 개발

<그림 4-1> 활기찬 노년을 위한 결정요인 .....	41
--------------------------------	----

## 제 5 장.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실태조사 결과 및 해석

<그림 5-1> 응답자의 거주지역 분포 .....	70
-----------------------------	----

<그림 5-2> 응답자의 성별 분포 .....	71
---------------------------	----

<그림 5-3> 응답자의 연령 분포 .....	71
---------------------------	----

<그림 5-4> 응답자의 학력수준 .....	72
--------------------------	----

<그림 5-5> 응답자의 결혼 상태 .....	72
<그림 5-6>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 .....	73
<그림 5-7> 생활비 충당방법 .....	74
<그림 5-8> 현재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 .....	75
<그림 5-9> 주택소유형태 .....	75
<그림 5-10> 주택유형 .....	76
<그림 5-11> 함께 사는 가족 .....	77
<그림 5-12> 주지역 고령친화도 종합점수 (평균) .....	78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그림 6-1> 옥외환경과 건물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	141
<그림 6-2> 교통환경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	142
<그림 6-3> 주거환경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	143
<그림 6-4> 사회참여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	144
<그림 6-5>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	145
<그림 6-6> 시민참여 및 일자리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	146
<그림 6-7> 의사소통과 정보 제공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	148
<그림 6-8>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	149
<그림 6-9> 전 영역 문항별 평가점수 .....	162

# 제 1 장. 연구의 기초

## 1. 연구의 필요성

-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비롯하여 빈곤, 의료비용 증가, 세대 갈등, 노인의 소외와 고독, 돌봄 및 부양, 방임이나 학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최근의 노인정책은 빈곤이나 의료보장 등 심각한 문제를 가진 집단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 개인의 삶의 질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개념이 대두되었음.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란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의미함. 신체적 기능의 저하를 겪는 노인세대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모든 연령대가 함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음. 따라서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통해 전 세대의 지역주민들이 평생에 걸쳐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김선자, 김정혜, 김현정, 2008).
- 제주도는 역사·문화적으로 장수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왔음. 실제로도 현재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13%를 상회하여 국내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읍·면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머지않아 제주지역 전체가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4).

- 따라서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함.
-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가입 지역의 고령친화성을 인증하고, 가입 도시간의 활발한 정보교환과 교류를 도모하고 있음.
- 제주지역이 “WHO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제주도민의 장수와 안녕, 제주 거주환경의 최적화, 제주 관광의 활성화, 은퇴 후 이주 촉진, 제주 장수이미지의 글로벌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WHO(세계보건기구)의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제주 지역사회의 특성과 고령친화성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있어야만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해내고자 함.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가. 연구 목적

- 첫째, 제주지역의 고령친화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

고, 이를 활용하여 제주지역의 노인들이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고령친화성을 노인의 관점에서 진단하고자 함.

- 둘째,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진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셋째, 제주지역 고령친화성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시함.

#### 나.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 시간적 범위
  - 연구기간 : 2014년 4월 ~ 2014년 12월 31일
- 내용적 범위
  - 문헌조사에 의한 선행연구 고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간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

### 3. 연구내용

- 고령친화도시의 정의와 필요성
- 제주지역 고령인구의 특성과 고령사회 관련 정책 분석
-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해외 우수사례 조사

- 고령친화도 평가문항 개발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설문조사 및 고령자 인터뷰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설문지 결과 분석 및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과제 도출

#### 4. 기대효과

- 제주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필요성 인식 확산
- 제주지역 고령인구의 특성 고령친화도 평가·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제 도출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 분야 연구의 학술적 자료 생성
- WHO(세계보건기구)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필수 선행 기초자료 제공

## 제 2 장. 고령친화도시 현황

### 1. 고령친화도시 개요

- 오늘날 지구촌의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에는 11%이던 60세 이상인 고령자의 인구가 2050년이 되면 22%가 될 것이라고 예상됨.
- 세계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환으로 UN 산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2002년 ‘활동적 노년(Active Aging)’이라는 정책방안을 발표함.
- ‘활동적 노년(Active Aging)’ 정책이란 정부, 국제기관, 시민사회 등이 합심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고 노인들의 활발한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들은 고령인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음(WHO, 2002:6).
- 활동적 노년(Active Aging)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전략은 노인의 자기개발, 노인의 건강과 웰빙, 적극적인 지원환경 조성으로 구성됨(WHO, 2002).
- 활동적 노년(Active Aging)의 실행을 위해 WHO는 2006년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은 8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리환경요소(주거환경, 야외 공간, 교통환경), 사회환경요소(다양한 활동참여, 사교적인 교류, 사회참여와 일자리, 소통과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등이 포함되며(WHO, 2007), 노인들의 활발한 참여 유도를

위해선 무엇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적 정의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에서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일컫음(정경희, 이윤경, 오영희, 김상철, 노명우, 박신영, 설재훈, 방효정, 2006; 김경혜, 김선자, 노은이, 2010; 고승한, 임병우, 2011).
-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이념은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의 삶의 보장으로 규명하고, 이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자율성(Autonomy), 독립성(Independence), 삶의 질(Quality of Life), 건강유지(Healthy Life Expectancy)를 제시함(WHO, 2007).
-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는 고령인구의 특성과 욕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령자 각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존중하며, 생활환경 전반에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도시건설임(김경혜 외, 2010; 고승한 외, 2011).
- WHO는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를 제안한 이후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사회가 고령친화정책에 더 많은 의견을 내고 동참하도록 노력해옴.

## 2. 해외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례

- 많은 국가들은 “고령친화” 라는 같은 정책개념을 토대로 각기 다른 지역사회의 환경, 시민의 요구사항, 선호도, 정치성향에 맞추어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적 차원의 정책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진행함.

- 국가적 정책과정과 지역적인 정책과정은 정책과 실행 사이에서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과 이로움이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실행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는 각기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이행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나라의 정치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독특함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가. 캐나다

- 캐나다 정책입안자들은 고령친화도시 개념이 최초로 제안되었던 2006년부터 WHO와 함께 노력한 결과, 캐나다의 5개 주에서는 AFC가 우선 정책으로 제정되었고 100개 이상의 지역사회가 이 정책 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음(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10).
- 아울러 ‘캐나다 노년학협회(Canadian Association on Gerontology, 이하 CAG)’ 또한 고령친화도시 정책 관련 예시 수집을 연구의 우선과제로 삼고 있음.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는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홈페이지 영역을 따로 만들어 홍보와 정보 전달을 하고 있음.

## <그림 2-1>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British Columbia Residents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GOVERNMENT, RESIDENTS, ENVIRONMENT, EDUCATION, BUSINESS, HEALTH & SAFETY, EMPLOYMENT, and ABOUT B.C. The 'Residents' section is active, and the 'Age-friendly BC' page is displayed. The page content includes a sidebar with a list of links such as 'Healthy Aging', 'Housing', and 'Age-friendly BC'.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Age-friendly BC' and contains the following text:

**Age-friendly BC**

In an age-friendly British Columbia, older people are supported to live active, socially engaged, independent lives. Our vision is of a province where people of all ages and abilities feel included and valued in their communities. Through Age-friendly B.C., the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is working with local governments and other partners to achieve this vision.

These web pages will help you discover what you can do to make your community age-friendly.

- ▶ **Age-friendly Communities**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staff, and interested community members, can get information on the benefits and the key features of an age-friendly community; the steps to becoming an age-friendly community; and how to get recognized for their efforts.
- ▶ **Age-friendly Businesses**  
Business owners can learn what it means to be an age-friendly business, and how their business rates on the age-friendly scale.
- ▶ **Ideas in Action**  
See how innovative communities around the province are making great strides in becoming age-friendly. Get ideas for your own age-friendly initiatives.
- ▶ **Links to Resources**  
Find links to a wide range of supports, tools and resources to help you get started in making your community or business age-friendly.
- ▶ **Contact Us**  
The Ministry of Health, through the Seniors' Health Promotion Directorate, is continuing to work with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local age-friendly initiatives. An age-friendly community coordinator is in place to support and advise communities.

### 나. 영국

- 영국은 사회적 노화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구성과 다양한 기획의 상호연관성을 중시해옴(Harding, 2007).
- 예방적 관리에 더 중점을 두는 영국의 고령친화도시는 주거 공간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노인을 위한 기획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 아울러 나이나 신체적 장애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Sixsmith & Sixsmith, 2008).
- 또한 유럽연합국들과 더불어 가정과 주위환경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옴(UK Department for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2008).
- 고령친화도시 관련 정책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캐나다와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기존의 지역규제와 고령친화도시의 8가지 요소에 근거한

기획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가 주어짐 (사례는 [www.seniorsbc.ca/agefriendly](http://www.seniorsbc.ca/agefriendly)).

#### 다. 미국

- 미국의 고령친화도시는 한마디로 지역사회를 더 살만하고, 산책할 만한 곳으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대중교통, 사회 기반시설,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임(미국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d.); Hwang, E., Glass, A. P., Gutzmann, J., & Shin, K., 2008;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7; Oberlink, 2008).
- 성공적인 사례들은 지역 기획부서와 고령화 담당 지역기관 사이의 공동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보여줌.
- 구체적인 지역기관의 예로 뉴욕주의 Age-Friendly New York, 조지아주의 Aging Atlanta Partnership, 미네소타주 MN Vital Aging Network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일깨우려고 노력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역할 또한 높이 평가받고 있음(Scharlach, 2009).
- 전미퇴직자협회(AARP)는 WHO와 연합하여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미시간, 뉴욕,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7개 주와 콜롬비아 지역 등에서 고령친화도시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함(AARP, 2012).
- 또한 버지니아 주는 최근에 고령친화적이며 살만한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서 “Aging-in-Place(에이징 인 플레이스 : 내 집에서 나이 들기, ‘내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는 실버세대의 의견이 반영된 예방적 차원의 노인복지인 재가보호시스템)를 향후 2년 동안 이루어 내야 할 우선사항으로 제안함(VA Department for the Aging, 2009).

## 라. 한국과 중국

- 한국과 중국은 2001년에 이미 노인이 전체 인구의 7%에 육박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30년에는 노인의 비율이 한국은 19%, 중국은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UN, 2009).
- 이 두 국가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해 적극적이어서 홍콩과 서울특별시는 공영주택에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를 채택하고 ‘토지 복합이용’을 실행해오고 있음(Chui, 2008; Hwang et al., 2008).
-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는데, 노인전용주택, 주택개조, 공동주택관리 기준, 노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설립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함. 아울러 현재 운영되는 제도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임.

## 제 3 장. 제주지역 고령인구 특성 및 정책현황

### 1. 제주지역 고령인구의 변화와 전망

#### 1)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 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의 가속화

- 통계청의 2014년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3년 현재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5.7%, 2040년에는 32.3%, 2060년에는 40.1%로 지속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 특히, 2018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14.0%를 넘어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통계청, 2014).
- 또한 인구구조에서 15~64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0~14세의 유소년의 인구비중이 매우 낮아져 2060년에는 1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표 3-1). 따라서 20년 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역 피라미드 형태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통계청, 2014).

<표 3-1> 연령대별 인구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연도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1960	25,012,374	10,587,583	42.3	13,698,341	54.8	726,450	2.9
1970	32,240,827	13,709,367	42.5	17,540,152	54.4	991,308	3.1
1980	38,123,775	12,950,775	34.0	23,716,967	62.2	1,456,033	3.8
1990	42,869,283	10,973,592	25.6	29,700,607	69.3	2,195,084	5.1
2000	47,008,111	9,911,229	21.1	33,701,986	71.7	3,394,896	7.2
2010	49,410,366	7,975,374	16.1	35,982,502	72.8	5,452,490	11.0
2013	50,219,669	7,370,118	14.7	36,711,849	73.1	6,137,702	12.2
2020	51,435,495	6,788,432	13.2	36,562,967	71.1	8,084,096	15.7
2030	52,160,065	6,575,330	12.6	32,893,289	63.1	12,691,446	24.3
2040	51,091,352	5,717,528	11.2	28,872,500	56.5	16,501,324	32.3
2050	48,121,275	4,783,197	9.9	25,347,026	52.7	17,991,052	37.4
2060	43,959,375	4,472,656	10.2	21,865,175	49.7	17,621,544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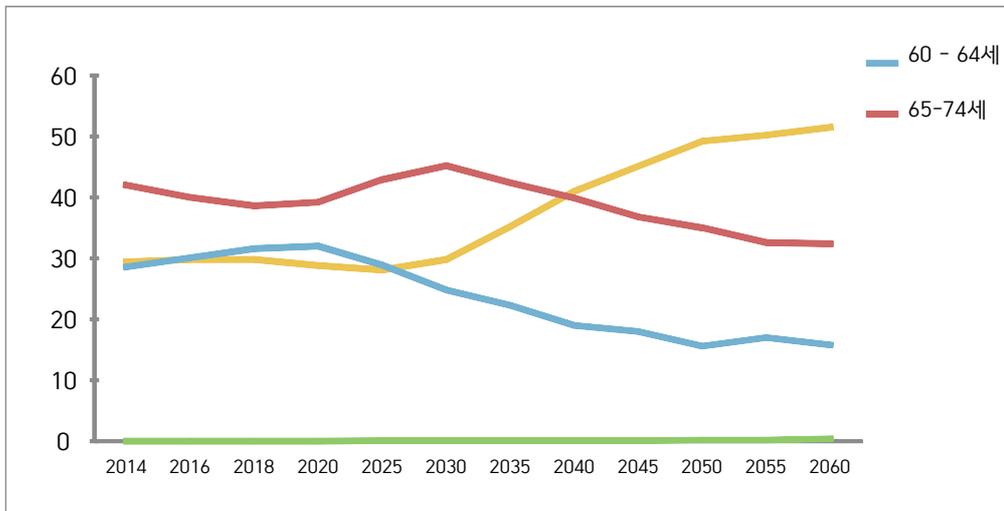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2014), 「장래인구추계」

- 인구구조 중 후기 고령층 및 초고령인구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3-1). 60세 이상 인구 비율 추계를 보면, 75세 이상 99세 이하의 초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비중은 203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3-1> 60세 이상 인구비율 추계

(단위 : %)

	2014	2016	2018	2020	2030	2035	2040	2050	2060
60~64세	28.6	30.1	31.6	32.0	24.8	22.3	19.0	15.6	15.8
65~74세	42.0	40.0	38.6	39.2	45.2	42.4	39.9	35.0	32.4
75~99세	29.4	29.8	29.8	28.8	29.8	35.2	41.0	49.2	51.5
100세 이상	0.0	0.0	0.0	0.0	0.1	0.1	0.1	0.2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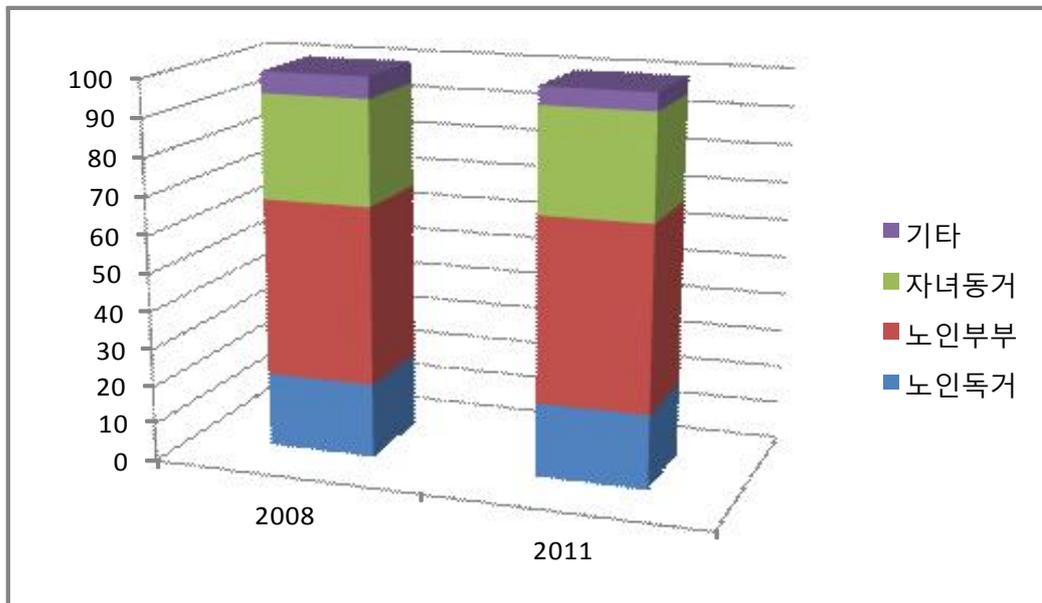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4) 재구성

#### 나. 노인가구 구성비의 변화

- 인구의 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구 구성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주목할 만한 변화임.
- <그림 3-2>에 나타난 노인 가구 구성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노인 독거가구가 전체 노인 가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3-2> 노인 가구 구성비 변화 추이



출처 : 통계청, 노인실태조사(2011)

#### 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년부양비 증가

-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 생산가능인구 추이를 보면(표 3-2) 우리나라의 2014년 생산가능 인구

는 3,684명이고,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2,18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표 3-2>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 천 명, %)

연도	합계	15~24세		25~49세		50~64세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4	36,839	6,755	13.4	19,578	38.8	10,507	20.8
2020	36,563	5,679	15.5	18,650	51.0	12,234	33.5
2030	32,893	4,494	13.7	16,243	49.4	12,156	37.0
2040	28,873	4,396	15.2	13,759	47.7	10,718	37.1
2050	25,347	3,971	15.7	11,454	45.2	9,923	39.1
2060	21,865	3,201	14.6	10,698	48.9	7,966	36.4

출처 : 통계청(2014), 「장래인구추계」 재구성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할 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년부양비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부담을 증가시킴.
-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노인 인구수를 나타내는 부양비 추이를 살펴보면(표 3-3), 2020년 22.1명, 2060년 80.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즉, 2060년이 되면 생산인구 1명이 노인 0.8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와 사회적 비용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표 3-3> 부양비 추이

(단위 : 명, %)

구분	0~14세 인구수	15~64세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2013	7,370,118	36,711,849	6,137,702	36.8	20.1	16.7
2020	6,788,432	36,562,967	8,084,096	40.7	18.6	22.1
2030	6,575,330	32,893,289	12,691,446	58.6	20.0	38.6
2040	5,717,528	28,872,500	16,501,324	77.0	19.8	57.2
2050	4,783,197	25,347,026	17,991,052	89.8	18.9	71.0
2060	4,472,656	21,865,175	17,621,544	101.0	20.5	80.6

출처 : 통계청(2014), 「장래인구추계」

## 2) 제주지역 고령인구의 현황과 특성

### 가.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변화

- 제주지역의 전체 인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604,670명으로 늘어나 인구 60만 시대로 접어들었음(제주특별자치도청, 2014).
- 이러한 제주지역의 인구 증가는 최근 타 시·도나 국외 지역에서 귀농·귀촌, 문화이주, 결혼 등의 이유로 제주로 이주해온 결과로 볼 수 있음.
-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변화 현황을 살펴보면(표 3-4), 제주지역의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2월 노인인구 비율이 13.1%를 넘었음.

<표 3-4>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변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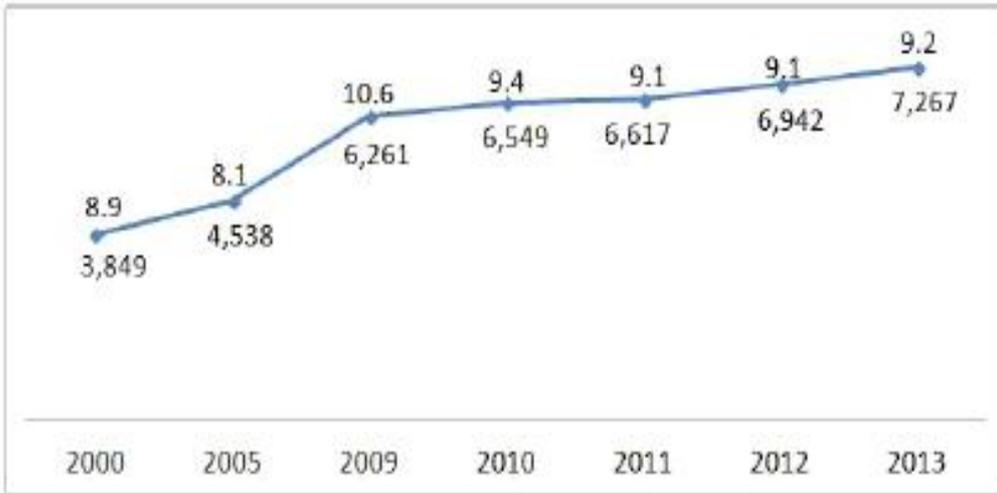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인구(A)	542,368	557,569	567,913	571,255	576,156	592,449	604,670
65세 이상 인구(B)	43,334	55,795	66,702	69,641	72,580	76,060	79,455
80세 이상 인구(C)	8,313	10,437	12,589	13,700	14,536	15,762	17,405
85세 이상 인구(D)	3,849	4,538	6,261	6,549	6,617	6,942	7,267
B/A (%)	8.0	10.0	11.7	12.2	12.6	12.8	13.1
C/B (%)	19.2	18.7	18.8	19.7	20.0	20.7	21.9
D/B (%)	8.9	8.1	10.6	9.4	9.1	9.1	9.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각 년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 특히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의 인구는 2000년 3,849명에서 2013년 7,267명으로 증가하여 8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의 비율은 전국의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제주도는 지난 40년 동안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장수도가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음(고승한·이소정, 2014).
- <그림 3-3> 연도별 제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3,849명, 2005년 4,538명, 2009년 6,261명, 2010년 6,549명, 2012년 6,942명, 2013년 7,267명 등으로 나타나, 2000년에 비하여 2013년 현재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의 인구는 88.8% 증가하였음.

<그림 3-3> 연도별 제주지역 85세 이상 장수노인인구 변화



나. 100세 이상 장수노인 인구현황

- 제주지역의 100세 이상 장수노인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48명, 2006년 43명, 2007년 55명, 2009년 75명, 2011년 97명, 2012년 207명, 2013년 190명 등으로 나타남<sup>1)</sup>.
- 제주지역의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1년 48명에 불과했던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2013년에는 190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앞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제주지역은 타 시도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어 제주지역의 노인문제와 고령친화 환경조성은 100세 이상 장수노인의 인구를 포함하여 이들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1) 100세 이상 장수노인의 인구에서 2011년 97명에서 2012년 207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주민등록인구통계 상의 자료와 제주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의 수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림 3-4 > 제주지역 100세 이상 장수노인 인구변화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각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각 년도.

## 2.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화 관련 정책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화관련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주요 대응과제와 노인복지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고령사회 주요 대응과제는 고령사회 대응 중기계획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제주특별자치도, 2011)와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임.

### 1)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사회 주요 대응과제<sup>2)</sup>

#### 가. 고령사회 대응 중기계획 :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중기계획 2011~2015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고령사회 삶

2)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사회 주요 대응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2011. 9)의 「저출산·고령사회 중기계획」과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혀둠.

의 질 향상 기반 구축”에 두고, 추진 방향과 전략, 기본방향,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추진방향 및 전략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 다양한 고용기회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노후생활 설계 강화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건강한 노후생활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
- 다양한 사회참여 지원 및 여가문화 제공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주거 및 교통환경 조성
- 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 기본방향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 다양한 중·고령자의 일자리 확대 및 연령차별, 성차별 등의 해소
- 중·고령인구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체계 구축
-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건강·여가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보건·진료·복지 통합개념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장수노인의 개인별 관리 및 사회보장적 돌봄

○ 중점과제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 고령 전문인력 우선채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시니어 창업지원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 노후생활 설계 강화

- 노후설계 지원체계 구축
- 민관협의회 및 ‘노후설계 종합 지원센터’ 지정 운영

-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

-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제공

- 중·고령자 전문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 고령친화적 교통 환경 조성

- 고령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개선
  - 노인인권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 경로당 ‘경로효친결연’
- 어린이 효 아카데미 사업 추진

#### 나.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100세 이상 노인을 보호·지원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음.

- 조례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임(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89호).

-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만80세 이상 노인을 ‘장수노인’으로, 만100세 이상인 노인을 ‘100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역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 내 장수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기 위한 수당지급 등 다양한 장수노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개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복지법’에 의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축하기념품 또는 이를 상징하는 기념물을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만 8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으로 매달 25,000원이 지원되고 있음.

### 3.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정책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에 따른 연계사업과 더불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됨.
- 노인복지정책 중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등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하여 노인복지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과 80세 이상 노인대상의 장수수당지급사업에 불과한 실정임.
- 만 80세 이상의 장수노인을 위한 장수수당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월 2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정책사업을 통한 노후생활보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2014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음(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2014).

#### 가.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A, B 판정자(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바우처), 가사서비스 등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돌보미) 지원, 70세 이상 노인 공영버스 무료 이용
- 지원내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 안전 확인 및 방문, 교통비 및 전화료 1인당 월 200,000원 지원

**나. 예방건강관리 분야**

○ 치매 조기 점진

- 대상 : 전체 노인
- 지원내용 : 보건소 치매 선별검사(무료) 후, 치매 거점 병원 치매진단검사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치매치료 진료비지원

- 대상 : 전체 노인
- 지원내용 :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 진료비 등 월 3만원 지원

**다. 연금 및 보험지원 관련 분야**

○ 기초노령 연금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노인 단독 830,000원(팔십 삼만 원), 노인부부 1,328,000원(일백 삼십 이만 팔천 원) 이하의 자
- 지원내용 :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 노인단독가구(20,000원~94,600원), 노인부부가구(40,000원~151,400원)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저소득노인 중 장기요양 1-2등급(도서지역 3등급까지) 시설 입소자, 차상위계층 지원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비급여분 제외)의 50%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대상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노인 및 장애인 세대, 차상위계층 지원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라. 고용지원 분야**

○ 노인고용 촉진장려금

-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 지원내용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1인 고용 시 월 200,000원; 업체당 5인 범위 내)

○ 노인일자리사업

- 대상 : 도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1일 3시간, 주 3일 노동에 매월 200,000원

**마. 복지서비스 분야**

○ 무주택 어르신 주거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환경독거노인 가구

- 지원내용 : 저소득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 (임대료 별 차등지원 ; 400,000원~700,000원)
- 저소득 어르신 목욕료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1인/월 6,000원 (연 72,000원)
- 저소득노인 이·미용료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1인/월 5,000원 (연 60,000원)
- 저소득노인 진료비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0,000원 (총 예산 14,000,000원)
- 저소득노인 주거비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 지원내용 : 가형주택 400,000원, 나형주택 600,000원, 다형주택 700,000원
- 저소득 틀니
  - 대상 : 저소득노인 지원
  - 지원내용 : 저소득노인 개인별 250,000원까지 지원
- 저소득노인 보청기
  - 대상 : 저소득노인 지원
  - 지원내용 : 저소득노인 개인별 340,000원까지 지원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대상 : 저소득 재가 결식노인 693명

- 지원내용 : 1식 3,500원/1인(7억원)

○ 간병비 지원

- 대상 : 시설입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1인당 6,000,000원, 병원 입원 시 유료 간병비 지원(간병인)

○ 물리치료사 인건비

- 대상 : 양로원 입소 노인 대상(양로시설 물리치료사에게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800,000원

○ 노인위생 재료비

- 대상 : 양로원 입소 노인

- 지원내용 : 양로시설 입소노인 정원의 30% 기준(연간 36백만원)

○ 경로당 지원사업

- 대상 : 경로당 이용 노인

- 지원내용 :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케이블 TV, 시청료, 간식비 등

#### 4.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관련 정책

- 1991년 UN은 ‘노인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 즉, 자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그리고 존엄성(dignity)을 제시하였음(United Nations, 1991).
- 2002년 마드리드 회의에서 Active aging의 세 가지 범주 즉,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그리고 안전(security)을 제시하였음(United Nations, 2002).
- 고령친화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 있음.
- 고령친화적 사회의 특성(정경희, 2010)은 다음과 같음.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연령, 모든 조건의 거주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함. 즉 노인 및 노인 가족들의 편의와 지원을 위해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 그리고 시설 등 지역의 자원들을 노인들이 좀 더 사용하기 쉽게(user-friendly) 만드는 것임. 대개 교통(transportation), 주거(housing), 건강보호(health care), 안전(safety), 존중(respect for old),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재정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함.
  - 따라서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의 특성(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도시계획과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을 말함.
  - 고령친화도시의 계획과 실천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통하여 노인 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의미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관련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점검 항목인 옥외환경과 건물, 교통, 주거환경,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통합,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그리고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가. 옥외환경과 건물(Outdoor Spaces and Buildings)

- 옥외환경과 건물 영역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녹지의 중요성, 휴식공간의 확보, 고령친화적인 도로, 보행자가 안전한 교차로, 접근성, 안전한 환경,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확보, 고령친화적인 건물, 적절한 공공화장실의 확보, 고령고객에 대한 배려 등을 주요 개념으로 하여 12개 점검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서민용 공공주택의 4층 이하의 빌라 혹은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거주 노인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민선 6기 도정의 공약사항인 「제주 3·6·5 약속 실천계획서(제주특별자치도, 2014)」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BF(Barrier Free) 인증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제주 유니버설디자인(무장애) 조례 제정,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정비사업,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국제포럼 운영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장애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 관련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전문가(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 도민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소통 활동 강화
  - 공공건축물 접근에 장애 없는 환경조성으로 사회적 약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관  
광지로 재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나. 교통환경(Transportation)

- 교통환경 영역은 이용 가능성, 가격의 적절성, 신뢰성과 운행 빈도, 목  
적지로의 이동 가능성, 고령친화적인 수송수단, 노인을 위한 특별서비  
스, 우선석 및 우대, 정중한 운전자, 안전성과 편안함, 정거장, 택시,  
지역사회 이동, 정보, 운전환경, 고령운전자에 대한 우대, 주차 등을  
주요 개념으로 하여 17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에서는 중증 장애인 유형별 이동지원 차  
량 운영 확대를 통하여 중증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송운송차량  
지속운영, 읍면 취약지역 중증 장애인 전용 특별운송차량 운영, 일반  
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전용택시 도입 운영을 제시하고 있어 교통약자  
를 위한 이동서비스지원과 대중교통수단이 확대될 예정임.
- 노인운전자를 배려한 운전면허 취득, 도로 표지판, 주차공간 등
- 노인 보행자의 횡단시간을 고려한 횡단보도 거리, 신호체계 등
- 노인 보행자를 위한 균일한 보도블럭과 보호 펜스 등으로 차도로부터  
보행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 제주 3·6·5 약속 실천계획서(제주특별자치도, 2014)에 따르면, 교통  
안전성을 위하여 고취도 융착식 차선도색사업(2018년까지 L=154Km), 횡  
단보도에 블록형태의 포장으로 보행 안정성 확보(2015년~2018년까지  
매년 15개소), 횡단보도주변 사고방지를 위한 무단횡단 금지 가드레일  
설치(2015년~2018년까지 매년 25개소)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횡단보도의 턱은 없애고 있으나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막아 놓은 블록은 일반 보행노인뿐만 아니라, 지팡이, 휠체어 사용 노인에게는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

#### 다. 주거환경(Housing)

- 주거환경 영역은 가격의 적절성, 중요서비스, 디자인, 변경, 유지, 서비스에의 접근성, 지역사회 및 가족과의 연계, 주거선택권, 주택을 주요 개념으로 하여 7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에서는 저소득 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 확대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취약자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총 주택수는 2008년 180,592호에서 2012년 197,032호로 연평균 2.2% 증가하였음(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2014:10).
  - 아파트는 2008년 42,693호로 전체의 23.6%, 2012년에는 52,988호로 전체의 26.9%로 증가함.
  - 다세대주택은 2008년 18,778호로 전체의 10.4%, 2012년 20,997호로 증가하여 전체의 10.7% 차지함.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제주특별자치도, 2014)에 따르면,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노인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평면도 및 동선, 스위치 등 노인전용주택 보급이 고려되어야 함.

## 라.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 사회참여 영역은 접근 가능한 참여기회, 적절한 비용으로 향유할 수 있는 활동, 폭넓은 참여기회, 참여의 촉진과 고립에 대한 관심, 세대, 문화, 지역사회의 통합에 대한 강조에 기초하여 8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문화복지시설에는 시민회관, 종합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등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2014:33)
  - 시민회관은 총 2개소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1개소가 있음
  -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총 9개소로,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2개소가 있음
  - 청소년회관은 총 43개소, 제주시 20개소, 서귀포시 23개소가 있음.
- 2013년 기준 제주지역 내 도서관은 총 21개소(도 1, 행정시 14, 교육청 6) 운영 중(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2014:33)
- 공공체육시설은 2008년에 201개소에서 2013년 286개소로 연평균 6.48% 증가하였으며, 그 중 국중장이 2008년 2개소에서 2013년 5개소로 증가하였음(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p.34).
  - 간이 운동장은 2008년 143개소에서 2013년 213개소로 70개소가 증가하였으며(6.57%),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2008년에 비해 각각 4개소(4.4%, 10%) 증가하였음.
  - 제주 3·6·5 약속 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생활스포츠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아카데미 개설 운영,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크골프장 1개소, 축구장 2개소, 야구장 2개소, 체육관 2개소, 마을잔디운동장 10개소),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일반, 어르신,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59명,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53개

소, 어르신, 여성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20개소)을 위한 기반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 3·6·5 약속 실천계획서에 따르면, 문화예술의 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특수 조성 및 운영, 제주문화예술센터 조성, 제주문학관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제주 해녀 문화사업 활성화, 제주해녀 세계화 및 홍보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제주 3·6·5 약속 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교육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평생교육, 제주의 가치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 지정을 위하여, 생활권역 단위 평생교육 실태 조사, 평생학습권역 및 거점시설 선정, 읍면동 단위 평생교육사 배치, 행복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음.

#### 마. 존중과 사회통합(Respect and Social Inclusion)

- 존중과 사회적 통합 영역은 노인에 대한 정중한 행동, 연령차별주의와 무시, 세대간 교류와 공교육, 지역사회내의 위상, 지역사회의 도움, 가족 내 위상, 경제적 배제 등 주요 개념으로 9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4)에서는 효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조례 제정, 고령사회 부모부양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어르신의 권리와 사회인식 개선 사업을 통한 노인 인권보호, 노인학대 및 방임 방지,

노인인권 향상 제고를 위한 노인인권 지킴이단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제 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제주특별자치도, 2014), 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를 위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0백 만 원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조례제정, 노인학대예방 증장기계획 수립,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효행장려사업, 효문화센터 설치, 노인인권보호사업개발 등의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바. 시민참여와 고용(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 시민참여와 고용 영역은 자원봉사 기회, 더 나은 고용 기회, 고령노동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유연한 적응, 시민참여의 촉진, 훈련, 사업기회, 노인의 기여에 대한 인정 등을 주요 개념으로 8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4)에 따르면,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시키는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4년 노인 일자리 수 4,369개, 8,826백 만 원의 예산에서 2018년 5,000개, 10,000백 만 원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음.
- 제주 3·6·5 약속 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일자리정보 통합관리 및 고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하여 고용서비스망 연계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정보통합관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일자리 협치행정(고용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시범도시 조성 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사회적 경제 위원회 설치, 제주형 사회적 경제 주체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지역특화사업 추진, 성장단계별 사회적 경제 맞춤형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사. 의사소통과 정보(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의사소통과 정보 영역은 정보의 폭넓은 전파, 적절한 시점에서의 적절한 정보제공,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의 존재, 고령친화적인 양식과 디자인, 정보제공 기술의 발전이 노인에게 가져다주는 좋은 점과 나쁜 점, 개인적 책임과 집합적 책무를 주요 개념으로 11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아.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Community Support and Health Care)

-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영역은 접근 가능한 보호서비스, 폭넓은 건강서비스, 노화관련 서비스, 재가 서비스, 집에서 거주하기 힘든 사람을 위한 주거시설, 지역서비스 네트워크, 자원봉사의 필요성 등을 주요 개념으로 12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4)에 따르면, 제주 는 공립 치매병원과 치매 전문병동이 있는 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치매 관리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임.
  - 따라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도내 치매문제 해소 기반을 마련하고 치매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음.
  - 치매조기지단부터 맞춤형 서비스까지 체계적 원스톱서비스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치료, 관리 등 예방에서 진료는 물론 관리까지 치매환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등 기본 돌봄서비스는 물론, 화재·가스 안전 서비스, 우울성향의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등 수행기관인 ‘one-stop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활성화: 재활병원 공간 효율적 활용 및 운영 성과 극대화 추진, 광역 보조기구센터 운영

○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4)에서의 지역사회 지원을 보면, 민관연계 사례관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세부 현안사업 발굴, 자원의 정보 제공 및 공유를 통한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또한, 전 생애동안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 주거, 보육 및 교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일상생활 등 생활영역별 이용 가능한 복지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가이드북인 제주복지 맵 개발 및 보급을 제시하고 있음.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4)에 따르면, 노후 건강과 생활안전 제고를 위하여 노인 안전단말기 지원사업과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안전단말기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00대, 100백 만 원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확대사업은 2014년 과 2015년 900백 만 원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00백 만 원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음.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4) 중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치매예방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과 심야

약국 운영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치매예방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업은 2016년 광역치매센터 유치, 1,420백 만 원에서부터 2018년 600 백 만 원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심야약국운영 활성화 사업은 심야약국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306백 만 원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음.

- 제주 3·6·5 약속 실천계획서(제주특별자치도, 2014)에 따르면, 도내 수술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수도권 긴급이송과 산악 및 도서지역의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2017년까지 소방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및 배치를 계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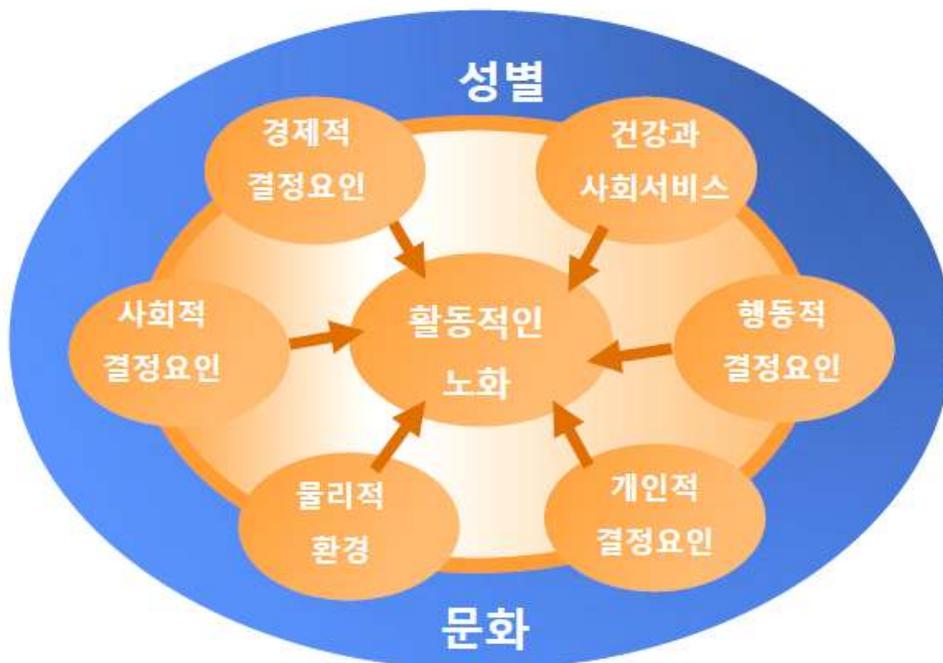
## 제 4 장.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지표 개발

### 1.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고령친화도시 지침서 내용 분석

- 도시화와 고령인구 증가는 21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적 추세로, 노년층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생활환경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경제적 자원임.
- 이에 WHO에서는 ‘활기찬 노년(Active Ageing)’을 노년층의 건강과 참여, 안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작용하여 이뤄내는 평생에 걸친 작업으로 간주하고 이런 접근법에 맞추어 노년층이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둠.
- WHO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작성에 앞서 고령친화도시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20여 개국 33개 도시의 WHO 지사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자원봉사단체에서 일하는 부양자들과 서비스 제공자들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함.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시생활의 여덟 개 영역에서 체험한 장점과 장벽을 조사하였고, 실증자료를 토대로 일련의 고령친화도시 점검항목을 만들음.
- WHO에서 제공한 고령친화도시 점검항목을 토대로 하여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성하였으며, 글로벌 네트워크에 속한 국가와 지역사회가 강건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고 냉정하게 성과를 평가하도록 촉구하고 있음(WHO, 2010).

- 그러나 시행단계에 있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이 노인 건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며, 기존의 고령친화 정책이 각기 다른 나라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음.
-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역사회는 2011년 이후로 나름의 지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옴.

<그림 4-1> 활기찬 노년을 위한 결정요인



## 2. 고령친화도 평가지표 구성

- 고령친화도시 평가지표는 물리적 환경(야외 공간과 건물, 교통환경, 주택),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07년 WHO가

내용은 고령친화도시의 특성, 각 조사 영역이 정리된 도표, 조사항목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고령친화도시 프로그램(AFC)의 대표 격인 전미퇴직자협회(AARP), 개인 회사, 세계보건기구 작업그룹(Working Group) 등의 보고서와 각 지역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제시된 개요와 계속 수정되고 있는 지표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방식과 지표의 평가 방법을 수집하고, 세부 구성요소들을 최종 확정하고자 함.

#### 가. 옥외환경과 건물(Outdoor Spaces and Buildings)

- 공공시설 및 공간은 깨끗하고 쾌적하다.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마련한 녹지공간과 야외좌석은 충분하며 안전을 중점적으로 잘 관리한다.
- 보행자들을 위해 도로는 수시로 포장하고 장애물들은 제거한다.
- 도로는 미끄럽지 않으며 휠체어가 다닐 정도로 넓고, 연석선 높이는 도로와 동일하게 낮추었다.
- 횡단보도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끄럼방지 표시나 시각 및 오디오 신호를 갖추고 있으며 횡단 시간은 충분하다.
-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양보한다.
- 자전거길은 보행자가 다니는 길과 분리되어 있다.
- 충분한 가로등을 설치하고 경찰 순찰과 지역사회 주민 교육을 통해서 야외 공간 안전을 촉진한다.
- 서비스 센터는 같은 지역에 위치하므로 이용하기가 쉽다.

- 노인들의 개별적인 일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카운터를 따로 두어 특별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
- 건물에는 충분한 좌석과 화장실이 있으며 엘리베이터, 램프, 난간과 계단, 미끄럼방지 표시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 야외와 실내에는 청결하고 잘 관리된 화장실이 충분하여 이용하기 쉽다.

<표 4-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옥외환경과 건물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걷기 적합성 (보행자 길/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는 두 사람이 지나기에 좁지 않으며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하고 연석선 높이는 도로와 같이 낮다.</li> <li>•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이 규정화되었다.</li> <li>• 인도는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등을 타는 길과 분리되어 있다.</li> <li>• 횡단보도의 교통신호가 바뀌는 시간은 적절하며 보행자가 버튼을 눌러 신호를 바꿀 수도 있다. 각종 교통표시가 잘 되어 있고 연석선 높이는 도로와 같다.</li> <li>• 인도에는 좌석 등 휴식할 수 있는 곳이 충분하다.</li> <li>• 보행자를 위한 명확한 길 안내 표지판이 있다.</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도로(Complete Streets)”정책 이 있다. (예: 항상 관리하는 인도,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해 도로 가운데 만들어 놓은 구역확보, 자전거길)</li> <li>•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산책하기 적합하다고 느끼는 노인의 비율은?</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공공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위에 산책공간이 많다고 인정받는 곳이다.</li> <li>• 복합 용도(소매점과 주택)로 지정된 대지비율은?</li> </ul>	메트라이프 Met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하기 쉬운 화장실을 갖춘 곳으로 접근성이 높은 건물이다.</li> </ul>	WHO 2013 워크그룹

<표 4-1. 계속> 옥외환경과 건물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인근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5세 이상의 주민 중에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과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li> </ul>	WHO 2012 워크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율은?</li> <li>노인의 필요사항은 비상대책계획의 고려대상에 들어 있는가?</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야외 휴식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당 차지하는 야외휴식공간은?</li> </ul>	세계도시지표 Global Cities Indic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과 유원지의 존재여부는?</li> <li>걷는 거리 이내에 공원과 유원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은?</li> <li>공원과 유원지를 경유하는 교통수단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노인의 비율은?</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나. 교통환경(Transportation)

- 대중교통비용은 일관되고 적절하며 게시물을 통해 분명하게 알린다.
- 대중교통수단은 믿을만하고 늦은 밤, 주말, 휴일에도 자주 이용할 수 있다.
- 도시의 모든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운행편이 잘 갖춰져 있고 행선지의 노선과 차량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대중교통 내부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기기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적당한 인원만을 탑승하게 해서 혼잡하지 않고 노약좌석 같은 지정석을 둔다.

- 장애인을 위한 전문 차량을 운행한다.
- 운전자는 지정된 정류소의 연석선 옆에 차를 세워서 주민들이 편하게 탑승할 수 있게 하고 승객이 자리에 앉은 후에 출발한다.
-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한 각 정류소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밝은 조명과 명확한 노선표를 게시한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과 충분한 좌석을 갖추고 있다.
- 승객들을 위해 정확한 노선과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 시설을 갖추고 있다.
- 대중교통 수단이 제한적인 경우엔 임시로 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 택시는 요금이 적절하여 이용하기 쉽고 운전자는 공손하고 필요할 땐 승객을 돕는다.
- 배수로를 잘 덮는 등 도로를 점검하고 가로등 관리도 철저히 한다.
- 차량의 흐름을 잘 규제한다.
- 운전자의 시야를 막는 장애물은 도로에서 치운다.
- 교통신호등과 교차로는 잘 보이는 적합한 장소에 배치한다.
- 모든 운전자에게 단기 재교육을 실시한다.
- 승객이 내리는 정류소와 주차장은 안전하고 수적으로도 충분하며 찾기 쉬운 곳에 있다.
-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정류소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표 4-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환경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대중교통수단의 질과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중 교통수단이 일정대로 운행된다.</li> <li>• 버스정류소 옆의 인도, 횡단보도, 그늘진 휴식공간이 관리된다.</li> <li>•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 진료소, 쇼핑센터에 갈 수 있다.</li> <li>• 대중교통 운행 일정을 언제든지 알 수 있다</li> <li>• 대중교통 정류소의 질은?</li> <li>• 대중교통 수단의 질과 유용성은?</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걷는 거리 이내에서 대중교통 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은?</li> <li>• 대중교통 이용법을 아는 노인의 비율은?</li> <li>• 대중교통 요금은?</li> <li>• 노인에게 적용되는 요금할인은?</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다.</li> <li>• 65세 이상의 주민이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횟수는?</li> <li>• 65세 이상의 주민이 대중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집에 머무르는 횟수는?</li> </ul>	WHO 2012 워크그룹
교통수단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존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예: 버스, 지하철, 경전철)</li> <li>• 현존하는 노인을 위한 교통수단은? (예: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하는 교통수단)</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서비스는?</li> <li>• 이용 가능한 택시 서비스는?</li> <li>• 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중교통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대중교통 수단은 믿을만하고 수적으로도 충분하다.</li> </ul>	WHO 2012 워크그룹

<표 4-2. 계속>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환경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안전 운전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회전 보호 표시가 있는가? (예: 지정된 차선과 화살표)</li> <li>• 시야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이 있는가? (예: 읽기 쉬운 도로표지판, 충분한 조명시설 )</li> </ul>	메트라이프 Met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쉬운 도로 표지판, 우회전 차선, 좌회전 차선, 보행자를 위해 도로 가운데 만들어 놓은 구역이 있는가?</li> <li>•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감시가 이루어지는가?</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우선주차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가?</li> </ul>	WHO 2012 워크그룹

#### 다. 주거환경(Housing)

-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이 지역사회 서비스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적으로도 충분하다.
- 주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 주택은 날씨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보호 될만큼 견고하게 지어졌다.
- 주택 내부와 모든 방과 복도는 동일한 바닥 높이로 오가는데 자유롭다.
- 주택 개선이 가능하고 이 비용이 합리적이며 시공업자는 노인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 공공주택 및 상업임대 주택은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관리한다.

- 병약하고 장애가 있는 노인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의 주택이 수적으로 충분하고 지역사회는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4-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비용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에 있는 합리적인 비용의 주택 유형은?</li> <li>• 합리적인 비용의 주택이 쇼핑센터, 레크레이션 센터, 대중교통 정류소 근처에 위치한다.</li> <li>• 수입이 낮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부동산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li> <li>•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li> <li>• 저소득층 주택에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지원을 한다(Weatherization program).</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주민이며 연소득의 30%이하를 집세로 지불하는 가정의 비율은?</li> <li>• 재산세는?</li> <li>• 평균 집세와 평균 임대 가격은?</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주거지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유형으로 분류된 지역사회 주거지의 수와 비율은?</li> </ul>	WHO 2012 워크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는 노인 공동주택, 동거형 주택, 다세대 주택 설립을 허가하는가?</li> <li>• 노인을 위한 특별주택은?</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지역규제법은 유연한 주택배치를 허용한다. (예: 동거형 주택, 공동주택)</li> <li>• 용도지역규제법은 어시스트 리빙(assisted living)과 양로원(senior housing) 형태를 허용한다.</li> <li>• 크지 않은 단독주택의 비율은?</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 선택이 다소 자유롭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표 4-3. 계속>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주거지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이드라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방문하기 쉬운 주거지 설립을 장려한다.</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는 주택의 접근성을 강조한다.</li> <li>이용 가능한 다세대 주택이 있는가?</li> <li>각 주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할 수 있다.</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주거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 개선과 보수공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있는가?</li> <li>수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존하는 주택 개선 프로그램은?</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 라.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 모임장소는 편리한 곳에 위치해서 찾기 쉽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 모임은 노인들에게 편안한 시간대에 있다.
- 혼자 혹은 동료와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적절하다.
- 모임 장소를 찾아오는 길과 대중교통 이용법 외에도 모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
-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 레크레이션 센터, 학교, 도서관, 지역사회 센터, 공원 같은 여러 장소에서 모임을 갖는다.
-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모임에 나오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표 4-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참여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유용성/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이 차지하는 실내 휴식 공간의 너비</li> <li>• 1인이 차지하는 야외 공간의 너비</li> </ul>	세계도시지표 Global City Indic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신이 소속된 지역사회에서 자기계발 수업이나 워크숍 참여를 위해 어디로 가는가?</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주위에 살고 있는가?</li> </ul>	할리버튼 카운티 Haliburton Coun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사는 지역엔 산책하기 좋은 곳이 많다.</li> <li>• 길 옆에 놓인 의자를 포함하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li> <li>• 노인들을 위한 수업이 여러 개 있다. (예: 카드 게임, 미술, 공예)</li> <li>•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충분하다. (예: 컴퓨터 수업)</li> <li>•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예: 읽기 프로그램)</li> </ul>	매니토바 주 Manitoba Province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기간 동안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인원</li> <li>• 매일, 매주, 매달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인원</li> <li>• 지난해에 정규교육에 등록한 노인들의 숫자</li> </ul>	WHO 2013 워크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신은 얼마나 자주 친구, 가족, 이웃들과 소통하는가? 상호작용은 직접 만나는 것 이외에도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할 수 있다.</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신은 현재 단체에 활발히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가?</li> <li>• 대략 얼마만큼의 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하는가?</li> <li>• 지난 12개월 동안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직접 도운 적이 있는가?</li> </ul>	유로바로미터378

<표 4-4. 계속>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참여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신은 외출 시, 보통 무엇을 하는가? (해당되는 모든 것에 표시하라)</li> <li>위 리스트에 있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할리버턴 카운티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어디인가?</li> </ul>	할리버튼 카운티 Haliburton Coun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주에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한 고령자 비율</li> <li>세대 간 활동에 참여한 고령인구 비율</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들의 공원과 산책로 접근이 용이하다.</li> <li>소외된 노인들에게 연락하여 방문하고 지역사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li> </ul>	매니토바 주 Manitoba Province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는 주된 이유는?</li> </ul>	유로바로미터3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나?</li> </ul>	할리버튼 카운티 Haliburton Coun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이 노인들에게 적합하다.</li> </ul>	매니토바 주 Manitoba Provi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떻게 하면 당신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쉬울까?</li> <li>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상점 등에서 지팡이, 스쿠터, 휠체어 사용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li> <li>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상점 등을 더 쉽게 다니려면 어떤 일이 해결되어야 할까?</li> </ul>	온타리오 주, 서드베리 Sudbury Ontario

마. 존중과 사회통합(Respect and Social Inclusion)

- 노인들의 상황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상업기관, 지원봉사 단체는 정기적으로 노인을 상담한다.
- 공공기관과 상업기관은 노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한다.

- 봉사자들은 공손하고 노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대중매체에 노인을 자연스럽게 등장시키며 소통불능의 부정적인 면만이 아닌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한다.
- 모든 세대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지역사회 행사를 개최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도록 유도한다.
- 노인을 지역사회 활동에 중요한 일원으로 대우한다.
- 학교는 노인과 나이 들에 관하여 가르치고 노인과 함께 하는 학교 활동을 개최한다.
- 지역사회에 행한 노인의 과거 공로와 현재 공로를 모두 존중한다.
-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노인은 공공기관, 민간기관, 자원봉사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표 4-5>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존중과 사회적 통합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유용성/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당국에 장애인과 노인을 수용할만한 숙소가 충분한가?</li> <li>• 시당국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충분한가?</li> <li>• 시당국은 장애인과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 기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가?</li> </ul>	유용성 Accessibility 온타리오 Ontario
유용성/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당국은 직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감수성훈련을 실시하는가?</li> <li>• 시당국은 장애인이 여러 기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맷(대형 활자, 오디오 테이프, 컴퓨터 디스켓, 점자)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가?</li> <li>• 시당국은 복잡한 교차로에 오디오 신호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li> <li>• 국제적인 상징과 촉각 신호체계도 사용하는가?</li> <li>• 인쇄 사이즈, 색깔, 조명 등을 대조해보라.</li> </ul>	유용성 Accessibility 온타리오 Ontario

<표 4-5. 계속>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존중과 사회적 통합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대로 된 주거지와 대중교통 수단의 기준에서 탈락될 징후, 시민활동과 정보이용, 지역 편의 시설, 소비물자, 문화활동, 사회적 유대관계, 금융상품</li> </ul>	영국전국노입협회/ 장수센터 Age UK/ Longevity Center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속한 지역의 노인은 존중 받는다.</li> <li>• 시 당국은 노인 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노인의 의견을 참고한다.</li> <li>• 지역사회 협의 시 노인도 참여한다.</li> <li>• 시당국 기획에는 노인의 요구사항을 논의한다. (예: 노인 주거지와 교통수단 개선 기획)</li> </ul>	매니토바 주 Manitoba Province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로 인하여 존중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노인의 숫자</li> <li>• “가끔”, “자주”, “항상”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의 숫자</li> </ul>	WHO 2013 워크그룹 WHO Work Group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까?</li> <li>• 어떻게 하면 사교활동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까?</li> <li>•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그 밖의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할 수 있을까?</li> </ul>	온타리오 주, 서드베리 Sudbury Ontar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신은 할리버튼 카운티의 노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가?</li> <li>• 당신이 나이로 인하여 받은 부당한 대우는 어떤 것인가?</li> <li>• 앞날을 생각하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인가?</li> <li>• 이 지역에는 노인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li> </ul>	할리버튼 카운티 Haliburton County

**바. 시민참여와 고용(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 노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시간이 다소 자유로운 일자리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그에 맞는 훈련과 교육, 적절한 처우, 개인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 고령인구의 노동력 질 향상을 꾀한다.
- 노인들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일자리와 그에 맞는 보수를 제공한다.
- 나이 때문에 고용, 해고, 승진, 직업 훈련에서 차별대우 받는 것을 금한다.
- 직장은 장애인이 일하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 노인들의 자영업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한다.
- 노인들에게 은퇴 이후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영리 부문 각각에 존재하는 의사결정기구에 노인들을 영입한다.

**<표 4-6>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와 고용**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유용성/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는 노인을 위해 자원봉사를 할 기회가 충분하다.</li> <li>•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는 노인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하다.</li> </ul>	매니토바 주 Manitoba Province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숫자</li> </ul>	WHO 2013 워크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시 선거 때의 투표 참석률 (전체 유권자에 대한 비율로 작성)</li> <li>• 취업 자료</li> <li>• 평균 가계소득</li> <li>• 총 취업인구</li> <li>• 지난 5년을 기반으로 한 총 취업비율 변화</li> <li>• 연 평균 실업률</li> <li>• 도시 빈민층 비율</li> </ul>	세계도시지표 Global City Indicators

<표 4-6. 계속>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업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중 무엇이 당신의 취업여부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나?</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단체에 참여하고 있나? 혹은 그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하는가?</li> <li>한 달에 평균 몇 시간 자원봉사를 하는가?</li> </ul>	유로바로미터378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신의 취업여부는?</li> <li>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자원봉사를 하는가?</li> </ul>	할리버튼 카운티 Haliburton Coun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취업여부는?</li> </ul>	온타리오 주, 서드베리 Sudbury Ontar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에 교외, 동아리, 문화행사, 사교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비율</li> <li>자원봉사를 한 노인들의 비율</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신은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 할 기회를 찾고 있는가?</li> </ul>	할리버튼 카운티 Haliburton County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에 만족하는 노인의 숫자</li> </ul>	WHO 2013 워크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다음에 제시된 것이 지니는 중요성은 얼마나 큰가?</li> <li>당신은 오랫동안 은퇴를 미룰 생각인가?</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신은 얼마나 자주 생활비의 부족함을 느끼는가?</li> </ul>	할리버튼 카운티 Haliburton Coun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을 위하여 공식적인 인정행사가 있다.(예: 감사연회)</li> <li>지역사회의 일자리 기회가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한다.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li> </ul>	매니토바 카운티 Manitoba County

#### 사. 의사소통과 정보(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기본적인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전 나이대가 이용할 수 있다.
-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내용도 공개가 가능한 선에서 알 수 있다.
- 노인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으로도 전달한다.
- 노인에게 말로 전달하는 방식을 활성화한다.
- 소외된 사람에게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정보를 전한다.
- 공공 기관과 상용 기관은 시민이 정보를 요구하면 직원이 친절하게 정보를 설명하게 한다.
- 진열대 위에 놓인 공식적인 양식과 안내유인물의 활자는 키우고 중심 내용은 명확한 표제와 굵은 체로 표시한다.
- 인쇄물 배포와 방송 시에는 평이하고 익숙한 단어를 이용하여 짧고 간단하게 표현한다.
- 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지시사항은 분명하고 천천히 설명하고 언제든지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휴대폰, 라디오, 텔레비전, 은행 기기, 티켓 발매기 같은 전자기기에는 큰 버튼을 장착하고 활자는 더 크게 키운다.
- 관공서, 지역사회 센터,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무료로 혹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표 4-7>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정보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유용성/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에는 다음의 ……가 있는가? (예: 지역사회정보에 접속, 큰 활자로 진열된 정보유인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지역사회 정보)</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행사에 관한 정보는 노인에게 즉시 알린다.</li> <li>다양한 기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노인에게 즉시 알린다.</li> </ul>	매니토바 주 Manitoba Provi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내서나 양식 같은 공식적인 서면 정보는 읽고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다. (예: 큰 활자, 명확한 말)</li> <li>자동응답전화기 서비스는 노인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다. (예: 지시사항은 분명하고 천천히 전달된다)</li> <li>공문서 양식을 채워 넣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 공문서나 세금 신고 양식 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li> <li>노인을 위한 변호서비스가 충분하다. (예: 다른 사람들에게 노인 고충을 알리는 옴부즈맨)</li> </ul>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에 인터넷 시설을 갖춘 노인의 숫자</li> <li>공공 시설에 갖추어진 컴퓨터와 인터넷 시설에 만족하는 노인의 숫자</li> </ul>	WHO 2013 워크그룹 WHO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만 인구 당 인터넷 접속 횟수</li> <li>10만 인구 당 전화 연결 횟수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포함)</li> </ul>	세계도시지표 Global City Indic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신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종종 사용하는가?</li> <li>인터넷을 이용하는가?</li> </ul>	할리버튼 카운티 Haliburton County

<표 4-7. 계속>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정보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다음의...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예: 한 곳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는 것, 큰 활자로 쉽게 인쇄된 유인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지역사회 정보)</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신은 지역사회가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느끼는가?</li> <li>지역사회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알고 싶은가?</li> </ul>	할리버튼 카운티 Haliburton Coun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신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건물과 공공장소를 생각하면서 다음을 평가해보라. (예: 분명하고 읽기 쉬운 표지판이 있다)</li> </ul>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을 위한 레저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안내</li> <li>노인을 위한 일자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li> <li>노인 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출처</li> </ul>	WHO 2013 워크그룹 WHO

**아.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Community Support and Health Care)**

-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도록 다양한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방문요양서비스(Home Care Services) 에는 건강서비스, 개별적인 돌봄, 집안 살림을 모두 포함한다.
-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센터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는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
- 노인 주거시설과 양로원은 각종 서비스 센터 가까이에 위치한다.
- 견고하게 지어진 지역의료서비스 시설은 방문하기 쉽다.

- 노인을 위한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서비스는 조직화되어 있으며 서비스 절차는 단순하다.
- 서비스센터 직원은 공손하고 늘 도움을 주며 노인을 대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다.
-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장애가 되는 재정적 장벽을 최소화한다.
-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이 자원하여 서비스 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 장례를 위한 매장지가 충분하다.
- 지역사회 비상기획은 노인의 취약함 및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다.

<표 4-8>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의료서비스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지역사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서비스의 비용은?</li> <li>• 중산층 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무엇인가? (예: 시범마을)</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지역사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걷는 거리 이내에 지원서비스 센터가 있는 곳에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 혹은 지원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수적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노인의 비율은?</li> <li>• 지원센터의 위치를 알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수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진료소 혹은 병원 외래환자 서비스 센터는?</li> <li>• 대중교통 노선에 위치한 진료소 혹은 의료사무실은?</li> <li>• 이용 가능한 가정 건강관리 서비스는?</li> <li>• 이용 가능한 정신건강 서비스는?</li> <li>• 이용 가능한 노인보호주간서비스는?</li> <li>• 의료서비스와 의료혜택에 대한 정보는?</li> <li>• 이용 가능한 예방관리 서비스는?</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표 4-8 계속>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의료서비스

영역	지표와 조사항목	자료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료소 가까이에 주거하는 노인의 비율 혹은 진료소에 가기 위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수적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노인의 비율은?</li> <li>진료소 위치를 알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의료서비스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과의를사를 포함하는 의사들이 노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이행한다.</li> </ul>	전미퇴직자협회 A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인 부족 지역으로 정해지지 않았다.</li> <li>현존하는 병원, 일차 진료소, 내과 의사, 전문의는? (예: 물리치료사, 노인병 전문의)</li> <li>현존하는 건강유지 프로그램은? (예: 예방접종, 낙상예방)</li> </ul>	메트라이프 MetLife
의료서비스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30일 동안 의료시설을 방문한 비율은?</li> <li>의료서비스 이용률은?</li> </ul>	WHO 2012 워크그룹

### 3. 고령친화도 평가문항

- 선행연구와 연구진 회의를 거쳐 본 연구에 사용할 평가문항을 다음과 같이 선정함.
- 선정된 문항은 제주시 애월읍 일대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 내용과 질문의 개수를 조정함.

#### 가. 옥외환경과 건물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 우리 동네는 차길과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다.

- 우리 동네는 길이 평평해서 길을 걸거나 보행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다.
- 우리 동네는 횡단보도가 잘 갖추어져있다.
- 우리 동네 횡단보도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충분히
- 길어서 길을 건널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 공공건물(마을회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출입구에는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이 있어 드나들기 편하다.
- 우리 동네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근린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 나. 교통환경 (Transportation)

- 시내(외) 버스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다.
- 시내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시내버스 정류장에 의자와 차양막(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
-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출발과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천천히 운행한다.
- 택시 운전기사는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한다. (승하차시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 운행여부 알림 등)
- 자가용을 운전할 때 교통안내 표지판은 알아보기 쉽게 크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다.
- 도로의 폭이 넓어 자가용을 운전하기에 편하다.
- 택시비는 적절하여 부담스럽지 않다.

#### 다. 주거환경 (Housing)

- 내가 사는 집 내부에는 밭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이 없어서 안전하다.
- 내가 사는 집의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하는 편이다.
- 내가 사는 집의 부엌은 내 키에 비해 싱크대와 찬장 높이가 맞지 않아 밥 짓고 설거지 하는데 불편한 편이다.
- 내가 사는 집은 냉 · 난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 내가 사는 집은 경제적 부담 없이 냉 · 난방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이나 경찰들이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다.
-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약국, 병 · 의원, 보건소, 가게, 슈퍼 등)이 있다.

#### 라. 사회참여 (Social Participation)

-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이 있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을 1주일에 4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에 가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배울 거리와 놀 거리가 많아 즐겁고 유익하다.
-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나 노인회, 동창회(갑장회), 문중회(별초, 제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이 있다.

#### 마. 존중과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 공공기관(도청, 시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이나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노인들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하다.
-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
- 우리 동네에는 동네 사람들이나 아이들, 또는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체육대회, 식사대접 등)가 매년 1회 이상 개최된다.

#### 바. 시민참여 및 일자리 (Civic Participation & Employment)

- 나는 반상회와 같은 동네 주민들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
-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관을 위해 (무급)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
- 내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우리 동네(마을)에는 공공근로나 유급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

#### 사.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Communication & Information)

- 마을의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는 이장 및 노인회 혹은 마을회 조직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 손자녀 세대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특히 제주말)을 잘 알아들으며, 대화에 지장이 없다.

- 유선전화나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여 필요할 때 쉽게 전화할 수 있다.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 (주소명, 각종 노인 지원제도)가 변경될 때 신속하게 잘 전달해준다.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안내문이나 서류양식은 글자 크기가 충분히 커서 읽기 편하다.

**아.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

-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급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의료기관, 119 구급대 등)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
- 보건(지)소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다.
- 우리 동네(혹은 마을)에는 시장보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

# 제 5 장.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실태조사 결과 및 해석

## 1.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 제주지역이 얼마나 고령친화적인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야별 고령친화도를 파악하고자 함.
-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는 실제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주관적 인식에 바탕을 두어 조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제를 발굴함.
- 이러한 실증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야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 2) 표본설계(Sample Design)

- 조사대상 모집단은 현재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 단, 1:1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노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조사대상자의 표본선정은 제주지역의 읍·면·동별 전체 노인인구수와 조사대상 표본 수(500명)의 비율 구성을 고려하여 정하였음.<sup>3)</sup>

---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전체 노인인구 수는 79,455명이고, 제주시 52,482명, 서귀포시 26,973명으

- 조사면접 대상자의 표집방법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의 비율에 맞추어 각 지역의 조사 인원을 할당표집함. 지역 내 조사 대상 선장은 무작위로 표집함.
- 최종 면접 조사대상 노인 50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결측치를 제외한 497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됨.
-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면접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가 사용되었으며, 면접조사 경험이 많은 면접조사원이 자료를 수집하였음. 면접방법은 1:1 대면 면접조사를 하였음.

### 3) 자료 분석(Data Analysis)

- 수집된 자료는 자료검증을 거쳐 사회과학을 위한 패키지인 SPSS WIN 22(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전산처리함.
-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함.

### 4) 분석 변인(Analysis Variables)

- 분석문항에 제시된 변인들은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결혼상태, 월평균 소득, 주택소유형태 등), 고령친화도 평가 요인(옥외환경과 건물, 교통환경, 주거환경,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통합, 시민참여 및 일자리,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지지 및 보건), 행복감 변인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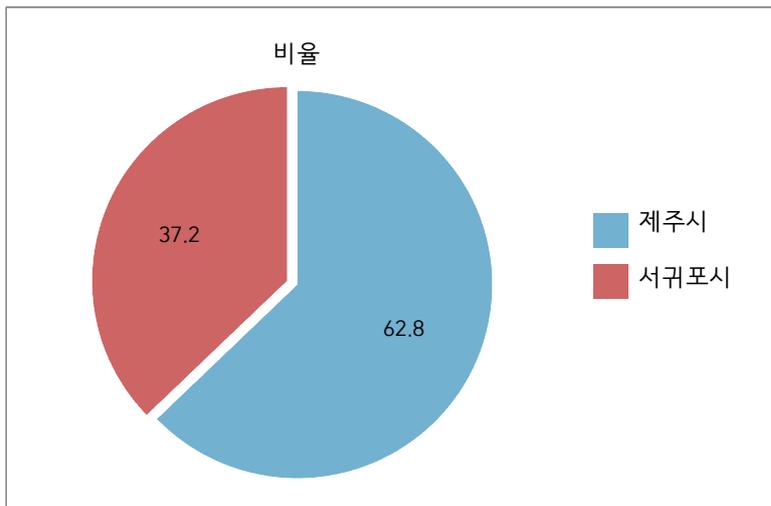
---

로 나타남(제주특별자치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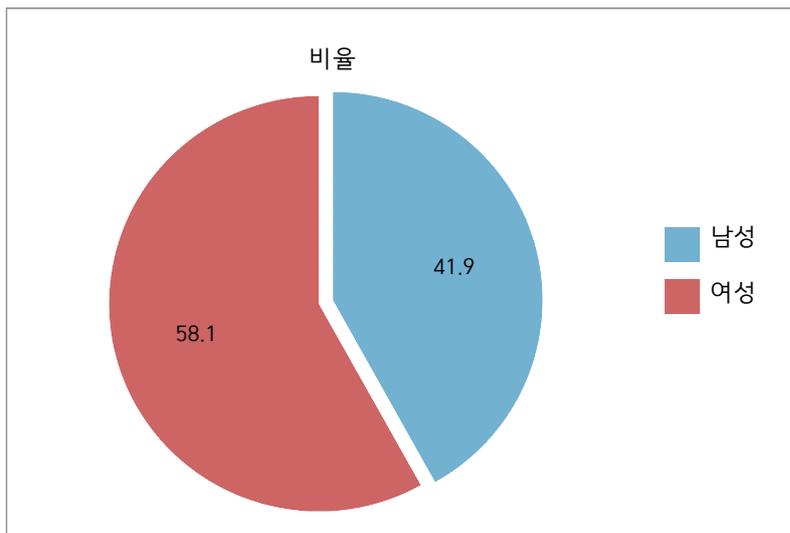
## 2. 사회인구학적 특성

- 거주 지역은 제주시 62.8%(312명), 서귀포시 37.2%(185명)로 나타났으며, 성별 특성 부문은 남성 41.9%(208명), 여성 58.1%(289명)로 나타남.

<그림 5-1> 응답자의 거주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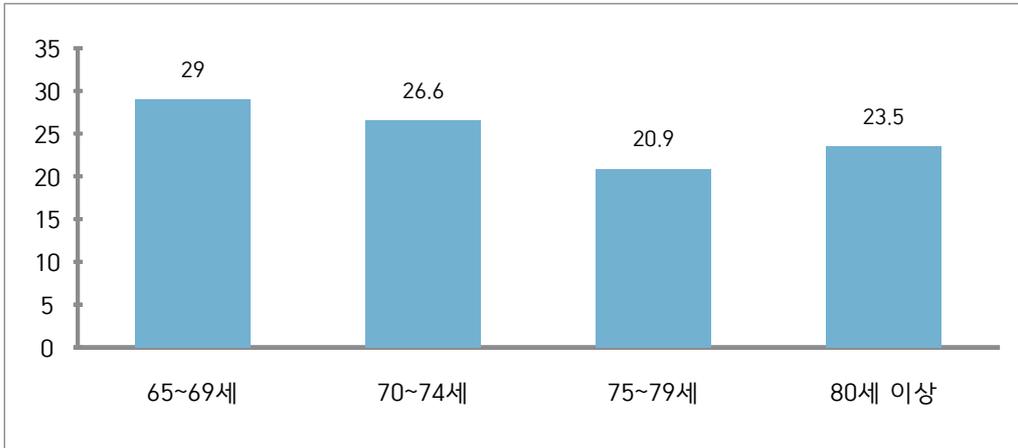


<그림 5-2> 응답자의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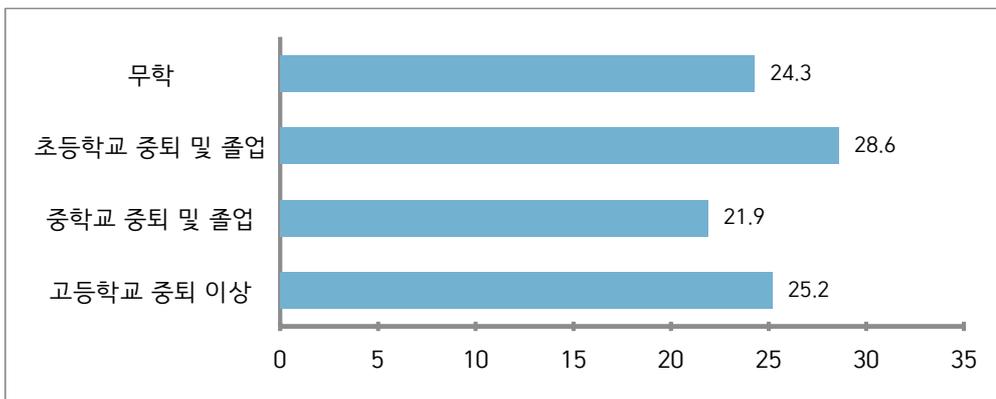
- 연령은 65세 이상 ~ 69세 이하 29%(144명), 70세 이상 ~ 74세 이하 26.4%(132명), 75세 이상 ~ 79세 이하 20.9%(104명), 80세 이상 23.5%(117명)으로 나타남.

<그림 5-3> 응답자의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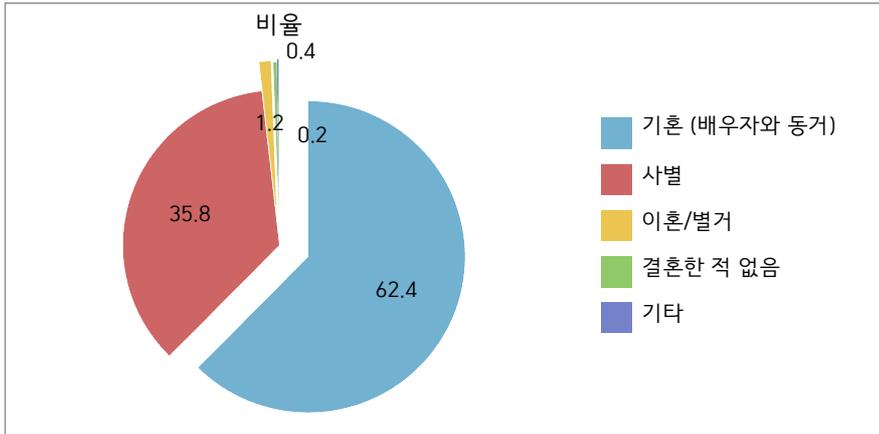
- 학력은 무학 24.3%(120명),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28.6%(141명), 중학교 중퇴 및 졸업 21.9%(108명), 고등학교 중퇴 이상 25.2%(124명)으로 나타났음.

<그림 5-4> 응답자의 학력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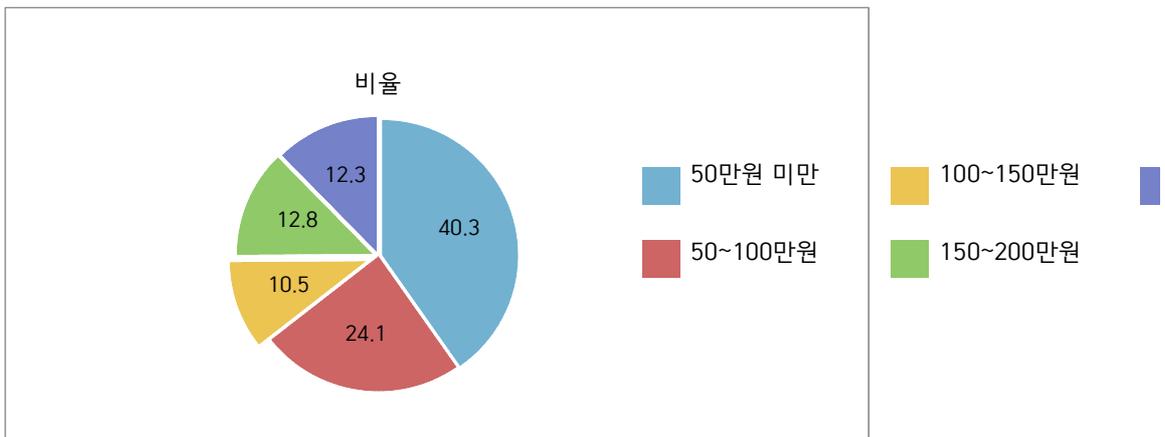
- 결혼 상태는 기혼(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62.4%(307명), 사별 35.8%(176명), 이혼/별거 1.2%(6명), 결혼한적 없음 0.4%(2명), 기타 0.2%(1명)로 나타남.

<그림 5-5> 응답자의 결혼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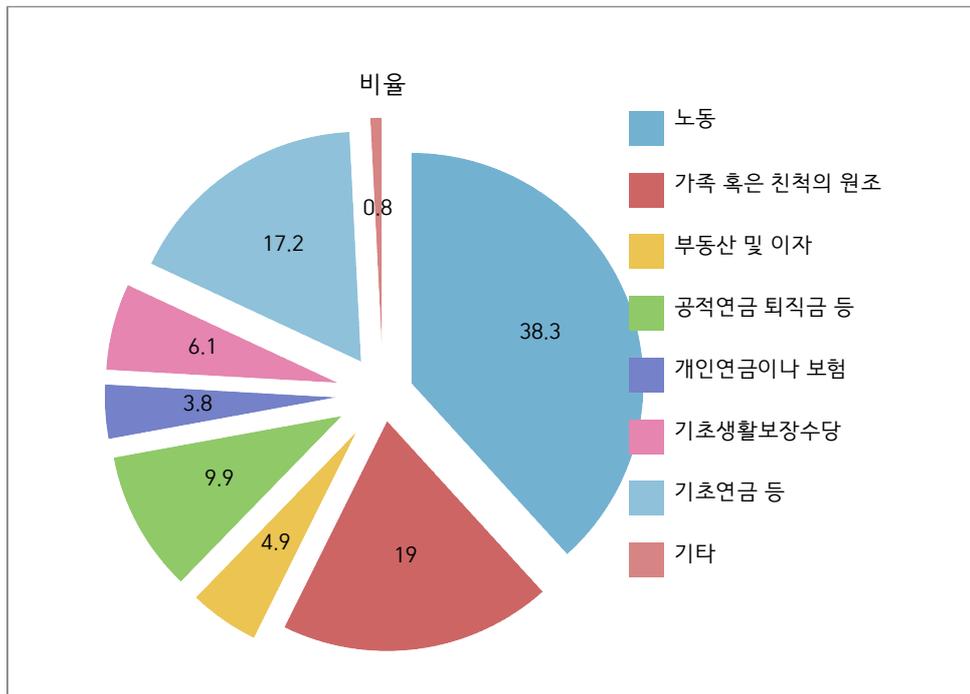
- 월 평균 소득은 50만 원 이하가 40.3%(199명)로 가장 많았고, 51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24.1%(119명)로 그 다음을 차지함.
- 151만 원 이상~200만 원 이하는 12.8%(63명), 200만원 이상은 12.3%(61명)이었고, 100만 원 150만 원 미만이 10.5%(52명)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함.

<그림 5-6>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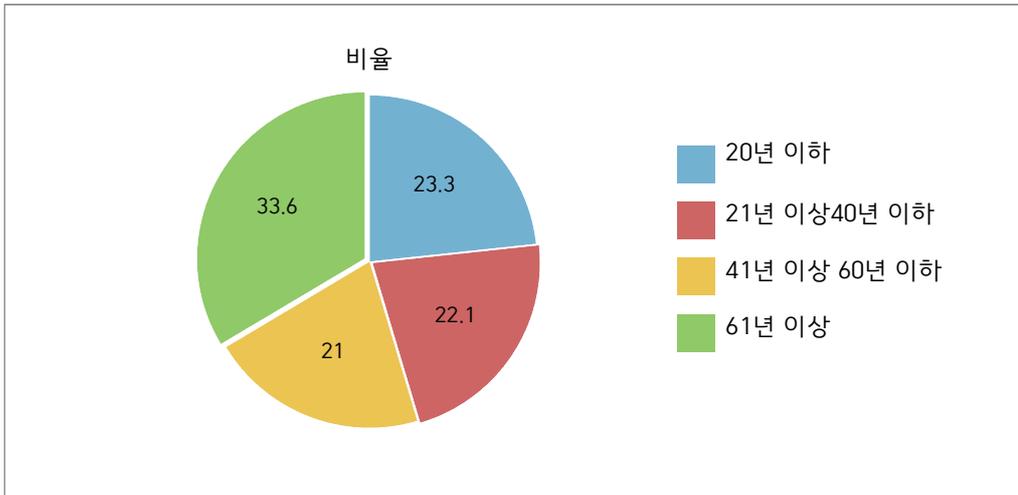
- 생활비 충당 방법은 본인(혹은 배우자)이 일해서 번 돈이 38.3%(189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녀나 친인척이 주는 돈(19%, 94명)이나 기초연금(17.2%, 85명)이 그 다음을 차지함.
- 노동이나 가족의 원조, 기초연금 이외에 공적연금·퇴직금(9.9%, 49명)이나 기초생활보장수당(6% ,30명), 집세·부동산 및 저축이자(4.9%, 24명), 개인연금이나 보험 3.8%(19명), 기타 0.8%(4명)등이 있었음.

<그림 5-7> 생활비 충당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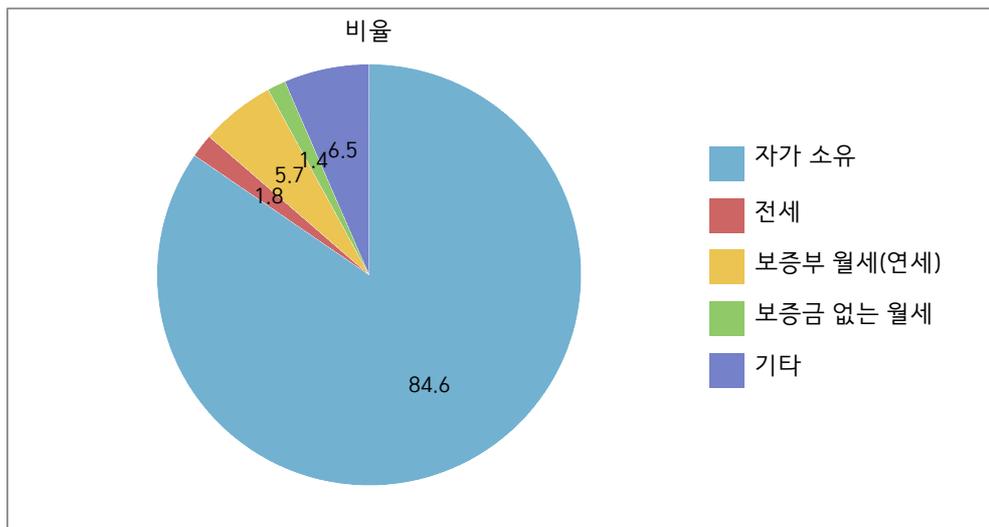
- 현재 거주지에 거주해온 기간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년 이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고 응답한 사례가 33.6%로 가장 높았음.
- 20년 이하인 경우는 23.3%, 21년~40년 22.1%, 41년~60년 21.0%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그림 5-8> 현재 거주지에 거주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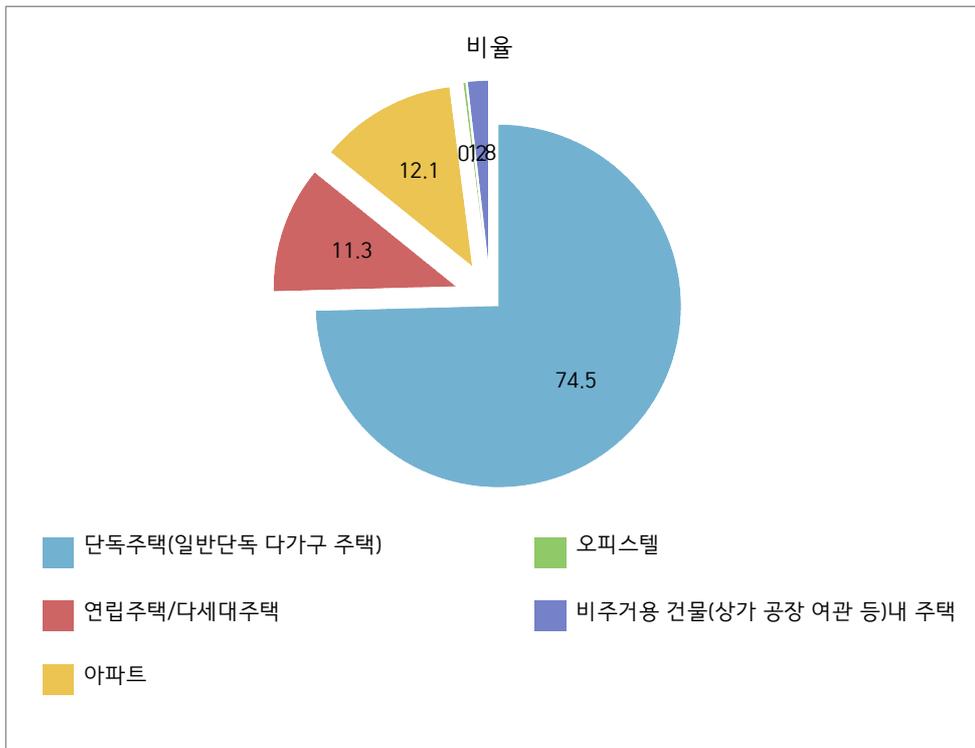
- 주택소유 형태는 자가 소유가 84.6%(419명)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전세 1.8%(9명), 보증부 월세(연세) 5.7%(28명), 보증금 없는 월세 1.4%(7명), 기타 6.5%(32명)로 나타남.

<그림 5-9> 주택소유형태



-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일반단독, 다가구 주택)이 74.5%(36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아파트는 12.1%(60명)로 단독주택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1.3%(56명), 오피스텔 0.2%(1명)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비주거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내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8%(9명)로 나타나 거주지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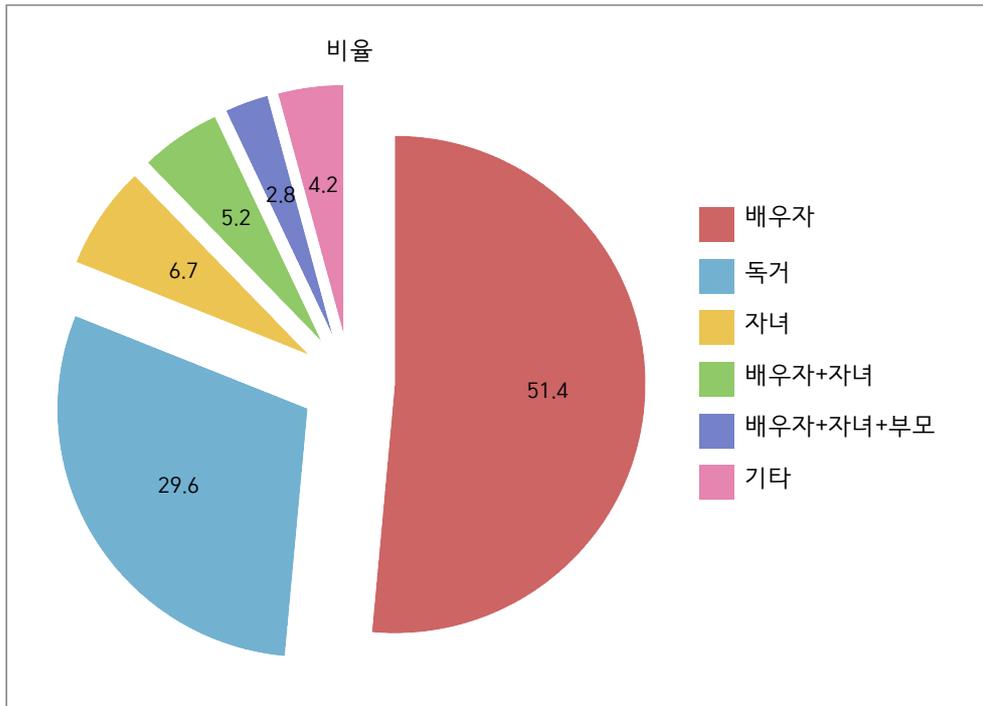
<그림 5-10> 주택유형



- 가족형태는 배우자와 단 둘이 거주하는 사례가 51.4%(255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혼자 사는 경우가 29.6%(147명)로 두 번째를 차지함.

- 그밖에 자녀(아들, 딸)와 사는 사례는 6.7%(33명),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사는 사례 5.2%(26명), 배우자와 자녀, 부모 모두가 함께 사는 사례 2.8%(14명)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1> 함께 사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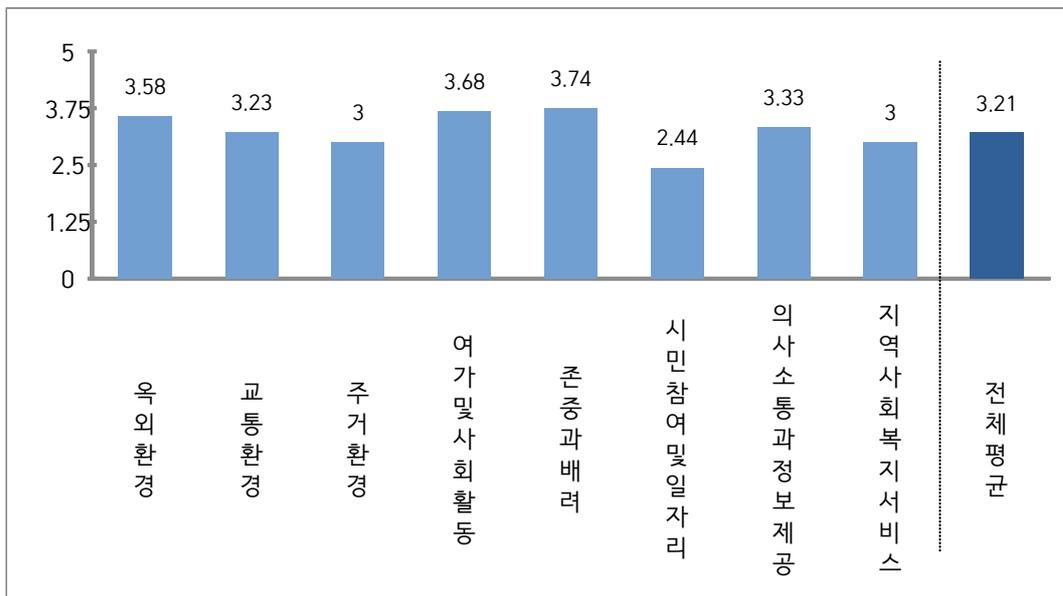
### 3. 고령친화도 종합점수

-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 종합 점수는 3.21점으로, 보통수준인 3점을 상회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도에 대한 영역별 점수를 종합해 보면,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이 3.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참여(3.68점)’, ‘옥외환경과 건물(3.58점)’, ‘의사소통과 정보제공(3.33점)’ 등

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참여 및 일자리’ 영역은 2.4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주거환경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역시 각각 3점으로 고령친화도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차지함.

<그림 5-12> 주지역 고령친화도 종합점수 (평균)



주 : 고령친화도 영역별 종합점수(평균) = 영역별 총점/영역별 문항 수  
고령친화도 전체 종합점수(평균) = 영역별 총점 합계/총 문항 수  
배정범위 1~5점

<표 5-1> 응답자 특성별, 영역별 고령친화도 평균점수

		사례수	옥외환경 과 건물	교통환경	주거환경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통합	시민참여 와 일자리	의사소 통 정보제
성 별	남	206	3.58 (0.7)	3.31 (0.5)	3.07 (0.4)	2.58 (0.8)	3.40 (0.6)	3.01 (0.7)	3.40 (0.6)
	여	275	3.57 (0.7)	3.11 (0.6)	2.95 (0.5)	2.33 (0.8)	3.28 (0.6)	2.98 (0.7)	3.28 (0.6)
연 령	65-69세	141	3.63 (0.7)	3.35 (0.6)	3.05 (0.5)	2.59 (0.8)	3.43 (0.7)	2.93 (0.6)	3.43 (0.6)
	70-74세	129	3.60 (0.8)	3.25 (0.7)	2.99 (0.5)	2.28 (0.7)	3.30 (0.6)	2.93 (0.7)	3.30 (0.6)
	75-79세	100	3.53 (0.6)	3.19 (0.6)	3.05 (0.4)	2.54 (0.7)	3.37 (0.5)	3.19 (0.7)	3.37 (0.6)
	80세 이상	109	3.55 (0.7)	2.90 (0.5)	2.92 (0.5)	2.31 (0.8)	3.21 (0.6)	3.01 (0.8)	3.21 (0.6)
월 소 득	50만 원 미만	186	3.59 (0.7)	2.86 (0.6)	2.90 (0.4)	2.25 (0.9)	3.25 (0.6)	2.91 (0.8)	3.25 (0.6)
	50~100만 원 미만	118	3.44 (0.7)	3.16 (0.5)	2.93 (0.5)	2.33 (0.7)	3.29 (0.6)	3.08 (0.7)	3.29 (0.6)
	100~150만 원 미만	52	3.53 (0.7)	3.32 (0.6)	3.17 (0.8)	2.72 (0.8)	3.47 (0.6)	3.10 (0.7)	3.47 (0.6)
	150~200만 원 미만	61	3.66 (0.8)	3.60 (0.5)	3.10 (0.5)	2.61 (0.6)	3.48 (0.6)	3.05 (0.7)	3.48 (0.6)
	200만 원 이상	61	3.77 (0.7)	3.49 (0.5)	3.26 (0.5)	2.77 (0.8)	3.42 (0.7)	2.97 (0.7)	3.42 (0.6)

학 력	무학	112	3.44 (0.7)	2.75 (0.6)	2.85 (0.5)	3.67 (0.8)	3.84 (0.7)	2.08 (0.8)	3.17 (0.7)
	초등 중퇴/졸업	138	3.66 (0.7)	3.00 (0.6)	2.99 (0.5)	3.66 (0.7)	3.74 (0.7)	2.38 (0.8)	3.32 (0.7)
	중등 중퇴/졸업	106	3.55 (0.7)	3.29 (0.5)	2.97 (0.4)	3.58 (0.6)	3.75 (0.7)	2.54 (0.7)	3.43 (0.7)
	고등 중퇴 이상	121	3.64 (0.8)	3.47 (0.5)	3.19 (0.5)	3.79 (0.7)	3.64 (0.7)	2.74 (0.7)	3.41 (0.7)
결 혼	배우자 있음	300	3.62 (0.7)	3.34 (0.5)	3.07 (0.5)	3.76 (0.7)	3.78 (0.7)	2.57 (0.8)	3.43 (0.7)
	배우자 없음	175	3.50 (0.7)	2.92 (0.7)	2.89 (0.5)	3.56 (0.8)	3.69 (0.7)	2.20 (0.7)	3.15 (0.7)
가 족	독거	139	3.54 (0.7)	2.86 (0.5)	2.89 (0.5)	3.57 (0.7)	3.68 (0.7)	2.21 (0.7)	3.18 (0.7)
	동거가족 있음	341	3.60 (0.7)	3.33 (0.6)	3.05 (0.5)	3.73 (0.7)	3.77 (0.7)	2.54 (0.8)	3.40 (0.7)
행 정 시	서귀포시	183	3.57 (0.7)	3.36 (0.4)	2.95 (0.5)	3.74 (0.7)	3.89 (0.7)	2.28 (0.7)	3.42 (0.7)
	제주시	298	3.59 (0.7)	3.19 (0.6)	3.04 (0.5)	3.65 (0.7)	3.66 (0.7)	2.54 (0.8)	3.28 (0.7)
지 역	도시	283	3.68 (0.7)	3.22 (0.7)	3.16 (0.4)	3.73 (0.7)	3.53 (0.7)	2.60 (0.8)	3.29 (0.7)
	농촌	198	3.43 (0.7)	3.22 (0.7)	3.16 (0.4)	3.61 (0.7)	4.04 (0.6)	2.22 (0.7)	3.39 (0.7)

## 4. 지표별 고령친화도 실태 조사결과

### 1) 옥외환경과 건물(Outdoor Spaces and Buildings)

- 옥외환경과 건물에 대한 문항 중 ‘우리 동네는 찾길과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497명 중 60.8%가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응답자의 22.3%(111명)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동네는 길이 평평해서 길을 걷거나 보행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66.7%(332명)가 ‘길을 걷거나 보행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2%(60명)는 ‘길을 걷거나 보행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동네는 횡단보도가 잘 갖추어져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63.9%(318명)가 ‘우리 동네는 횡단보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6.5%(82명)은 ‘우리 동네는 횡단보도가 잘 갖추어져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동네 횡단보도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서 길을 건널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73명 중 46.9%(222명)가 ‘우리 동네 횡단보도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서 길을 건널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6.1%(119명)는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서둘러야 된다’고 응답하였음.

<표 5-2> 옥외환경과 건물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우리 동네는 차길과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다.	17 (3.4)	94 (18.9)	84 (16.9)	215 (43.3)	87 (17.5)	497 (100)	3.53
우리 동네는 길이 평평해서 길을 걷거나 보행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다.	8 (1.6)	52 (10.4)	106 (21.3)	216 (43.6)	115 (23.1)	497 (100)	3.76
우리 동네는 횡단보도가 잘 갖추어져있다.	18 (3.6)	64 (12.9)	97 (19.5)	205 (41.2)	113 (22.7)	497 (100)	3.67
우리 동네 횡단보도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서 길을 건널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37 (7.8)	82 (17.3)	132 (27.9)	141 (29.8)	81 (17.1)	473 (100)	3.31
공공건물(마을회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출입구에는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이 있어 드나들기 편하다.	21 (4.2)	53 (10.7)	82 (16.5)	226 (45.5)	115 (23.1)	497 (100)	3.73
우리 동네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근린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35 (7.0)	76 (15.3)	103 (20.7)	168 (33.9)	115 (23.1)	497 (100)	3.51

- ‘공공건물(마을회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출입구에는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이 있어 드나들기 편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68.6%(341명)가 ‘공공건물의 출입구 등 편의시설에 드나들기 편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4.9%(74명)는 ‘공공건물의 출입구 등 편의시설에 드나들기에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동네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근린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8명 중 57%(284명)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2.3%(111명)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2) 교통(Transportation)

- 교통환경 평가 중 ‘시내(외) 버스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69명 중 67.8%(318명)가 ‘시내(외) 버스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9.7%(92명)는 ‘시내(외) 버스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가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시내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63명 중 56.4%(261명)가 ‘시내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9.2%(135명)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없어 이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시내버스 정류장에 의자와 차양막(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60명 중 76.5%(352명)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의자와 차양막(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기다

릴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8.7%(40명)는 ' 시내버스 정류장에 의자와 차양막(지붕)이 설치되지 않아 편안하게 기다리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출발과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천천히 운행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67명 중 47.7%(223명)가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출발과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천천히 운행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0.5%(96명)는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출발과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택시 운전기사는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82명 중 36.6%(140명)가 '택시 운전기사는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3.3%(89명)는 '택시 운전기사는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자가용을 운전할 때 교통안내 표지판은 알아보기 쉽게 크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54명 중 45.3%(115명)가 '표지판은 알아보기 쉽게 크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7%(43명)는 '표지판은 알아보기 쉽게 크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도로의 폭이 넓어 자가용을 운전하기에 편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49명 중 44.9%(112명)가 '도로의 폭이 넓어 자가용을 운전하기에 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7.3%(43명)는 '도로의 폭이 넓지 않아 자가용을 운전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택시비는 적절하여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82명 중 61%(233명)가 '택시비가 비싸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17.1%(65명)는 '택시비는 적절하여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표 5-3 > 교통 환경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시내(외) 버스로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다.	20 (4.3)	72 (15.4)	59 (12.6)	228 (48.6)	90 (19.2)	469 (100)	3.63
시내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어 쉽게 이용한다.	43 (9.3)	92 (19.9)	67 (14.5)	188 (40.6)	73 (15.8)	463 (100)	3.34
시내버스 정류장에 의자와 양막(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	15 (3.3)	25 (5.4)	68 (14.8)	244 (53.0)	108 (23.5)	460 (100)	3.88
버스 운전기사는 출발과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천천히 운행한다.	24 (5.1)	72 (15.4)	148 (31.7)	171 (36.6)	52 (11.1)	467 (100)	3.33
택시 운전기사는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한다.	22 (5.8)	67 (17.5)	153 (40.1)	122 (31.9)	18 (4.7)	382 (100)	3.12
자가용을 운전할 때 교통안내 표지판은 알아보기 쉽게 크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다.	6 (2.4)	37 (14.6)	96 (37.8)	87 (34.3)	28 (11.0)	254 (100)	3.37
도로의 폭이 넓어 자가용을 운전하기에 편하다.	4 (1.6)	39 (15.7)	94 (37.8)	82 (32.9)	30 (12.0)	249 (100)	3.38
택시비는 적절하여 부담스럽지 않다.	85 (22.3)	148 (38.7)	84 (22.0)	43 (11.3)	22 (5.8)	382 (100)	2.40

### 3) 주거환경(Housing)

-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중 ‘내가 사는 집 내부에는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이 없어서 안전하다’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6명 중 57.5%(285명)가 ‘내가 사는 집 내부에는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이 없어서 안전하다’ 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5.6%(127명)는 ‘집 내부에는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이 있어 위험하다’ 고 응답함.
- ‘내가 사는 집의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하는 편이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46.3%(230명)가 ‘내가 사는 집의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0.9%(154명)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바닥이 미끄럽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내가 사는 집의 부엌은 내 키에 비해 싱크대와 찬장 높이가 맞지 않아 밥 짓고 설거지 하는데 불편한 편이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4명 중 51.6%(255명)는 ‘내가 사는 집의 부엌은 내 키에 비해 싱크대와 찬장 높이가 맞지 않아 밥 짓고 설거지 하는데 불편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3.5%(116명)는 ‘집의 부엌은 내 키에 비해 싱크대와 찬장 높이가 맞아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되었음.
- ‘내가 사는 집은 냉·난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75명 중 56.4%(268명)가 ‘내가 사는 집은 냉·난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1.1%(53명)는 ‘내가 사는 집은 냉·난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내가 사는 집은 경제적 부담 없이 냉·난방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5명 중 44.0%(218명)가 ‘내가 사는 집은 경제적 부담이 있어 냉·난방 설비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0%(149명)는 ‘내가 사는 집은 경제적 부담 없이 냉·난

방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이나 경찰들이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3명 중 36.1%(178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8.2%(139명)는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약국, 병·의원, 보건소, 가게, 슈퍼 등)이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6명 중 46.2%(229명)가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약국, 병·의원, 보건소, 가게, 슈퍼 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2.2%(160명)는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표 5-4 > 주거환경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집 내부에는 문턱이 없어서 안전하다.	23 (4.6)	104 (21.0)	84 (16.9)	184 (37.1)	101 (20.4)	496 (100)	3.47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하는 편이다.	76 (15.3)	154 (31.0)	113 (22.7)	122 (24.5)	32 (6.4)	497 (100)	2.76
부엌의 싱크대와 찬장은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하다.	94 (19.0)	161 (32.6)	123 (24.9)	86 (17.4)	30 (6.1)	494 (100)	2.59
냉·난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13 (2.7)	40 (8.4)	154 (32.4)	194 (40.8)	74 (15.6)	475 (100)	3.58
경제적 부담 없이 냉·난방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76 (15.3)	142 (28.7)	128 (25.8)	127 (25.6)	22 (4.4)	495 (100)	2.75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경찰)이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다.	78 (15.8)	100 (20.3)	176 (35.7)	116 (23.5)	23 (4.7)	493 (100)	2.81
집 가까이에 편의시설이 있다.	85 (17.1)	75 (15.1)	107 (21.6)	166 (33.5)	63 (12.7)	496 (100)	3.09

- ‘냉방설비 설치 유형’을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 711명 중 62.4%(444명)가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에어컨’ 32.5%(231명), ‘쿨매트’ 3.7%(26명), ‘없음’ 1.3%(9명), ‘기타’ 0.1%(1명) 순으로 응답하였음.
- ‘주로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 전체 응답자 528명 중 87.9%(464명)가 ‘선풍기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에어컨’ 8.3%(44명), ‘쿨매트’ 3.7%(26명), ‘없음’ 1.3%(9명), ‘기타’ 0.1%(1명)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5-5> 냉방 설치 유형

(단위 : 명, %)

구분		에어컨	선풍기	쿨매트	기타	없음	합계
냉방	냉방설비 설치 유형	231 (32.5)	444 (62.4)	26 (3.7)	1 (0.1)	9 (1.3)	711 (100)
	주로 이용하는 냉방설비	44 (8.3)	464 (87.9)	10 (1.9)	1 (0.2)	9 (1.7)	528 (100)

- ‘난방설비 설치 유형’을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 전체 응답자 882명(복수응답 포함) 중 48.6%(429명)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전기요 42.4%(374명), 전기히터 3.2%(28명), 가스히터 2.8%(25명), 온풍기 2.8%(25명), 기타 0.1%(1명)순으로 응답하였음.
- ‘주로 이용하는 난방설비’를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 전체 응답자 555명(복수응답 포함) 중 69.5%(386명)가 ‘전기요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보일러’ 25.2%(140명), ‘전기히터’ 2.3%(13명), ‘가스히터’ 2%(11명), ‘온풍기’ 0.7%(4명), ‘기타’ 0.2%(1명)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5-6> 난방 설치 유형

(단위 : 명, %)

구분		보일러	전기요	전기 히터	가스 히터	온풍기	기타	합계
난방	난방설비 설치 유형	429 (48.6)	374 (42.4)	28 (3.2)	25 (2.8)	25 (2.8)	1 (0.1)	882 (100)
	주로 이용하는 난방설비	140 (25.2)	386 (69.5)	13 (2.3)	11 (2.0)	4 (0.7)	1 (0.2)	555 (100)

#### 4)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 사회참여에 대한 평가 중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이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497명 중 79.5%(425명)가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이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5.4%(27명)는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이 없다’ 고 응답하였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을 1주일에 4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8명 중 55.9%(277명)가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을 1주일에 4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6.1%(129명)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을 1주일에 4회 이상 이용하기 어렵다’ 고 응답하였다.

<표 5-7> 사회참여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편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이 있다.	6 (1.2)	21 (4.2)	75 (15.1)	268 (53.9)	127 (25.6)	497 (100)	3.99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을 1주일에 4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51 (10.3)	78 (15.8)	89 (18.0)	117 (23.6)	160 (32.3)	495 (100)	3.53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에 가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배울거리와 놀거리가 많아 즐겁고 유익하다.	20 (4.2)	57 (11.9)	121 (25.2)	155 (32.3)	127 (26.5)	480 (100)	3.66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나 노인회, 동창회(갑장회), 문중회(별초, 제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0 (8.1)	80 (16.2)	101 (20.4)	178 (36.0)	96 (19.4)	495 (100)	3.43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이 있다.	9 (1.8)	33 (6.6)	132 (26.6)	242 (48.7)	81 (16.3)	497 (100)	3.71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에 가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배울 거리와 놀 거리가 많아 즐겁고 유익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80명 중 58.8%(282명)가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에 가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배울 거리와 놀 거리가 많아 즐겁고 유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6.1%(77명)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에 가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배울 거리와 놀 거리가 없어 유익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나 노인회, 동창회(갑장회), 문중회(별초, 제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5명 중 55.4%(274명)가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나 노인회, 동창회(갑장회), 문중회(별초, 제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4.3%(120명)는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나 노인회, 동창회(갑장회), 문중회(별초, 제사) 등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이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65.0%(323명)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8.4%(42명)는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5) 존중과 사회통합(Respect and Social Inclusion)

- 존중과 사회통합 평가 중 ‘공공기관(도청, 시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이나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노인들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6명 중 72.6%(360명)가 ‘공공기관(도청, 시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이나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노인들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4.6%(23명)는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노인들에게 전반적으로 친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67.2%(334명)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7%(35명)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예의바르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동네에는 동네 사람들이나 아이들, 또는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체육대회, 식사대접 등)가 매년 1회 이상 개최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87명 중 50.9%(248명)가 ‘우리 동네에는 동네 사람들이나 아이들, 또는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매년 1회 이상 개최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4.4%(114명)는 ‘동네 사람들이나 아이들, 또는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표 5-8> 존중과 사회통합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노인들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하다.	4 (0.8)	19 (3.8)	113 (22.8)	219 (44.2)	141 (28.4)	496 (100)	3.96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다.	5 (1.0)	30 (6.0)	128 (25.8)	185 (37.2)	149 (30.0)	497 (100)	3.89
우리 동네에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매년 1회 이상 개최된다.	37 (7.6)	77 (15.8)	125 (25.7)	168 (34.5)	80 (16.4)	487 (100)	3.37

## 6) 시민참여 및 일자리(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 시민참여 및 일자리 평가 중 ‘나는 반상회와 같은 동네 주민들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66명 중 54.5%(254명)가 ‘나는 반상회와 같은 동네 주민들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3.4%(109명)는 ‘나는 반상회와 같은 동네 주민들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응답하였음.
-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관을 위해 (무급)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89명 중 49.1%(239명)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관을 위해 (무급)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7.4%(134명)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관을 위해 (무급)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내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89명 중 66.5%(325명)가 ‘내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6.6%(81명)는 ‘내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동네(마을)에는 공공근로나 유급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81명 중 54.3%(260명)가 ‘우리 동네(마을)에는 공공근로나 유급 자원봉사 기회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4.8%(71명)는 ‘우리 동네(마을)에는 공공근로나 유급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고 응답하였음.

<표 5-9> 시민참여 및 일자리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나는 반상회와 같은 동네 주민들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	123 (26.4)	131 (28.1)	103 (22.1)	79 (17.0)	30 (6.4)	466 (100)	2.50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관을 위해 (무급)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	127 (26.0)	113 (23.1)	115 (23.5)	87 (17.8)	47 (9.6)	489 (100)	2.62
내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151 (30.9)	174 (35.6)	83 (17.0)	65 (13.3)	16 (3.3)	489 (100)	2.22
우리 동네(마을)에는 공공근로나 유급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	114 (23.8)	146 (30.5)	147 (30.8)	57 (11.9)	14 (2.9)	478 (100)	2.39

### 7) 의사소통과 정보제공(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평가 중 ‘마을의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는 이장 및 노인회 혹은 마을회 조직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6명 중 54.6%(271명)가 ‘마을의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는 이장 및 노인회 혹은 마을회 조직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6.5%(82명)는 ‘마을의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는 이장 및 노인회 혹은 마을회 조직을 통해 얻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5명 중 55.1%(273명)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소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9.2%(95명)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손자녀 세대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특히 제주말)을 잘 알아들으며, 대화에 지장이 없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1%(297명)가 '손자녀 세대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특히 제주말)을 잘 알아들으며, 대화에 지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8.8%(94명)는 '손자녀 세대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며 대화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유선전화나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여 필요할 때 쉽게 전화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2명 중 61.8%(302명)가 '유선전화나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여 필요할 때 쉽게 전화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6.5% (81명)는 '유선전화나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화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주소명, 각종 노인 지원제도)가 변경될 때 신속하게 잘 전달해준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34.7%(172명)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주소명, 각종 노인 지원제도)가 변경될 때 신속하게 잘 전달해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8.3%(141명)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가 변경될 때 신속하게 잘 전달해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안내문이나 서류양식은 글자 크기가 충분히 커서 읽기 편하다'라는 질

문에 전체 응답자 489명 중 48.6%(238명)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안내문이나 서류양식은 글자 크기가 충분치 않아 읽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1.0%(103명)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안내문이나 서류양식은 글자 크기가 충분히 커서 읽기 편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5-10>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다	보통	그런 편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 균
마을의 중요한 정보는 마을회 조직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14 (2.8)	68 (13.7)	143 (28.8)	195 (39.3)	76 (15.3)	496 (100)	3.51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식을 쉽게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17 (3.4)	78 (15.8)	127 (25.7)	222 (44.8)	51 (10.3)	495 (100)	3.43
손자녀 세대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특히 제주말)을 잘 알아듣는다.	14 (2.8)	80 (16.2)	103 (20.9)	173 (35.0)	124 (25.1)	494 (100)	3.64
전화(유무선) 사용이 익숙하여 쉽게 전화할 수 있다.	18 (3.7)	63 (12.8)	109 (22.2)	152 (30.6)	150 (30.2)	492 (100)	3.72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가 변경될 때 신속하게 전달해준다.	28 (5.6)	113 (22.7)	184 (37.0)	127 (25.6)	45 (9.1)	497 (100)	3.09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안내문이나 서류양식은 글자 크기가 충분히 크다.	95 (19.4)	143 (29.2)	148 (30.3)	77 (15.7)	26 (5.3)	489 (100)	2.58

## 8)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

-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평가 중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급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의료기관, 119 구급대 등)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6명 중 46.2%(229명)가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급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의료기관, 119 구급대 등)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4.9%(173명)는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급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집 가까이에 없다’고 응답하였음.
- ‘보건(지)소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6명 중 77.0%(382명)가 ‘보건(지)소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6%(30명)는 ‘보건(지)소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36명 중 48.0%(209명)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3.4%(102명)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동네(혹은 마을)에는 시장보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37명 중 54.9%(241명)가 ‘우리 동네(혹은 마을)에는 시장보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7.8%(78명)는 ‘우리 동네(혹은 마을)에는 시장보거나 집

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5-11>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급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	65 (13.1)	108 (21.8)	94 (19.0)	175 (35.3)	54 (10.9)	496 (100)	3.09
보건(지)소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3 (0.6)	27 (5.4)	84 (16.9)	253 (51.0)	129 (26.0)	496 (100)	3.97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렴하게(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다.	94 (21.6)	115 (26.4)	125 (28.7)	88 (20.2)	14 (3.2)	436 (100)	2.56
우리 동네(혹은 마을)에는 시장보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	119 (27.2)	122 (27.9)	118 (27.0)	66 (15.1)	12 (2.7)	437 (100)	2.37

## 5. 응답자 특성별, 영역별 고령친화도4)

### 1) 옥외환경과 건물(Outdoor Spaces and Buildings)

문항 1. 우리 동네는 찾길과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다.

<표 5-12> 찾길과 인도가 구분되어있다

단위 : 빈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거주 기간	20년 이하	4(3.6)	23(20.5)	22(19.6)	30(26.8)	33(29.5)	31.609** (12)
	20년 ~ 40년	6(5.7)	20(19.0)	21(20.0)	45(42.9)	13(12.4)	
	40년 ~ 60년	2(2.0)	19(18.6)	17(16.7)	44(43.1)	20(19.6)	
	60년 이상	4(2.6)	29(18.2)	20(14.3)	91(53.2)	21(11.7)	
거주 지역	서귀포시	3(1.6)	38(20.3)	18(9.6)	94(50.3)	34(18.2)	16.077** (4)
	제주시	14(4.5)	56(18.1)	66(21.3)	121(39.0)	53(17.1)	

\*\*p < 0.01

- 거주기간에 따른 찾길과 인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chi^2=31.069$ ,  $p<.01$ ).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찾길과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6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가 응답의 53.2%를 차지한 반면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26.8%에 그쳐 큰 차이를 보임.

4) 본 연구에서는 조사 응답자의 특성(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거주 지역, 소득 등)에 따른 영역별 고령친화도와의 교차분석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 제시하였음.

- 제주시와 서귀포시 거주자의 응답 내용도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chi^2=16.077$ ,  $p<.01$ ).
-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보통’ 을 비롯하여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총 77.4%로 긍정적인 응답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있는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 ‘보통’ 은 9.6%로 낮고, ‘그렇지 않다’ 와 ‘그런 편이다’ 가 높게 나타나 응답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임.

**문항 2. 우리 동네 횡단보도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서 길을 건널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 소득수준에 따라 신호등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chi^2=35.982$ ,  $p<.01$ ).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와 같이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짐.
- 거주 지역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등 길이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chi^2=10.865$ ,  $p<.05$ ), 제주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33.7%, ‘매우 그렇다’ 28.8%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
- 응답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신호등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chi^2=27.120$ ,  $p<.01$ ).
- 무학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4.8%, ‘그렇지 않다’ 23.5%로 부정적인 응답률이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는 각각 21.7%, 11.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5-13> 신호등이 켜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다

단위 : 빈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소득	50만 원 미만	22(11.6)	34(17.9)	46(24.2)	53(27.9)	35(18.4)	35.392** (16)
	50~100만 원	6(5.5)	28(25.7)	32(29.4)	34(31.2)	9(8.3)	
	100~150만 원	2(3.8)	6(11.5)	19(36.5)	19(36.5)	6(11.5)	
	150~200만 원	1(1.7)	9(15.3)	20(33.9)	17(28.8)	12(20.3)	
	200만 원 이상	5(8.5)	5(8.5)	14(23.7)	16(27.1)	19(32.2)	
거주 지역	서귀포시	12(6.6)	25(13.7)	55(30.1)	67(36.6)	24(13.1)	10.865* (4)
	제주시	25(8.6)	57(19.7)	77(26.6)	74(25.5)	57(19.7)	
학력	무학	17(14.8)	27(23.5)	33(28.7)	25(21.7)	13(11.3)	27.120** (12)
	초등 중퇴/졸업	8(6.0)	24(17.9)	39(29.1)	38(28.4)	25(18.6)	
	중등 중퇴/졸업	7(6.8)	15(14.6)	30(29.1)	38(36.9)	13(12.6)	
	고등 중퇴 이상	5(4.3)	15(12.8)	29(24.8)	39(33.3)	29(24.8)	

\*p < 0.05, \*\*p < 0.01

**문항 3. 우리 동네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근린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 응답자가 현재 거주 중인 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 산책이나 운동시설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chi^2=45.715$ ,  $p<.001$ ).
- 거주기간이 60년 이상인 경우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1%를 차지해 매우 높았음.
- 거주 지역에 따라 산책이나 운동시설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chi^2=19.091$ ,  $p<.01$ ). 제주시 지역의 경우 ‘그런 편이다’ 33.7%,

‘매 우 그렇다’ 28.8%로, 서귀포시 지역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4> 산책이나 운동을 위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단위 : 빈도(%)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거주 기간	20년 미만	9(8.0)	12(10.6)	9(8.0)	39(34.5)	44(38.9)	45.715** *(12)
	20년 ~ 40년	5(4.7)	15(14.2)	23(21.7)	33(31.1)	30(28.3)	
	40년 ~ 60년	7(6.9)	20(19.6)	27(26.5)	27(26.5)	21(20.6)	
	60년 이상	13(7.9)	26(15.9)	41(25.0)	67(40.9)	17(10.4)	
거주 지역	서귀포시	15(8.2)	38(20.7)	43(23.4)	43(34.2)	25(13.6)	19.652** (4)
	제주시	19(6.1)	38(12.2)	59(19.0)	105(33.8)	90(28.9)	

\*\*p < 0.01, \*\*\*p < 0.001

## 2) 교통환경(Transportation)

문항 1. 시내(외) 버스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다.

<표 5-15> 시내(외) 버스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거주 지역	서귀포시	4(2.3)	29(11.5)	17(9.8)	96(55.2)	37(21.2)	9.992* (4)
	제주시	16(5.4)	52(17.6)	42(14.2)	132(44.7)	53(18.0)	

\*p < 0.05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응답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를 합친 비율이 76.4%로, 제주시(62.7%)에 비해 높게 나타남( $\chi^2=9.992$ ,  $p<.05$ ).

문항 2. 시내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표 5-16> 시내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성별	남	17(8.8)	30(15.5)	31(16.1)	92(47.7)	23(11.9)	10.956* (4)
	여	26(9.6)	62(23.0)	36(13.3)	96(35.6)	50(18.5)	
학력	무학	15(13.8)	26(23.9)	14(12.8)	37(33.9)	17(15.6)	29.099** (12)
	초등 중퇴/졸업	16(11.9)	35(26.1)	20(14.9)	42(31.3)	21(15.7)	
	중등 중퇴/졸업	6(5.9)	18(17.6)	19(18.6)	45(44.1)	14(13.7)	
	고등 중퇴 이상	5(4.4)	12(10.5)	14(12.3)	63(55.3)	20(17.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9(6.6)	49(17.1)	45(15.7)	125(43.7)	48(16.8)	11.550* (4)
	배우자 없음	24(14.0)	41(23.8)	22(12.8)	61(35.5)	24(14.0)	
월소득	50만 원 미만	24(13.2)	49(26.9)	22(12.1)	58(31.9)	29(15.9)	29.862* (16)
	50 ~ 99만 원	10(8.9)	23(20.5)	19(17.0)	45(40.2)	15(13.4)	
	100 ~149만 원	4(8.2)	6(12.2)	10(20.4)	23(46.9)	6(12.2)	
	150 ~ 199만 원	2(3.6)	9(16.4)	8(14.5)	26(47.3)	10(18.2)	
	200만 원 이상	3(4.9)	4(6.6)	8(13.1)	33(54.1)	13(21.3)	
거주지	서귀포시	9(5.1)	29(16.6)	23(13.1)	78(44.6)	36(20.6)	12.296* (4)
	제주시	34(11.8)	63(21.9)	44(15.3)	110(38.2)	37(12.8)	

\*p < 0.05, \*\*p < 0.01

- 성별, 학력, 배우자 유무, 월소득, 거주지에 따라 시내버스 정류장의 인접성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표 5-16).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69.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여성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54.1%에 그쳐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학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3.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9%로 나타나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함.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긍정적인 답변은 60.5%인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56.3%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월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40.2%가 부정적으로 답변함.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그런 편이다’ 44.6%, ‘매우 그렇다’ 20.6%로 제주지역 거주자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음.

**문항 3. 시내버스 정류장에 의자와 차양막(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

- 의자와 차양막 등 버스정류장 편의시설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살펴보면, 연령과 거주 지역에 따라 각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평가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음(연령 :  $\chi^2=25.250$ ,  $p<.05$ / 거주지역 :  $\chi^2=9.917$ ,  $p<.05$ ).

- 8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9%, 15.4%로 다른 연령대의 응답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지역의 응답자는 ‘그런 편이다’ 55.7%, ‘매우 그렇다’ 28.2%의 응답률을 보였고, 제주시는 ‘그런 편이다’ 51.4%, ‘매우 그렇다’ 20.7%로 서귀포시 지역이 제주시 지역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함.

<표 5-17> 시내버스 정류장에 의자와 차양막이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연령	65세 ~ 69세	2(1.5)	3(2.3)	16(12.3)	82(63.1)	27(20.8)	25.250* (12)
	70세 ~ 74세	2(1.6)	8(6.5)	14(11.3)	63(50.8)	37(29.8)	
	75세 ~ 79세	5(5.1)	4(4.0)	16(16.2)	46(46.5)	28(2)	
	80세 이상	6(8)	10(9.6)	21(20.2)	51(49.0)	16(15.4)	
거주 지역	서귀포시	5(2.9)	6(3.4)	17(9.8)	97(55.7)	49(28.2)	9.917* (4)
	제주시	10(3.5)	19(6.6)	51(17.8)	147(51.4)	59(20.6)	

\*p < 0.05

**문항 4.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출발과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천천히 운행한다.**

- 버스 운전기사의 친절도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chi^2=20.743$ ,  $p<.001$ ).
-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39.1%, ‘매우 그렇다’ 16.1%로 제주지역의 35.2%, 8.1%보다 높게 나타남.

<표 5-18> 버스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배려한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거주 지역	서귀포시	7(4.0)	12(6.9)	59(33.9)	68(39.1)	28(16.1)	20.743*** (4)
	제주시	17(5.8)	60(20.5)	89(30.4)	103(35.2)	24(8.2)	

\*\*\*p < 0.001

**문항 5. 도로의 폭이 넓어 자가용을 운전하기에 편하다.**

- “도로의 폭이 넓어 자가용을 운전하기에 편하다” 라는 질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249명으로, 이들을 현재 자가용을 운전하는 응답자의 수로 가정하면 전체 응답자(500명)의 49.8%가 현재 자가용을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월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9> 도로의 폭이 넓어 자가용을 운전하기에 편하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월소득	50만 원 미만	2(3.1)	9(13.8)	29(44.6)	22(33.8)	3(4.6)	29.336* (16)
	50 ~ 99만 원	1(1.6)	10(16.4)	34(55.7)	12(19.7)	4(6.6)	
	100 ~149만 원	0(0)	5(14.7)	9(26.5)	15(44.1)	5(14.7)	
	150 ~ 199만 원	0(0)	8(19.0)	10(23.8)	14(33.3)	10(23.8)	
	200만 원 이상	1(2.2)	7(15.2)	12(26.1)	19(41.3)	7(15.2)	

\*p < 0.05

문항 6. 택시비는 적절하여 부담스럽지 않다.

<표 5-20> 택시비는 적절하여 부담스럽지 않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성별	남	27(16.7)	55(34.0)	54(33.3)	17(10.5)	9(5.6)	22.237*** (4)
	여	58(26.4)	93(42.3)	30(13.6)	26(11.8)	13(5.9)	
연령	65세 ~69세	19(16.8)	46(40.7)	30(26.5)	13(11.5)	5(4.4)	22.496* (12)
	70세 ~ 74세	19(18.4)	40(38.8)	31(30.1)	7(6.8)	6(5.8)	
	75세 ~ 79세	20(27.0)	30(40.5)	14(18.9)	7(9.5)	3(4.1)	
	80세 이상	26(29.2)	31(34.8)	9(10.1)	16(18.0)	7(7.9)	
학력	무학	27(33.8)	26(32.5)	7(8.8)	12(15.0)	8(10.0)	40.882*** (12)
	초등 중퇴/졸업	26(25.0)	45(43.3)	16(15.4)	10(9.6)	7(6.7)	
	중등 중퇴/졸업	20(23.0)	38(43.7)	19(21.8)	8(9.2)	2(2.3)	
	고등 중퇴 이상	12(11.1)	37(34.3)	41(38.0)	13(12.0)	5(4.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2(17.5)	96(40.0)	68(28.3)	25(10.4)	9(3.8)	23.970*** (4)
	배우자 없음	42(30.6)	51(37.2)	15(10.9)	16(11.7)	13(9.5)	
월소득	50만 원 미만	47(33.6)	48(34.3)	12(8.6)	22(15.7)	11(7.9)	48.312*** (16)
	50 ~ 99만 원	20(22.0)	39(42.9)	22(24.2)	7(7.7)	3(3.3)	
	100 ~149만 원	4(9.3)	20(46.5)	12(27.9)	5(11.6)	2(4.7)	
	150 ~ 199만 원	7(14.3)	16(32.7)	17(34.7)	6(12.2)	3(6.1)	
	200만 원 이상	6(10.9)	23(41.8)	21(38.2)	3(5.5)	2(3.6)	

\*p < 0.05, \*\*\*p < 0.001

- 택시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성별( $\chi^2=22.237$ ,  $p<.001$ ), 연령( $\chi^2=22.496$ ,  $p<.05$ ), 학력( $\chi^2=40.882$ ,  $p<.001$ ), 배우자 유무( $\chi^2=23.970$ ,

p<.001), 월소득( $\chi^2=48.312$ , p<.001)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 택시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26.4%, ‘그렇지 않다’ 42.3%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68.7%)이 남성 응답자(50.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택시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각각 33.8%, 32.5%로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응답률을 보임.
- 배우자가 없는 경우 택시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61.4%로, 배우자가 있는 그룹(57.5%)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 주거환경(Housing)

**문항 1. 내가 사는 집 내부에는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이 없어서 안전하다.**

- 응답자의 학력과( $\chi^2=29.248$ , p<.001) 배우자 유무( $\chi^2=15.286$ , p<.05)에 따라 집 내부 문턱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집 내부에 문턱이 없어 안전하다는 질문에 대해 학력이 낮을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집안 환경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

율이 각각 40%, 21%로 나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그런 편이다 33.3%, 매우 그렇다 1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1> 내가 사는 집은 문턱이 없어 안전하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학력	무학	11(9.2)	32(26.7)	18(15.0)	32(26.7)	27(22.5)	29.248*** (12)
	초등 중퇴/졸업	7(5.0)	27(19.1)	15(10.6)	57(40.4)	35(24.8)	
	중등 중퇴/졸업	2(1.8)	27(24.8)	23(21.1)	42(38.5)	15(13.8)	
	고등 중퇴 이상	3(2.4)	18(14.4)	27(21.6)	53(42.4)	24(19.2)	
배우자 유무	있음	8(2.6)	56(18.1)	57(18.4)	124(40.0)	65(21.0)	15.286* (4)
	없음	15(8.2)	49(26.8)	25(13.7)	61(33.3)	33(18.0)	

\*p < 0.05, \*\*\*p < 0.001

**문항 2. 내가 사는 집의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하는 편이다.**

- 응답자의 독거 여부( $\chi^2=10.839$ ,  $p<.05$ )와 거주 지역( $\chi^2=10.003$ ,  $p<.05$ )에 따라 화장실 바닥의 미끄러운 정도에 대해 유의미하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음.
- 노인 혼자 거주하는 경우 ‘그런 편이다’ 20.4%, ‘매우 그렇다’ 9.5%로 나타났고,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26.1%, ‘매우 그렇다’ 5.1%로 나타나 노인이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화장실 출입 시에 더욱 조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5.3%로 제주

시의 28.4%보다 높게 나타남. 즉, 제주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화장실 출입 시에 더욱 조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2> 내가 사는 집 화장실은 미끄러워 조심하는 편이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독거 여부	독거	19(12.9)	40(27.2)	44(29.9)	30(20.4)	14(9.5)	10.839* (4)
	동거가족 있음	57(16.2)	115(32.7)	70(19.9)	92(26.1)	18(5.1)	
거주 지역	서귀포시	28(15.0)	66(35.3)	29(15.5)	52(27.8)	12(6.4)	10.003* (4)
	제주시	48(15.3)	89(28.4)	85(27.2)	71(22.7)	20(6.4)	

\*p < 0.05

**문항 3. 내가 사는 집의 부엌은 내 키에 비해 싱크대와 찬장 높이가 맞지 않아 밥 짓고 설거지 하는데 불편한 편이다.**

- 부엌 싱크대와 찬장 높이의 적절성에 대한 불편감은 응답자의 성별( $\chi^2=11.918$ ,  $p<.05$ )과 거주지역( $\chi^2=18.958$ ,  $p<.01$ )에 따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싱크대와 찬장 높이가 불편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여성 응답자의 19.1%는 ‘그런 편이다’, 8.0%는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함. 반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15.3%, ‘매우 그렇다’ 3.3%로 여성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보임.
- 서귀포시의 경우 ‘그런 편이다’ 24.9%, ‘매우 그렇다’ 8.6%로, 제주시에 비해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3> 부엌 싱크대와 찬장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하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성별	남	39(18.7)	65(31.1)	66(31.6)	32(15.3)	7(3.3)	11.918* (4)
	여	55(19.1)	97(33.7)	58(20.1)	55(19.1)	23(8.0)	
거주 지역	서귀포시	26(14.1)	50(27.0)	47(25.4)	46(24.9)	16(8.6)	18.958** (4)
	제주시	68(21.8)	112(35.9)	77(24.7)	41(13.1)	14(4.5)	

\*p < 0.05, \*\*p < 0.01

**문항 4. 내가 사는 집은 냉난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냉난방 설비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chi^2=13.121$ ,  $p<.05$ ). 냉난방 설비 여부에 대해 남성의 경우 ‘그런 편이다’ 47%, ‘매우 그렇다’ 18.5%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편이다’ 36.5%, ‘매우 그렇다’ 13.4%로 다소 적게 나타남.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응답 양상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chi^2=22.159$ ,  $p<.05$ ),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그런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다만 80세 이상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가 6.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그런 편이다’ 는 29.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냉난방 설비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응답자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chi^2=26.245$ ,  $p<.001$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5.1%,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이 18.9%인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런 편

이다' 34.1%, '매우 그렇다' 9.1%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4> 내가 사는 집은 냉난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성별	남	6(3.0)	11(5.5)	52(26.0)	94(47.0)	37(18.5)	13.121* (4)
	여	7(2.5)	29(10.5)	103(37.2)	101(36.5)	37(13.4)	
연령	65-69세	4(3.0)	15(11.3)	33(24.8)	59(44.4)	22(16.5)	22.159* (12)
	70-74세	1(0.8)	10(7.8)	40(31.0)	55(42.6)	23(17.8)	
	75-79세	1(1.0)	5(5.1)	37(37.4)	46(46.5)	10(10.1)	
	80세 이상	7(6.1)	19(8)	44(38.6)	34(29.8)	19(16.7)	
배우자 유무	있음	4(1.3)	25(8.4)	78(26.3)	134(45.1)	56(18.9)	26.245*** (4)
	없음	9(5.1)	14(8.0)	77(43.8)	60(34.1)	16(9.1)	
월소득	50만 원 미만	6(3.2)	11(5.8)	82(43.4)	72(38.1)	18(9.5)	40.059* (16)
	50-100만 원 미만	4(3.5)	16(14.0)	31(27.2)	48(42.1)	15(13.2)	
	100-150만 원 미만	1(2.1)	1(2.1)	13(27.1)	23(47.9)	10(20.8)	
	150-200만 원 미만	2(3.2)	7(11.1)	16(25.4)	26(41.3)	12(19.0)	
	200만 원 이상	0(0.0)	5(8.3)	12(20.0)	24(40.0)	19(31.7)	
독거 여부	독거	5(3.6)	12(8.6)	63(45.0)	48(34.3)	12(8.6)	18.184* (4)
	동거가족 있음	8(2.4)	28(8.3)	92(27.4)	146(43.5)	62(18.5)	

\*p < 0.05, \*\*\*p < 0.001

○ 응답자의 월소득에 따른 인식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 $\chi^2=40.059$ ,  $p<.05$ ), 월소득이 적을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음.

- 응답자의 독거 여부에 따라 냉난방 설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음 ( $\chi^2=18.184$ ,  $p<.05$ ). 동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나 ‘매우 그렇다’ 와 같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문항 5. 내가 사는 집은 경제적 부담 없이 냉난방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 응답자의 연령( $\chi^2=26.023$ ,  $p<.05$ ), 배우자 유무( $\chi^2=29.657$ ,  $p<.001$ ), 월소득( $\chi^2=30.409$ ,  $p<.05$ ), 독거여부( $\chi^2=24.048$ ,  $p<.001$ )에 따라 경제적 부담 없이 냉난방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만족도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남(표 5-25).
- 80세 이상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가 21.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매우 그렇다’ 는 0.9%로 낮았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45.1%, ‘매우 그렇다’ 18.9%로 나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각각 43%, 9.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제적 부담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덜한 것을 알 수 있음.
- 월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8.1%, ‘그렇지 않다’ 33.2%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응답노인이 가족원 없이 혼자 사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가 25.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5%로, 절반이 넘는 독거노인이 냉난방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5> 경제적 부담 없이 냉난방을 이용할 수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연령	65~69세	23(16.0)	46(31.9)	32(22.2)	30(20.8)	13(9.0)	26.023* (12)
	70~74세	20(15.2)	35(26.5)	32(24.2)	42(31.8)	3(2.3)	
	75~79세	8(7.8)	29(28.2)	35(34.0)	26(25.2)	5(4.9)	
	80세 이상	25(21.6)	32(27.6)	29(25.0)	29(25.0)	1(0.9)	
배우자 유무	있음	33(10.6)	86(27.7)	77(24.8)	95(30.6)	19(6.1)	29.657*** (4)
	없음	42(23.1)	57(31.3)	51(28.0)	31(17.0)	1(0.5)	
월소득	50만 원 미만	36(18.1)	66(33.2)	52(26.1)	42(21.1)	3(1.5)	30.409* (16)
	50~100만 원 미만	24(20.5)	29(24.8)	32(27.4)	26(22.2)	6(5.1)	
	100~150만 원 미만	6(11.5)	10(19.2)	10(19.2)	22(42.3)	4(7.7)	
	150~200만 원 미만	5(7.9)	22(34.9)	15(23.8)	17(27.0)	4(6.3)	
	200만 원 이상	5(7.9)	15(23.8)	18(28.6)	20(31.7)	5(7.9)	
독거 여부	독거	37(25.3)	43(29.5)	38(26.0)	27(18.5)	1(0.7)	24.048*** (4)
	동거가족 있음	39(11.1)	101(28.8)	91(25.9)	99(28.2)	21(6.0)	

\*p < 0.05, \*\*\*p < 0.001

**문항 6. 우리 동네는 방법요원이나 경찰들이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다.**

○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방법요원의 점검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chi^2=46.265$ ,  $p<.001$ ).

○ 서귀포시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26.3%, ‘그렇지 않다’ 27.4%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제주시의 경우 ‘그런 편

이다’ 23.6%, ‘매우 그렇다’ 6.1%로 서귀포시에 비해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함.

<표 5-26>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이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거주 지역	서귀포시	49(26.3)	51(27.4)	56(30.1)	26(14.0)	4(2.2)	46.265*** (4)
	제주시	30(9.7)	49(15.8)	121(39.0)	91(29.4)	19(6.1)	

\*\*\*p < 0.001

문항 7.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약국, 병원, 보건소, 가게 등)이 있다.

-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집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chi^2=41.507$ ,  $p<.001$ ).
-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가 각각 32.2%, 14.0%로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높았음. 학력이 높을수록 ‘그런 편이다’ 나 ‘매우 그렇다’ 와 같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높음.
- 응답자의 월소득에 따라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chi^2=10.211$ ,  $p<.01$ ). 월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가 각각 25%, 17.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집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chi^2=41.596$ ,  $p<.001$ ).

- 서귀포시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25.3%, ‘그렇지 않다’ 18.3%로 제주시에 비해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27>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이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 도)
학력	무학	39(32.2)	17(14.0)	22(18.2)	33(27.3)	10(8.3)	41.507* * (12)
	초등 중퇴/졸업	22(15.9)	23(16.7)	28(20.3)	49(35.5)	16(11.6)	
	중등 중퇴/졸업	14(13.0)	19(17.6)	24(22.2)	41(38.0)	10(9.2)	
	고등 중퇴 이상	8(6.4)	15(12.0)	33(26.4)	43(34.4)	26(20.8)	
월소득	50만 원 미만	49(25.0)	34(7.3)	38(19.4)	57(29.1)	18(9.2)	10.211** (16)
	50~100만 원 미만	23(19.5)	20(16.9)	21(17.8)	42(35.6)	12(10.2)	
	100~150만 원 미만	3(5.8)	6(11.5)	15(28.8)	23(44.2)	5(9.6)	
	150~200만 원 미만	6(9.2)	8(12.7)	16(25.4)	21(33.3)	12(19.0)	
	200만 원 이상	4(6.3)	6(9.5)	17(27.0)	20(31.7)	16(25.4)	
거주 지역	서귀포시	47(25.3)	34(18.3)	53(28.5)	39(21.0)	13(7.0)	41.596** * (4)
	제주시	38(12.3)	41(13.2)	54(17.4)	127(41.0)	50(16.1)	

\*\*p < 0.01, \*\*\*p < 0.001

#### 4)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문항 1.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이 있다.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chi^2=22.673$ ,  $p<.05$ ), 배우자 유무에 따라( $\chi^2=12.134$ ,

p<.05) 집 주변의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남.

- 8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가 50.4%, ‘매우 그렇다’ 가 3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임.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58.4%, ‘매우 그렇다’ 23.9%로 나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임.

<표 5-28>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연령	65~69세	1(0.7)	3(2.1)	26(18.1)	81(56.2)	33(22.9)	22.673* (12)
	70~74세	4(3.0)	9(6.8)	19(14.4)	75(56.8)	25(18.9)	
	75~79세	0(0.0)	3(2.9)	20(19.2)	53(51.0)	28(26.9)	
	80세 이상	1(0.9)	6(5.1)	10(8.5)	59(50.4)	41(35.0)	
배우자 유무	있음	1(0.3)	10(3.2)	44(14.2)	181(58.4)	74(23.9)	12.134* (4)
	없음	5(2.7)	11(6.0)	30(16.3)	85(46.2)	53(28.8)	

\*p < 0.05

**문항 2.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을 1주일에 4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 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chi^2=13.718$ , p<.05).
- 남성의 경우 ‘그런 편이다’ 24.4%, ‘매우 그렇다’ 26.3%로 여성 응답자(‘그런 편이다’ 22.8%, ‘매우 그렇다’ 37.4%)에 비해 다소 낮음.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여가시설 이용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음( $\chi^2=48.173$ ,  $p<.001$ ).
- 80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그런 편이다’ 19.1%, ‘매우 그렇다’ 52.2%의 응답률을 보여 80세 이상의 응답자들이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에 비해 경로당 등의 편의시설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여가시설 이용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음( $\chi^2=3.178$ ,  $p<.001$ ). 응답자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경우 ‘그런 편이다’ 18.3%, ‘매우 그렇다’ 45%로 다른 응답자에 월등히 높았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낮아짐.

<표 5-29> 경로당 등의 여가시설은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성별	남	19(9.1)	33(15.8)	51(24.4)	51(24.4)	55(26.3)	13.718** (4)
	여	32(11.1)	45(15.6)	38(13.1)	66(22.8)	108(37.4)	
연령	65~69세	8(5.6)	28(19.4)	35(24.3)	39(27.1)	34(23.6)	48.173** * (12)
	70~74세	26(19.7)	21(15.9)	22(16.7)	31(23.5)	32(24.2)	
	75~79세	12(11.5)	15(14.4)	18(17.3)	25(24.0)	34(32.7)	
	80세 이상	5(4.3)	14(12.2)	14(12.2)	22(19.1)	60(52.2)	
학력	무학	18(15.0)	15(12.5)	11(9.2)	22(18.3)	54(45.0)	3.718*** (12)
	초등 중퇴/졸업	18(12.9)	14(10.0)	23(16.4)	35(25.0)	50(35.7)	
	중등 중퇴/졸업	8(7.3)	26(23.9)	30(27.5)	26(23.9)	19(17.4)	
	고등 중퇴 이상	7(5.6)	23(18.4)	25(20.0)	34(27.2)	36(28.8)	

\*\*p < 0.01, \*\*\*p < 0.001

**문항 3.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채 및 운동시설 등에 가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놀거리가 많아 즐겁고 유익하다.**

- 연령에 따라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chi^2=24.994, p<.05$ ).
- 연령이 높을수록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와 같이 긍정적인 답변에 응답한 비율이 높음.

**<표 5-30> 경로당에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놀거리가 많아 즐겁고 유익하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연령	65~69세	5(3.5)	23(16.0)	41(28.5)	39(27.1)	36(25.0)	24.994* (12)
	70~74세	8(6.5)	16(13.0)	36(29.3)	34(27.6)	29(23.6)	
	75~79세	5(5.1)	8(8.1)	21(21.2)	45(45.5)	20(20.2)	
	80세 이상	2(1.8)	10(8.8)	23(20.2)	37(32.5)	42(36.8)	

\*p < 0.05

**문항 4.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나 노인회, 동창회(갑장회), 문중회(벌초, 제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경조사나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chi^2=19.601, p<.01$ ).
-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런 편이다’ 38.3%, ‘매우 그렇다’ 25.8%), 여성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0%, ‘그렇지 않다’ 20.8%로 부정적인 답변비율이 높아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소득에 따른 사회참여 여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chi^2=46.249$ ,  $p<.001$ ), 월소득이 높아질수록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월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집단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2.1%, ‘그렇지 않다’ 23.2%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아 사회참여가 어려움을 알 수 있음.

<표 5-31> 경조사나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성별	남	11(5.3)	21(10.0)	43(20.6)	80(38.3)	54(25.8)	19.601** (4)
	여	29(10.0)	60(20.8)	58(20.1)	98(33.9)	44(15.2)	
월소득	50만 원 미만	24(12.1)	46(23.2)	36(18.2)	58(29.3)	34(17.2)	46.249*** (16)
	50~100만 원 미만	11(9.3)	18(15.3)	30(25.4)	41(34.7)	18(15.3)	
	100~150만 원 미만	2(3.8)	5(9.6)	10(19.2)	27(51.9)	8(15.4)	
	150~200만 원 미만	2(3.2)	6(9.5)	15(23.8)	27(42.9)	13(20.6)	
	200만 원 이상	1(1.6)	5(7.9)	9(14.3)	24(38.1)	24(38.1)	
학력	무학	12(10.0)	33(27.5)	26(21.7)	33(27.5)	16(13.3)	38.592*** (12)
	초등 중퇴/졸업	14(10.0)	25(17.9)	22(15.7)	56(40.0)	23(16.4)	
	중등 중퇴/졸업	4(3.7)	12(11.0)	27(24.8)	46(42.2)	20(18.3)	
	고등 중퇴 이상	8(6.4)	11(8.8)	25(20.0)	42(33.6)	39(31.2)	
배우자 유무	있음	15(4.8)	33(10.6)	65(21.0)	127(41.0)	70(22.6)	37.563*** (4)
	없음	25(13.7)	47(25.8)	34(18.7)	50(27.5)	26(14.3)	
독거 여부	독거	21(14.4)	39(26.7)	30(20.5)	37(25.3)	19(13.0)	36.062*** (4)
	동거가족 있음	18(5.1)	42(12.0)	71(20.2)	141(40.2)	79(22.5)	

\*\*p < 0.01, \*\*\*p < 0.001

-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응답 양상에 차이가 있었음( $\chi^2=38.592$ ,  $p<.001$ ).
- 무학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 를 합친 비율이 37.5%로 응답자 중에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집단인 경우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가 64.8%로 가장 높았음.
- 응답자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chi^2=37.563$ ,  $p<.001$ ) 와 독거 여부 ( $\chi^2=36.062$ ,  $p<.001$ )에 따라 사회참여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총 63.6%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41.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독거노인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4.4%, ‘그렇지 않다’ 26.7%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40.2%, ‘매우 그렇다’ 22.5%로 독거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

**문항 5.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이 있다.**

- 배우자 유무( $\chi^2=14.323$ ,  $p<.01$ )와 독거 여부에 따라( $\chi^2=10.828$ ,  $p<.05$ )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에 대한 응답 양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가 각각 51.6%, 19.4%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44.0%, 11.4%보다 높게 나타남.
-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를 합친 긍정적인 응답이 69.3%로, 독거하는 응답자(55.1%)보다 높게 나타남.

<표 5-32> 마을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배우자 유무	있음	5(1.6)	15(4.8)	70(22.6)	160(51.6)	60(19.4)	14.323** (4)
	없음	4(2.2)	17(9.2)	61(33.2)	81(44.0)	21(11.4)	
독거 여부	독거	2(1.4)	13(8.8)	51(4.7)	63(42.9)	18(12.2)	10.828* (4)
	동거가족 있음	7(2.0)	20(5.7)	81(23.0)	180(51.1)	64(18.2)	

\*p < 0.05, \*\*p < 0.01

#### 4) 존중과 사회통합(Respect and Social Inclusion)

문항 1. 공공기관(도청, 시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이  
나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노인들에게 예의바르고 친  
절하다.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직원들이 예의바  
르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남( $\chi^2=14.427$ ,  $p<.05$ ).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를 합한 비율이 82.2%로, 제주시의 67.1%보다 높았음.

<표 5-33>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직원들은 예의바르고 친절하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거주 지역	서귀포시	1(0.5)	5(2.7)	27(14.5)	89(47.8)	64(34.4)	14.427* (4)
	제주시	3(1.0)	14(4.5)	86(27.5)	132(42.2)	78(24.9)	

\*p < 0.05

**문항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동네 사람들의 예의바름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chi^2=10.221$ , p<.05).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76.0%로, 제주시의 6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34>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거주 지역	서귀포시	1(0.5)	8(4.3)	36(19.3)	77(41.2)	65(34.8)	10.221* (4)
	제주시	4(1.3)	22(7.0)	92(29.4)	110(35.1)	85(27.2)	

\*p < 0.05

## 5) 시민참여 및 일자리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문항 1. 나는 반상회와 같은 동네 주민들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

-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chi^2=14.659$ ,  $p<.015$ ).
- 남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나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보다 높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지 않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임.
- 남성의 경우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8.1%,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1.1%로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음.
- 반상회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도는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chi^2=35.772$ ,  $p<.001$ ).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응답률이 30.2%로,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높음.
- 응답자의 배우자 유무( $\chi^2=17.407$ ,  $p<.01$ )와 거주 지역( $\chi^2=14.001$ ,  $p<.01$ )에 따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18.4%, ‘매우 그렇다’ 9.2%로,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한다고 응답함.
- 동거가족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점수가 총 27.1%로, 독거하는 노인에게 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긍정적으로 응답함.

- 제주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18.3%, ‘매우 그렇다’ 7.8%로, 서귀포시(각 14.9%, 4.6%)보다 높게 나타남.

<표 5-35> 반상회 등에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한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성별	남	45(22.6)	48(24.1)	48(24.1)	36(18.1)	22(11.1)	14.659** (4)
	여	78(28.9)	83(30.7)	56(20.7)	44(16.3)	9(3.3)	
학력	무학	44(40.4)	28(25.7)	24(22.0)	10(9.2)	3(2.8)	35.772*** (12)
	초등 중퇴/졸업	38(29.5)	33(25.6)	12(17.8)	29(22.5)	6(4.6)	
	중등 중퇴/졸업	23(21.3)	30(27.8)	29(26.9)	19(17.6)	7(6.5)	
	고등 중퇴 이상	17(14.3)	39(32.8)	27(22.7)	21(17.6)	15(12.6)	
배우자 유무	있음	63(21.5)	81(27.6)	68(23.2)	54(18.4)	27(9.3)	17.407** (4)
	없음	59(34.7)	47(27.6)	36(21.2)	25(14.7)	3(1.8)	
거주 지역	서귀포시	56(32.2)	57(32.8)	27(15.5)	26(14.9)	8(4.6)	14.001** (4)
	제주시	67(22.7)	74(25.1)	77(26.1)	54(18.3)	23(7.8)	

\*\*p < 0.01, \*\*\*p < 0.001

**문항 2.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관을 위해 (무급)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

-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남( $\chi^2=19.339$ ,  $p<.01$ ).
- 남성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로 여성

의 15.9%보다 높고,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1.0%로, 여성(8.8%)보다 높음.

- 연령에 따른 응답 양상도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chi^2=32.493$ ,  $p<.01$ ), 비교적 젊은 노인에게 속하는 65세~69세의 경우 ‘그런 편이다’ 23.1%, ‘매우 그렇다’ 12.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응답자의 소득에 따라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chi^2=57.662$ ,  $p<.001$ ).
- 월소득 2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런 편이다’ 27.0%, ‘매우 그렇다’ 15.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응답자의 학력( $\chi^2=68.046$ ,  $p<.001$ ), 배우자 유무( $\chi^2=11.795$ ,  $p<.05$ ), 거주 지역( $\chi^2=13.400$ ,  $p<.01$ )에 따라 자원봉사 의향에 차이가 있었음.
-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를 합한 응답률이 72.7%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인 경우 ‘그런 편이다’ 23.2%, ‘매우 그렇다’ 16.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함.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음.
- 제주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긍정적인 답변에 대한 응답률이 31.6%로, 서귀포시의 20.5%보다 높았음.

<표 5-36> 무급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성별	남	39(18.7)	41(19.6)	64(30.6)	42(20.1)	23(11.0)	19.339** (4)
	여	88(31.1)	74(26.1)	51(18.0)	45(15.9)	25(8.8)	
연령	65~69세	26(18.2)	27(18.9)	39(27.3)	33(23.1)	18(12.6)	32.493** (12)
	70~74세	32(24.4)	36(27.5)	39(29.8)	13(9.9)	11(8.4)	
	75~79세	30(29.1)	18(17.5)	20(19.4)	26(25.2)	9(8.7)	
	80세 이상	39(26.0)	113(23.1)	115(23.5)	87(17.8)	47(9.6)	
월 소 득	50만 원 미만	76(39.0)	50(25.6)	29(14.9)	21(10.8)	19(9.7)	57.662*** (16)
	50~100만원미만	29(25.0)	29(25.0)	29(25.0)	23(19.8)	6(5.2)	
	100~150만원미만	8(15.7)	9(17.6)	19(37.3)	12(23.5)	3(5.9)	
	150~200만원미만	8(12.7)	12(19.0)	21(33.3)	13(20.6)	9(14.4)	
	200만 원 이상	6(9.5)	14(22.2)	16(25.4)	17(27.0)	10(15.9)	
학력	무학	51(43.6)	34(29.1)	15(12.8)	11(9.4)	6(5.1)	68.046*** (12)
	초등 중퇴/졸업	43(31.4)	33(24.1)	26(19.0)	27(19.7)	8(5.8)	
	중등 중퇴/졸업	19(17.4)	24(22.0)	34(31.2)	19(17.4)	13(11.9)	
	고등 중퇴 이상	11(8.8)	24(19.2)	40(32.0)	29(23.2)	21(16.8)	
배우자 유무	있음	68(22.2)	68(22.2)	73(23.9)	60(19.6)	37(12.1)	11.795* (4)
	없음	59(32.8)	45(25.0)	39(21.7)	27(15.0)	10(5.5)	
거주 지역	서귀포시	61(33.0)	40(21.6)	46(24.9)	28(15.1)	10(5.4)	13.400** (4)
	제주시	66(21.5)	75(24.4)	69(22.5)	59(19.2)	38(12.4)	

\*p < 0.05, \*\*p < 0.01, \*\*\*p < 0.001

문항 3. 내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표 5-37>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성별	남	56(26.9)	66(31.7)	49(23.6)	28(13.5)	9(4.3)	14.403** (4)
	여	98(34.5)	108(38.0)	34(12.0)	37(13.0)	7(2.5)	
월소득	50만원미만	80(41.5)	66(34.2)	16(8.3)	24(12.4)	7(3.6)	35.832** (16)
	50~100만원미만	34(28.8)	42(35.6)	25(21.2)	14(11.9)	3(2.5)	
	100~150만원미만	8(15.4)	22(42.3)	10(9.2)	11(21.2)	1(1.9)	
	150~200만원미만	14(22.6)	24(38.7)	13(21.0)	9(14.5)	2(3.2)	
	200만원이상	17(27.0)	17(27.0)	19(30.2)	7(11.1)	3(4.7)	
학력	무학	54(46.6)	38(32.8)	9(7.8)	11(9.5)	4(3.4)	31.799** (12)
	초등 중퇴/졸업	44(31.4)	50(35.7)	25(17.9)	19(13.6)	2(1.4)	
	중등 중퇴/졸업	29(26.6)	40(36.7)	18(16.5)	19(17.4)	3(2.8)	
	고등 중퇴/이상	24(19.5)	46(37.4)	30(24.4)	16(13.0)	7(5.7)	
배우자 유무	있음	74(24.2)	108(35.3)	4(20.9)	50(16.3)	19(3.3)	28.499*** (4)
	없음	79(43.9)	64(35.6)	17(9.4)	15(8.3)	5(2.8)	
독거 여부	독거	59(41.3)	54(37.8)	15(10.5)	9(6.3)	6(4.2)	19.715** (4)
	동거/가족 있음	94(27.0)	120(34.5)	68(19.2)	56(16.1)	10(2.9)	

\*p < 0.05, \*\*p < 0.01, \*\*\*p < 0.001

○ 일을 하고자 할 때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성별( $\chi^2=14.403$ ,  $p<.01$ ), 월소득( $\chi^2=35.832$ ,  $p<.01$ ), 학력( $\chi^2=31.799$ ,  $p<.01$ ), 배우자 유무( $\chi^2=28.499$ ,  $p<.001$ ), 독거 여부( $\chi^2=19.715$ ,  $p<.01$ )에 따라 그 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남.

-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남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취업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특히 여성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를 합한 비율이 72.5%로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월소득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41.5%, ‘그렇지 않다’ 34.2%로 절반을 훨씬 웃도는 응답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응답함.
- 무학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46.6%,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8%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16.3%, ‘매우 그렇다’ 3.3%로,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일자리를 찾기 쉽다고 응답함.
-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를 합한 긍정적인 응답이 19.0%로, 독거노인의 1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항 4. 우리 동네(마을)에는 공공근로나 유급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

- 응답자의 학력( $\chi^2=22.910$ ,  $p<.05$ )과 거주 지역( $\chi^2=10.220$ ,  $p<.05$ )에 따라 유급 자원봉사 기회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무학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가 29.5%, ‘그렇지 않다’ 27.7%로 가장 높음.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와 같은 긍정적 답변의 경우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응답자가 총 1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14%, ‘매우 그렇다’ 3.3%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다' 4.1%로 서귀포 지역(그런 편이다 8.2%, 매우 그렇다 1.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38> 공공근로나 유급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학력	무학	33(29.5)	31(27.7)	33(29.5)	12(10.7)	3(2.6)	22.910* (12)
	초등 중퇴/졸업	33(24.4)	34(25.2)	48(35.6)	19(14.1)	1(0.7)	
	중등 중퇴/졸업	28(25.7)	30(27.5)	34(31.2)	10(9.2)	7(6.4)	
	고등 중퇴 이상	18(14.9)	51(42.1)	33(27.3)	16(13.2)	3(2.5)	
거주 지역	서귀포시	47(25.8)	52(28.6)	66(36.3)	15(8.2)	2(1.1)	10.220* (4)
	제주시	68(22.7)	95(31.8)	82(27.4)	42(14.0)	12(4.1)	

\*p < 0.05

## 6) 의사소통과 정보제공(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문항 1. 마을의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는 이장 및 노인회 혹은 마을회  
조직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표 5-39> 마을의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거주 지역	서귀포시	4(2.1)	24(12.8)	41(21.9)	82(43.9)	36(19.3)	9.618* (4)
	제주시	10(3.2)	44(14.1)	102(32.7)	115(36.9)	41(13.1)	

\*p < 0.05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마을 소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chi^2=9.618$ ,  $p<.05$ ).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43.9%, ‘매우 그렇다’ 19.3%로 제주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문항 2.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 응답자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chi^2=14.043$ ,  $p<.01$ )와 응답자의 거주 지역( $\chi^2=9.584$ ,  $p<.05$ )에 따라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48.1%, ‘매우 그렇다’ 13.3%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높았음.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49.7%, ‘매우 그렇다’ 12.9%로 제주지역(‘그런 편이다’ 41.8%, ‘매우 그렇다’ 9.0%)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높음.

**<표 5-40> 소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배우자 유무	있음	10(3.2)	43(14.0)	66(21.4)	148(48.1)	41(13.3)	14.043** (4)
	없음	7(3.8)	32(17.4)	60(32.6)	74(40.2)	11(6.0)	
거주지 역	서귀포시	4(2.1)	30(16.0)	36(19.3)	93(49.7)	24(12.9)	9.584* (4)
	제주시	13(4.2)	48(15.4)	92(29.6)	130(41.8)	28(9.0)	

\*p < 0.05, \*\*p < 0.01

**문항 3. 손자녀 세대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특히 제주 말)을 잘 알아들으며, 대화에 지장이 없다.**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손자녀 세대의 젊은 사람들과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chi^2=12.061$ ,  $p<.05$ ).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33.5%, ‘매우 그렇다’ 33%로, 긍정적인 인식이 제주시보다 높음.

**<표 5-41> 손자녀 세대의 사람들과 대화에 지장이 없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거주 지역	서귀포시	3(1.6)	30(16.2)	29(15.7)	62(33.5)	61(33.0)	12.061* (4)
	제주시	11(3.5)	50(16.0)	74(3.7)	112(35.9)	65(20.9)	

\*p < 0.05, \*\*p < 0.01

**문항 4. 유선전화나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여 필요할 때 쉽게 전화할 수 있다.**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휴대폰 사용이 쉬운지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chi^2=33.402$ ,  $p<.01$ ).
- 8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8.8%, ‘그렇지 않다’ 18.6%로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음. 연령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음.
- 응답자의 월 소득( $\chi^2=28.575$ ,  $p<.05$ ), 배우자 유무( $\chi^2=16.450$ ,  $p<.01$ ), 독거 여부( $\chi^2=12.538$ ,  $p<.05$ ), 거주 지역( $\chi^2=33.734$ ,  $p<.001$ )에 따라 휴대전화의 용이성 여부가 각기 다르게 나타남.

<표 5-42> 유선전화 사용이 익숙하여 쉽게 전화할 수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연령	65~69세	3(2.1)	10(6.9)	26(18.1)	46(31.9)	59(41.0)	33.402** (2)
	70~74세	3(2.3)	15(11.4)	31(23.5)	49(37.1)	34(25.7)	
	75~79세	2(1.9)	17(16.5)	22(21.4)	31(30.1)	31(30.1)	
	80세 이상	10(8.8)	21(18.6)	30(26.5)	26(23.0)	26(23.1)	
월소득	50만 원 미만	14(7.2)	23(11.9)	48(24.7)	52(26.8)	57(29.4)	28.575* (16)
	50~100만 원 미만	2(1.7)	24(20.2)	24(20.2)	32(26.9)	37(1.0)	
	100~150만 원 미만	1(1.9)	7(13.5)	9(17.3)	21(40.4)	14(26.9)	
	150~200만 원 미만	1(1.6)	7(11.1)	12(19.0)	23(36.5)	20(31.8)	
	200만 원 이상	0(0.0)	2(3.2)	15(23.8)	23(36.5)	23(36.5)	
배우자 유무	있음	5(1.6)	33(10.7)	66(21.4)	100(32.5)	104(33.8)	16.450** (4)
	없음	13(7.2)	29(16.1)	43(23.9)	51(28.3)	44(24.5)	
독거 여부	독거	9(6.2)	27(18.8)	32(22.2)	38(26.4)	38(6.4)	12.538* (4)
	동거가족 있음	9(2.6)	35(10.0)	77(22.1)	115(33.0)	113(32.3)	
거주 지역	서귀포시	4(2.2)	17(9.1)	27(14.5)	54(29.0)	84(45.2)	33.734*** (4)
	제주시	14(4.5)	46(14.9)	82(26.6)	99(32.1)	67(21.9)	

\*p < 0.05, \*\*p < 0.01, \*\*\*p < 0.001

○ 소득에 따른 인식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런 편이다’ 26.8%, ‘매우 그렇다’ 29.4%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고,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인 집단의 경우 각각 40.4%, 26.9%로 가장 높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32.5%, ‘매우 그렇다’ 33.8%로, 배

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33.0%, ‘매우 그렇다’ 32.4%로, 독거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를 합친 긍정적 응답 비율이 74.2%로, 절반이 훨씬 넘는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문항 5.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주소명, 각종 노인 지원제도)가 변경될 때 신속하게 잘 전달해준다.**

- 응답자의 월소득( $\chi^2=35.616$ ,  $p<.01$ ), 학력( $\chi^2=33.594$ ,  $p<.01$ ), 독거 여부( $\chi^2=9.912$ ,  $p<.05$ )에 따라 행정정보 습득에 차이가 있었음.
- 월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8.0%, ‘그렇지 않다’ 22.6%로 부정적인 답변이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았음.
- 무학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가 10.7%, ‘그렇지 않다’ 24.0%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음.
-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28.4%, ‘매우 그렇다’ 9.9%로, 독거하는 응답자(그런 편이다 18.4%, 매우 그렇다 6.8%)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음.

<표 5-43> 행정정보는 신속하게 전달된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월소득	50만 원 미만	16(8.0)	45(22.6)	87(43.7)	40(20.1)	11(5.6)	35.616** (16)
	50~100만 원 미만	7(5.9)	32(26.9)	36(30.3)	31(26.1)	13(10.8)	
	100~150만 원 미만	2(3.8)	5(9.6)	17(32.7)	24(46.2)	4(7.7)	
	150~200만 원 미만	0(0.0)	13(20.6)	26(41.3)	18(28.6)	6(9.5)	
	200만 원 이상	4(6.3)	15(23.8)	19(30.2)	14(22.2)	11(17.5)	
학력	무학	13(10.7)	29(24.0)	54(44.6)	21(17.4)	4(3.3)	33.594** (12)
	초등 중퇴/졸업	10(7.1)	33(23.4)	43(30.5)	40(28.4)	15(10.6)	
	중등 중퇴/졸업	0(0.0)	23(21.1)	46(42.2)	34(31.2)	6(5.5)	
	고등 중퇴 이상	6(4.8)	27(21.6)	43(34.4)	30(24.0)	19(15.2)	
독거 여부	독거	13(8.8)	37(25.2)	60(40.8)	27(18.4)	10(6.8)	9.912* (4)
	동거가족 있음	16(4.5)	76(21.6)	125(35.5)	100(28.5)	35(9.9)	

\*p < 0.05, \*\*p < 0.01

문항 6.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안내문이나 서류양식은 글자 크기가 충분히 커서 읽기 편하다.

- 남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그런 편이다’ 나 ‘매우 그렇다’ 와 같은 긍정적 답변보다 높음.
- 그러나 부정적인 응답 비율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chi^2=20.036$ ,  $p<.001$ ), 여성의 경우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도 남성에 비

해 낮음.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안내문의 글자 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남( $\chi^2=26.051$ ,  $p<.05$ ).
- 80세 이상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에 대해 각각 30.7%, 27.2%의 응답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글자 크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월소득에 따른 응답 양상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chi^2=47.242$ ,  $p<.001$ ), 월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30.6%, ‘그렇지 않다’ 30.1%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는 각각 13.0%, 3.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음.
- 응답자의 학력( $\chi^2=64.423$ ,  $p<.001$ ), 배우자 유무( $\chi^2=32.523$ ,  $p<.001$ ), 독거 여부( $\chi^2=17.185$ ,  $p<.01$ )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내문 글자 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남.
- 무학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40.2%, ‘그렇지 않다’ 29.9%로 많은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응답률이 낮아짐.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29.4%, ‘그렇지 않다’ 35.6%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 동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17.8%, ‘매우 그렇다’ 6.0%로, 독거하는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5-44>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안내문 글자가 커서 읽기 쉽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성별	남	26(12.4)	54(25.8)	79(37.8)	35(16.7)	15(7.3)	20.036*** (4)
	여	7(24.7)	89(31.4)	70(24.7)	43(15.2)	11(3.9)	
연령	65~69세	18(12.6)	35(24.5)	49(4.3)	28(19.6)	13(9.0)	26.051* (12)
	70~74세	24(18.5)	41(31.5)	44(33.8)	17(13.1)	4(3.1)	
	75~79세	18(17.6)	36(35.3)	30(29.4)	15(14.8)	3(2.9)	
	80세 이상	35(30.7)	31(27.2)	25(21.9)	17(14.9)	6(5.3)	
월소득	50만 원 미만	59(30.6)	38(30.1)	44(22.8)	25(13.0)	7(3.5)	47.242*** (16)
	50~100만 원 미만	24(20.2)	39(32.8)	33(27.7)	14(11.8)	9(7.5)	
	100~150만 원 미만	3(5.8)	12(23.1)	25(48.1)	10(19.2)	2(3.8)	
	150~200만 원 미만	4(6.3)	15(23.8)	25(39.7)	15(23.8)	4(6.4)	
	200만 원 이상	6(9.8)	18(29.5)	21(34.4)	12(19.7)	4(6.6)	
학력	무학	47(40.2)	35(29.9)	22(18.8)	9(7.7)	4(3.4)	64.423*** (12)
	초등 중퇴/졸업	26(18.6)	48(34.3)	38(27.1)	22(15.7)	6(4.3)	
	중등 중퇴/졸업	11(10.3)	27(25.2)	45(42.1)	16(15.0)	8(7.4)	
	고등 중퇴 이상	11(8.9)	31(25.0)	44(35.5)	30(24.2)	8(6.4)	
배우자 유무	있음	43(14.1)	78(25.5)	113(36.9)	54(17.6)	18(5.9)	32.523*** (4)
	없음	53(29.4)	64(35.6)	35(19.4)	22(12.2)	6(3.4)	
독거여 부	독거	39(27.3)	51(35.7)	32(22.4)	16(11.2)	5(3.4)	17.185** (4)
	동거가족 있음	57(16.4)	92(26.4)	116(33.3)	62(17.8)	21(6.1)	

\*p < 0.05, \*\*p < 0.01, \*\*\*p < 0.001

## 7)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Community Support and Health Care)

문항 1.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급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의료기관, 119 구급대 등)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 받을 곳이 주변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 $\chi^2=25.739$ ,  $p<.05$ ).
- 8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20.5%, ‘그렇지 않다’ 20.5%로, 집 근처에 도움을 구할 곳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월소득( $\chi^2=51.885$ ,  $p<.001$ ), 학력( $\chi^2=55.816$ ,  $p<.001$ ), 배우자 유무( $\chi^2=17.217$ ,  $p<.05$ ), 독거 여부( $\chi^2=10.433$ ,  $p<.05$ ), 거주지역( $\chi^2=44.734$ ,  $p<.001$ ) 등에 따라 응급상황에 도움을 청할 곳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남.
- 월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가 각각 21.6%, 27.6%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학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를 합한 비율이 56.2%로 절반이 넘는 인원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응답자는 ‘그런 편이다’ 46.4%, ‘매우 그렇다’ 11.2%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40.1%, ‘매우 그렇다’ 11.3%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으로 응답한 반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26.1%, ‘매우 그렇다’ 9.8%에 그쳐 현저히 낮은 응답률을 보임.

<표 5-45> 응급상황 시 도움 받을 곳이 가까이에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연령	65-69세	11(7.7)	25(17.5)	40(28.0)	56(39.2)	11(7.6)	25.739* (12)
	70-74세	17(12.9)	36(27.3)	19(14.4)	48(36.4)	12(9.0)	
	75-79세	13(12.5)	23(22.1)	17(16.3)	37(35.6)	14(13.5)	
	80세이상	24(20.5)	24(20.5)	18(15.4)	34(29.1)	17(14.5)	
월소득	50만원미만	43(21.6)	55(27.6)	30(15.1)	44(22.1)	27(13.6)	51.885*** (16)
	50-100만원미만	11(9.3)	26(22.0)	23(19.5)	49(41.5)	9(7.7)	
	100-150만원미만	4(7.7)	5(9.6)	13(25.0)	27(51.9)	3(5.8)	
	150-200만원미만	4(6.3)	12(19.0)	15(23.8)	27(42.9)	5(8.0)	
	200만원이상	3(4.8)	12(19.0)	12(9.0)	26(41.3)	10(15.9)	
학력	무학	35(28.9)	33(27.3)	15(12.4)	27(22.3)	11(9.1)	55.816*** (12)
	초등 중퇴/졸업	16(11.4)	32(22.9)	24(17.1)	50(35.7)	18(12.9)	
	중등 중퇴/졸업	10(9.2)	25(22.9)	24(22.0)	39(35.8)	11(10.1)	
	고등 중퇴/이상	4(3.2)	18(14.4)	31(24.8)	58(46.4)	14(11.2)	
배우자 유무	있음	29(9.4)	63(20.4)	58(18.8)	124(40.1)	35(11.3)	17.217* (4)
	없음	36(19.6)	47(25.5)	35(19.0)	48(26.1)	18(9.8)	
독거 여부	독거	27(18.4)	37(25.2)	30(20.4)	41(27.9)	12(8.1)	10.433* (4)
	동거가족있음	38(10.8)	73(20.8)	63(17.9)	134(38.2)	43(12.3)	
거주 지역	서귀포시	37(19.9)	55(29.6)	42(22.6)	45(24.2)	7(3.7)	44.734*** (4)
	제주시	28(8.9)	55(17.6)	52(16.6)	130(41.5)	48(15.4)	

\*p < 0.05, \*\*p < 0.01, \*\*\*p < 0.001

○ 동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각각 38.2%, 12.3%로, 독거하는 응답자에 비해 높았음.

- 제주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와 ‘매우 그렇다’ 가 각각 41.5%, 15.3%로, 절반을 넘는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서귀포의 경우 28%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문항 2. 보건(지)소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chi^2=10.596$ ,  $p<.05$ ).
-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응답을 함.

<표 5-46>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배우자 유무	있음	2(0.6)	14(4.5)	47(15.2)	175(56.5)	72(23.2)	10.596* (4)
	없음	1(0.5)	13(7.1)	37(20.2)	76(41.5)	56(30.6)	

\*p < 0.05

**문항 3.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영양보호 서비스가 있다.**

-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저렴하게(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영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음( $\chi^2=30.901$ ,  $p<.001$ ).
- 제주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24.4%, ‘매우 그렇다’

4.8%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5-47>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거주 지역	서귀포시	52(34.2)	41(27.0)	41(27.0)	18(11.8)	0(0.0)	30.901*** (4)
	제주시	45(15.7)	74(25.8)	84(29.3)	70(24.4)	14(4.8)	

\*\*\*p < 0.001

**문항 4. 우리 동네(혹은 마을)에는 시장보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

-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chi^2=16.882$ ,  $p<.01$ ).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응답자 모두 절반 이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여 많은 응답자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 17.8%, ‘매우 그렇다’ 3.1%로 서귀포시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5-48>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

(단위 : %)

특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자유도)
거주 지역	서귀포시	60(39.0)	38(24.7)	38(24.7)	15(9.7)	3(1.90)	16.882** (4)
	제주시	62(21.7)	84(29.4)	80(28.0)	51(17.8)	9(3.1)	

\*\*p < 0.01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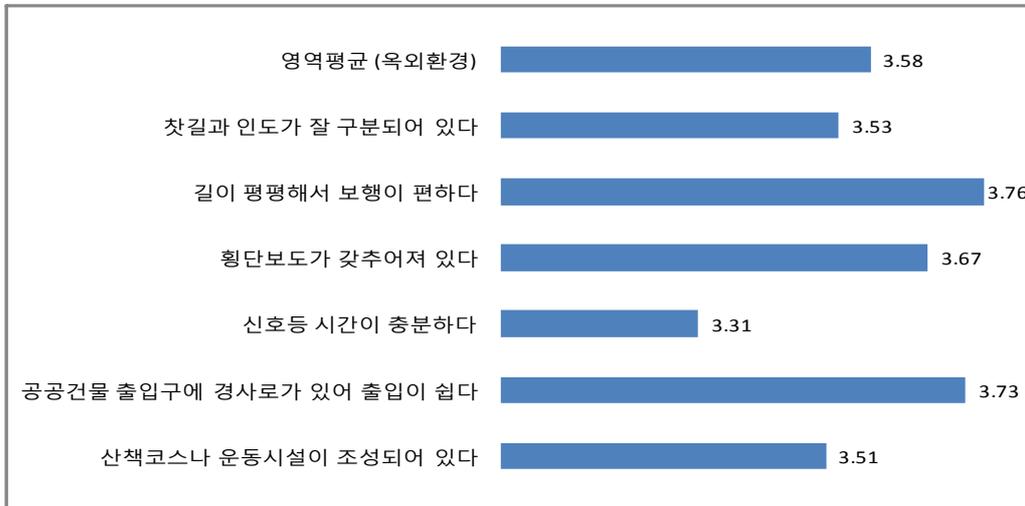
### 1.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 결과 요약과 시사점

#### 1) 영역별 · 문항별 비교

##### 가. 옥외환경과 건물(Outdoor Spaces and Buildings)

- 옥외환경과 건물 영역의 평균 점수는 3.58점으로 전체 평균인 3.21점을 웃도는 높은 점수임.

<그림 6-1> 옥외환경과 건물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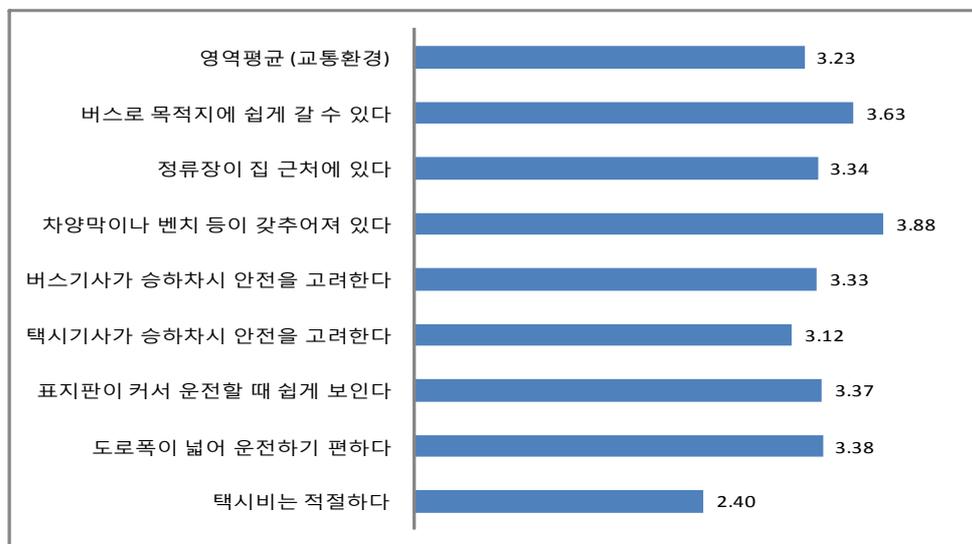


-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길이 평평해서 보행이 편하다’, ‘공공건물 출입구에 경사로가 있어 출입이 쉽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음.
- 그러나 ‘신호등 시간이 충분히 길어 길을 건너기 편하다’ 는 문항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나. 교통환경 (Transportation)

- 교통환경의 전체 평균점수는 3.23점으로 보통을 조금 상회함.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와 관련된 문항(버스로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다, 정류장에 차양막이나 벤치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음.
- ‘택시비는 적절하다’ 는 문항은 2.4점으로, 보통에 못 미치는 수준임.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일수록 택시비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생활필수품 구매나 병원 진료 등 이동이 필요할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이동서비스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그림 6-2> 교통환경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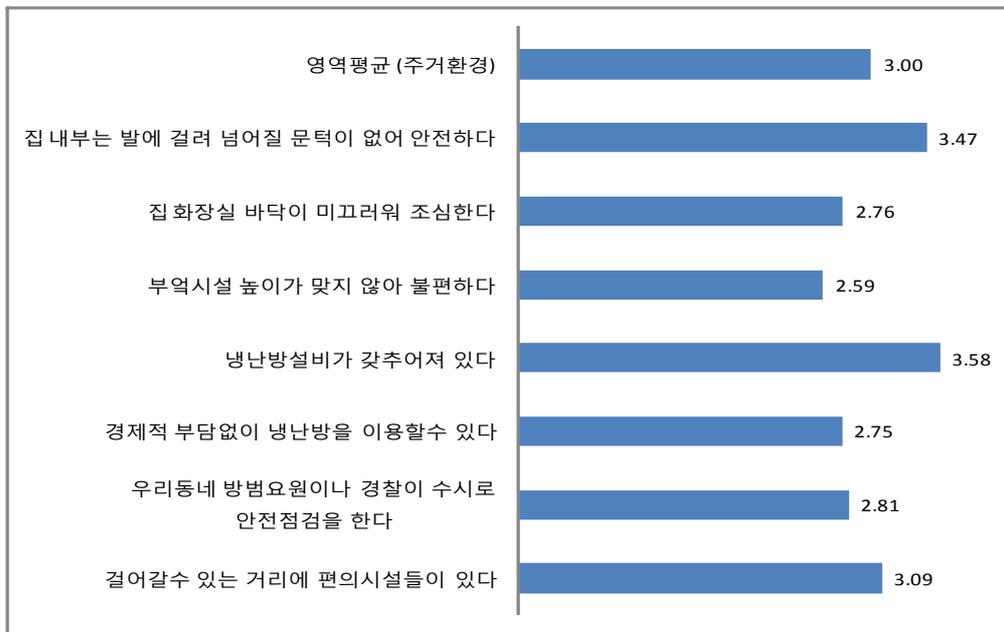
## 다. 주거환경(Housing)

- 주거환경 영역의 평균 점수는 3점으로 보통의 수준임.
- 집 내부의 문턱이나 냉난방 시설 설비에 대한 점수는 비교적 높게 나

타났으나 화장실 바닥이나 부엌시설 높이, 냉난방 비용, 치안 및 안전 등에 대한 점수는 보통 이하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주택 설비의 경우 응답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 점수가 다소 높게 나왔을 수도 있음. 따라서 고령자의 생활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함.
- 또한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온 화장실 바닥이나 부엌 설비는 낙상과 같은 고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항이므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그림 6-3> 주거환경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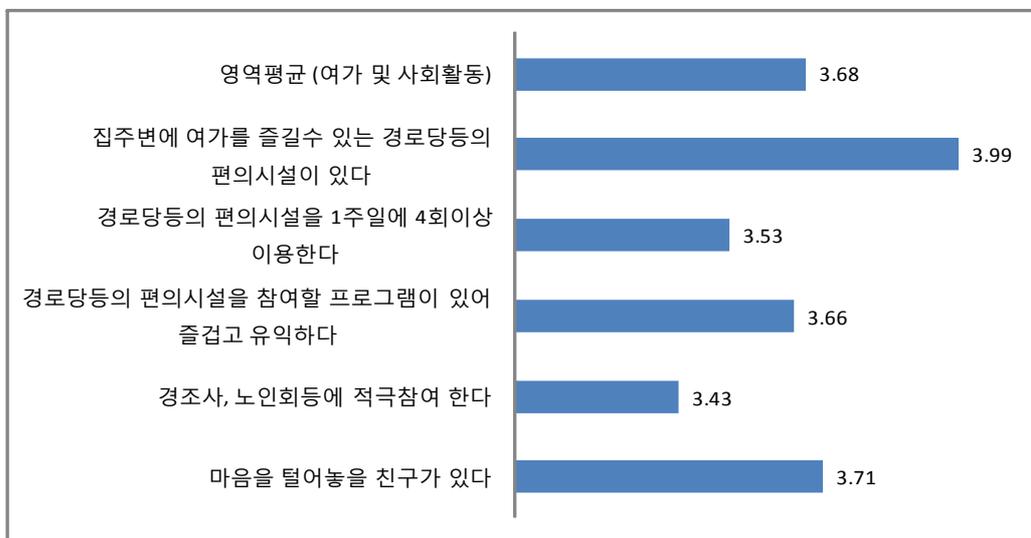
#### 라.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 사회참여 영역의 평균 점수는 3.68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게 나옴.
- 특히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는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옴. 실제로 제주지역의 경우 마을단위로 경로당이 마련되어있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세부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경로당이 마련되어있다’ 는 문항은의 경우 80세 이상의 집단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주일에 4회 이상 자주 이용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75세~79세 노인들이 가장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여 노인들의 연령집단에 따라 이용 현황과 욕구가 상이함을 짐작해볼 수 있음. 따라서 노인의 연령별 여가활동 욕구를 파악하여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6-4> 사회참여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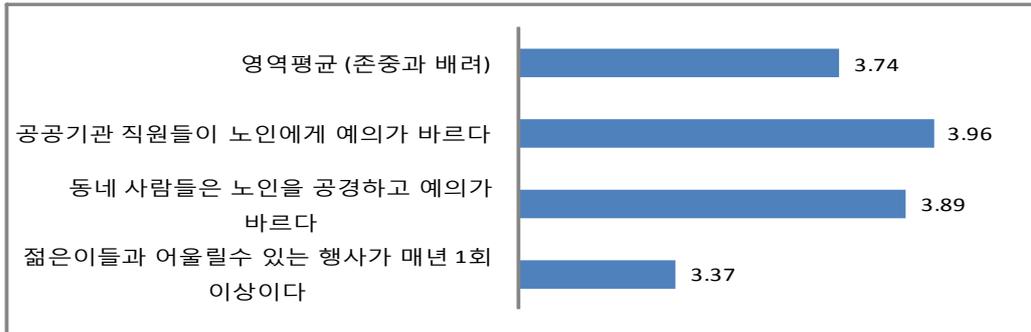
#### 마. 존중과 사회통합

- ‘존중과 사회통합’영역의 평균 점수는 3.74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임.
-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이 노인에게 예의가 바르다’ 와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가 바르다’ 라는 문항에 대한 만족도는 4점

가까이 높게 나와 노인들은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매년 1회 이상이다’ 라는 문항의 점수는 3.37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여 세대간의 교류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6-5>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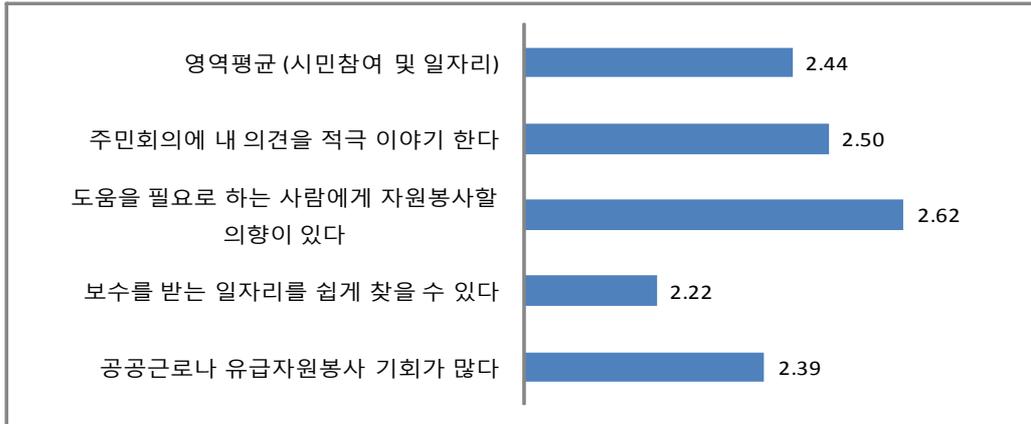


**바. 시민참여 및 일자리(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 시민참여 및 일자리 영역의 평균점수는 2.44점으로 보통에 못미치는 낮은 점수를 기록함.
- 특히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라는 문항은 2.22점, ‘공공근로나 유급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 는 2.39점으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 일자리와 관련된 세부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민회의에 내 의견을 적극 이야기 한다’ 라는 문항의 경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하여 시민참여율이 매우 저주함을 알 수 있음. 사회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고학력자, 제주시 거주자, 도시 거주자 등 특정 집단으로 한정됨.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6-6> 시민참여 및 일자리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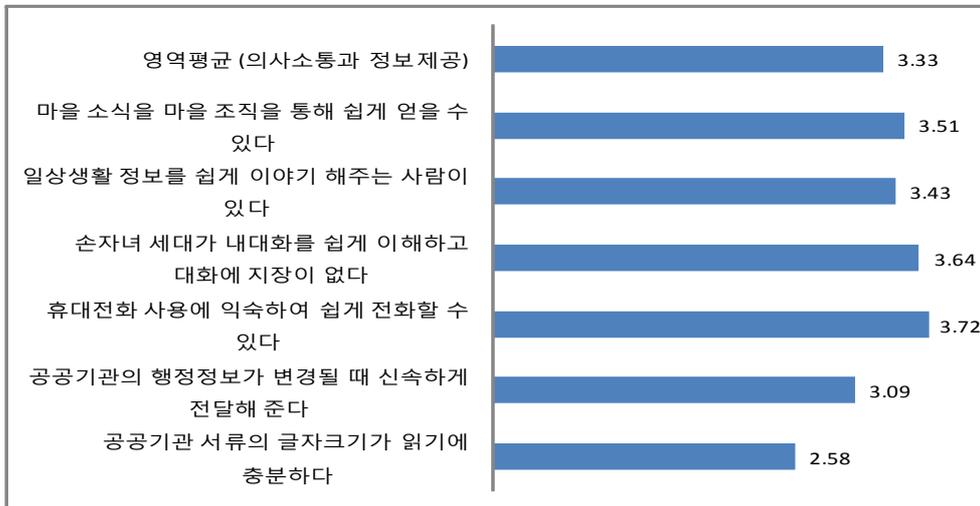
#### 사. 의사소통과 정보제공(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의소소통과 정보제공 영역의 평균 점수는 3.33점으로 보통을 다소 상회함.
-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3.7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휴대전화 사용이 노인들에게도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세부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거나 배우자 및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제주시 노인의 경우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즉, 주변에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알려줄 사람이 없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쉽지 않음. 취약계층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가 변경될 때 신속하게 전달해준다’ 와 ‘공공기관 서류의 글자크기가 읽기에 충분하다’ 라는 문항은 각각 3.09점,

2.58점으로 영역 내 다른 문항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함. 특히 글자크기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가 나와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마을 조직을 통해 마을 소식을 쉽게 얻는다’ 나 ‘일상생활 정보를 쉽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므로, 마을 조직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림 6-7> 의사소통과 정보 제공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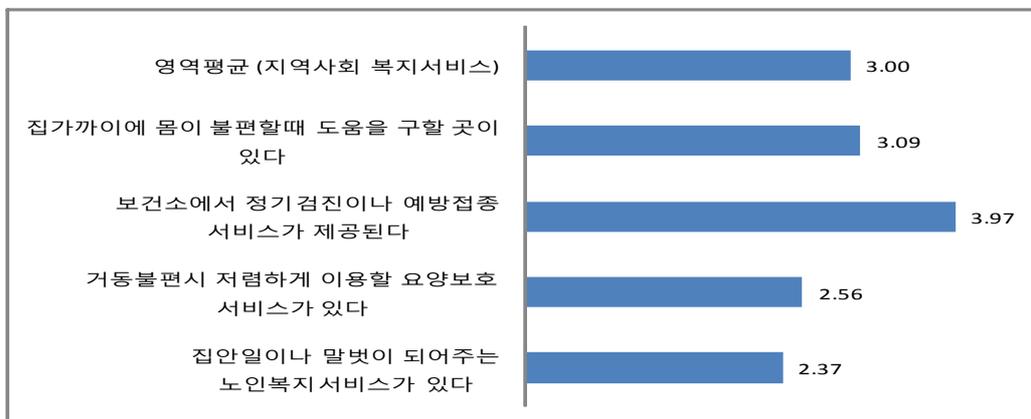
아.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Community Support and Health Care)

-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영역의 평균 점수는 3점으로 보통의 수준임.
-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라는 문항의 점수는 3.97점으로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집안일이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 와 ‘거동이 불편할 때 저렴하게 이용할 요양보호서비스가 있다’ 라는 문항은 각각 2.37점, 2.56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가 나옴. 요양보호나 집안일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정보전달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서비스를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복지서비스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지역별 비교

<그림 6-8>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영역평균 및 문항별 평균점수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고령친화도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고령친화도 점수는 제주시 3.25점, 서귀포시 3.24점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일부 문항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6-1>와 같음.
- ‘옥외환경과 건물’ 영역의 평균 점수는 제주시 3.59점, 서귀포시 3.57

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차이도 크지 않음.

- 세부 문항 중 ‘우리 동네는 차길과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다’에 대해 제주시는 3.46점으로 서귀포시(3.63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 동네 횡단보도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서 길을 건널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의 경우 제주시는 3.28점, 서귀포시는 3.36점으로 제주시가 다소 낮음. 아울러 세부 문항 중 신호등 시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우리 동네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근린공원 등)이 조성되어있다’는 제주시 3.67점, 서귀포시 3.24점으로, 앞서 제시된 다른 문항들과 달리 서귀포시가 더 낮았음.
- ‘교통환경’ 영역의 평균 점수는 제주시 3.19점, 서귀포시 3.36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차이도 크지 않음.
-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운전기사는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한다’ 문항의 점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3.09점, 3.19점으로 평균을 밑도는 낮은 점수임.
  - ‘시내(외) 버스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다’의 경우 제주시는 3.52점, 서귀포시 3.82점으로 서귀포시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항의 경우에도 서귀포시(3.59)가 제주시(3.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 영역의 평균 점수는 제주시 3.04점, 서귀포시 2.95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음.

- 내가 사는 집의 부엌은 내 키에 비해 싱크대와 찬장 높이가 맞지 않아 밥 짓고 설거지하는데 불편하다는 문항에 대해 제주시는 2.43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이나 경찰들이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제주시의 경우 3.06점으로 보통 수준의 점수가 나온 반면 서귀포시는 2.38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이 있다’라는 문항은 제주시 3.35점, 서귀포시 2.66점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사회참여’ 영역의 평균 점수는 제주시 3.63점, 서귀포시 3.72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음.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을 1주일에 4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제주시는 3.44점, 서귀포시는 3.68점이 나와 제주시가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제주시 3.65점, 서귀포시 3.81점으로 서귀포시가 높게 나타남.
-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의 평균 점수는 제주시 3.65점, 서귀포시 3.8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음.
-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직원들은 노인들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하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의 문항에 대해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보다 높은 점수를 보임.
- ‘시민참여 및 일자리’ 영역의 평균 점수는 제주시 2.51점, 서귀포시 2.30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나는 반상회와 같은 동네 주민들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의견을 이야기 한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관을 위해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 모두에서 제주시의 응답자가 서귀포시 응답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임.

○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영역의 평균 점수는 제주도 3.28점, 서귀포시 3.42점으로, 전체 평균과 비슷함.

- ‘마을의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는 이장 및 노인회 혹은 마을회 조직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손자녀 세대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며, 대화에 지장이 없다’, ‘유선전화나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여 필요할 때 쉽게 전화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서 모두 서귀포시의 점수가 제주시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영역의 평균 점수는 제주도 3.14점, 서귀포시 2.74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음.

-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급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다’, ‘우리 동네에는 시장보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라는 문항에서 모두 서귀포시 지역의 점수가 제주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6-1> 제주시와 서귀포시 고령친화도 비교

문항		점수	
		제주	서귀포
전체		3.25	3.24
전반적 옥외 환경	영역평균	3.59	3.57
	우리 동네는 차길과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다.*	3.46	3.63
	우리 동네는 길이 평평해서 길을 걷거나 보행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다.	3.71	3.84
	우리 동네는 횡단보도가 잘 갖추어져있다.	3.69	3.63
	우리 동네 횡단보도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서 길을 건널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3.28	3.36
	공공건물(마을회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출입구에는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이 있어 드나들기 편하다.	3.73	3.72
	우리 동네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근린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3.67	3.24

\*p < 0.05, \*\*p < 0.01, \*\*\*p < 0.001

<표 6-1> 계속. 제주시와 서귀포시 고령친화도 비교

문항		점수	
		제주	서귀포
전체		3.25	3.24
교통 환경	영역평균	3.19	3.36
	시내(외) 버스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다.*	3.52	3.82
	시내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3.18	3.59
	시내버스 정류장에 의자와 차양막(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	3.79	4.03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출발과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천천히 운행한다.***	3.19	3.56
	택시 운전기사는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한다.	3.09	3.19
	자가용을 운전할 때 교통안내 표지판은 알아보기 쉽게 크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다.	3.34	3.46
	도로의 폭이 넓어 자가용을 운전하기에 편하다.	3.35	3.46
	택시비는 적절하여 부담스럽지 않다.	2.38	2.42

\*p < 0.05, \*\*p < 0.01, \*\*\*p < 0.001

<표 6-1> 계속. 제주시와 서귀포시 고령친화도 비교

문항		점수	
		제주	서귀포
전체		3.25	3.24
주거 환경	영역평균	3.04	2.95
	내가 는 집 내부에는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이 없어서 안전하다.	3.46	3.50
	내가 사는 집의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하는 편이다.*	2.76	2.75
	내가 사는 집의 부엌은 내 키에 비해 싱크대와 찬장 높이가 맞지 않아 밥 짓고 설거지하는데 불편한 편이다.**	2.43	2.87
	내가 사는 집은 냉·난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3.51	3.69
	경제적 부담 없이 냉·난방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2.72	2.80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이나 경찰들이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다.***	3.06	2.38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약국, 병·의원, 보건소, 가게, 슈퍼 등)이 있다.***	3.35	2.66

\*p < 0.05, \*\*p < 0.01, \*\*\*p < 0.001

<표 6-1> 계속. 제주시와 서귀포시 고령친화도 비교

문항		점수	
		제주	서귀포
전체		3.25	3.24
여가 및 사회 활동	영역평균	3.63	3.72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이 있다.	3.96	4.03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을 1주일에 4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3.44	3.68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에 가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배울 거리와 놀 거리가 많아 즐겁고 유익하다.	3.60	3.76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나 노인회, 동창회(갑장회), 문중회(벌초, 제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49	3.32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이 있다.*	3.65	3.81

\*p < 0.05, \*\*p < 0.01, \*\*\*p < 0.001

<표 6-1> 계속. 제주시와 서귀포시 고령친화도 비교

문항		점수	
		제주	서귀포
전체		3.25	3.24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평균	3.65	3.89
	공공기관(도청, 시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이나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노인들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하다.**	3.86	4.13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	3.80	4.05
	우리 동네에는 동네 사람들이나 아이들, 또는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체육대회, 식사대접 등)가 매년 1회 이상 개최된다.	3.30	3.48
시민 참여 및 일자리	영역평균	2.51	2.30
	나는 반상회와 같은 동네 주민들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	2.63	2.27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관을 위해 (무급)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	2.77	2.38
	내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2.21	2.24
	우리 동네(마을)에는 공공근로나 유급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	2.45	2.30

\*p < 0.05, \*\*p < 0.01, \*\*\*p < 0.001

<표 6-1> 계속. 제주시와 서귀포시 고령친화도 비교

문항		점수	
		제주	서귀포
전체		3.25	3.24
의사 소통과 정보 제공	영역평균	3.28	3.42
	마을의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는 이장 및 노인회 혹은 마을회 조직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3.43	3.65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3.36	3.55
	손자녀 세대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특히 제주말)을 잘 알아들으며, 대화에 지장이 없다.*	3.54	3.80
	유선전화나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여 필요할 때 쉽게 전화할 수 있다. ***	3.52	4.06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주소명, 각종 노인 지원제도)가 변경될 때 신속하게 잘 전달해준다.	3.12	3.04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안내문이나 서류양식은 글자 크기가 충분히 커서 읽기 편하다.	2.70	2.40

\*p < 0.05, \*\*p < 0.01, \*\*\*p < 0.001

<표 6-1> 계속. 제주시와 서귀포시 고령친화도 비교

문항		점수	
		제주	서귀포
전체		3.25	3.24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영역평균	3.14	2.74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급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의료기관, 119 구급대 등)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	3.37	2.62
	보건(지)소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3.91	4.06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다.***	2.77	2.16
	우리 동네(혹은 마을)에는 시장보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	2.51	2.11

\*p < 0.05, \*\*p < 0.01, \*\*\*p < 0.001

## 2.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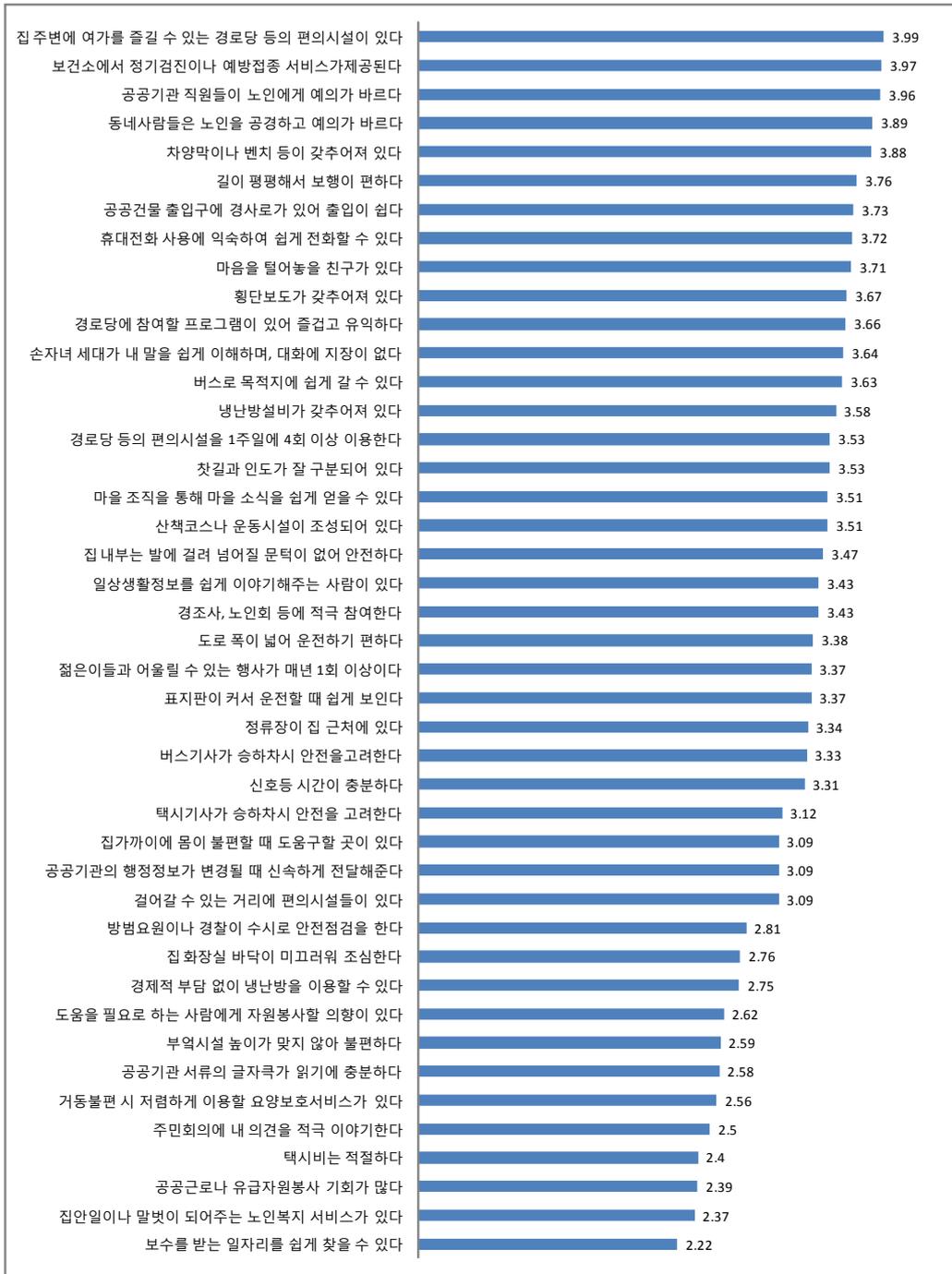
### 1) 영역별 우선순위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령친화도 평가문항의 8개 영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존중과 사회통합(3.74점)’, ‘사회참여(3.68점)’, ‘옥외환경과 건물(3.58점)’ 등의 영역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제주지역 노인들의 인식이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시민참여 및 일자리’의 점수는 2.4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주거환경(3점)’,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3점)’ 등이 그 뒤를 이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사회 주요 대응과제를 살펴보면, ‘다양한 고용 기회 제공’,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제공’,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등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어있음.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이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의 대응과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정책에 ‘복지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상이 ‘저소득 어르신’이나 ‘무주택 어르신’ 등으로 한정되어있어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임.
- 설문결과 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던 ‘주거환경’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사회 주요 대응과제나 노인복지정책 모두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촉구됨.

## 2) 세부문항별 우선순위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를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8개 영역의 세부 문항 44개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는 <그림 6-9>과 같음.
- 세부문항 중 가장 낮게 평가된 문항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로 2.2점의 평가점수를 받음. 유사한 문항으로 ‘유급 자원봉사나 공공근로 기회가 많다’ 역시 2.39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 중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제주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대상’ 을 수상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일자리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완벽히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매년 추진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 인원은 약 3,000명~4,000명 정도로, 노인인구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인원임.
- 따라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노인들의 다양성에 입각하여 창작이나 창업 등을 장려하는 등의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집안일이나 말벗이 되어주는 복지서비스가 있다(2.37)’ 라는 점수가 낮게 나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그림 6-9> 전 영역 문항별 평가점수



### 3) 정책대상별 과제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령친화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연령이 높고, 소득 및 학력수준이 낮으며, 배우자가 없고,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그리고 여성인 경우 일부 문항에서 고령친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도 평가점수는 응답자의 연령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임. 따라서 노인의 연령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
  - 80세 이상의 장수노인들의 경우 냉난방 기기의 설비나 비용, 전화 사용,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 등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았음. 따라서 장수노인들을 위한 냉난방 설비 점검, 전화사용 방법이나 응급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로당과 같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문항의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80세 이상 장수노인들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고, 1주일에 4회 이상 자주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장수노인들이 가장 높게나온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지 않았음. 이는 곧 경로당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노인들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소득 수준이 낮거나 학력이 낮은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독거하는 경우 등에서 전반적인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음.
  - 해당 계층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냉난방 비용이나 택시비 등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거주지나 외부환경은 좋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거주환경 개선사업, 사회참

여 장려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여성노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

-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 옥외환경과 건물, 주거환경, 사회참여 및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옴.
- 후기고령층으로 갈수록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아짐을 감안하면 장수노인의 문제는 여성노인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음.
- 따라서 여성노인의 요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 면접조사표

No.

조사원 기입 \_\_\_\_\_ 시 \_\_\_\_\_ 읍(동, 면)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WHO(세계보건기구)의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응답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생활하시면서 드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익명 처리되며, 본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소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 제 주 발 전 연 구 원 장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 : 이서연 연구원 (전화 : 064-726-6135 , E-Mail: sy0929@jdi.re.kr)

## 가. 고령친화도 평가

### 1) 옥외환경과 건물(outdoor spaces & buildings) : 5문항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1	1-1. 우리 동네는 차길과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2. 우리 동네는 길이 평평해서 길을 걸거나 보행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2	2-1. 우리 동네는 횡단보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2-2. 우리 동네 횡단보도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서 길을 건널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4	공공건물(마을회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출입구에는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이 있어 드나들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근린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 교통환경(Transportation) : 5문항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1	시내(외) 버스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2-1. 시내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2. 시내버스 정류장에 의자와 차양막(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3-1.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출발과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천천히 운행한다.	①	②	③	④
	3-2. 택시 운전기사는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한다. (승하차시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 운행 여부 알림 등)	①	②	③	④
4	4-1. 자가용을 운전할 때 교통안내 표지판은 알아보기 쉽게 크고 정확하게 표시 되어 있어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4-2. 도로의 폭이 넓어 자가용을 운전하기에 편하다.	①	②	③	④
5	택시비는 적절하여 부담스럽지 않다.	①	②	③	④

3) 주거환경(Housing) : 6문항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1	내가 사는 집 내부에는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이 없어서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사는 집의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하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3	내가 사는 집의 부엌은 내 키에 비해 싱크대와 찬장 높이가 맞지 않아 밥 짓고 설거지 하는데 불편한 편이다.	⑤	④	③	②		
4	내가 사는 집은 냉·난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4-1.	냉방설비 설치 유형	① 에어컨	② 선풍기	③ 쿨매트	④ 기타		
4-2.	주로 이용하는 냉방설비	① 에어컨	② 선풍기	③ 쿨매트	④ 기타		
4-3.	난방설비 설치 유형	① 보일러	② 전기요	③ 전기히터	④ 가스히터	⑤ 온풍기	⑥ 기타
4-4.	주로 이용하는 난방설비	① 보일러	② 전기요	③ 전기히터	④ 가스히터	⑤ 온풍기	⑥ 기타
5	내가 사는 집은 경제적 부담 없이 냉·난방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이나 경찰들이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7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약국, 병의원, 보건소, 가게, 슈퍼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 4문항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1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2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을 1주일에 4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에 가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배울거리와 놀거리가 많아 즐겁고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4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나 노인회, 동창회(갑장회), 문중회(벌초, 제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5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존중과 사회통합(Respect and Social Inclusion) : 4문항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1	공공기관(도청, 시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이나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노인들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에는 동네 사람들이나 아이들, 또는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체육대회, 식사대접 등)가 매년 1회 이상 개최된다.	①	②	③	④

6) 시민참여 및 일자리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 4문항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1	나는 반상회와 같은 동네 주민들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2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관을 위해 (무급)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마을)에는 공공근로나 유급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7)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4문항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1	마을의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는 이장 및 노인회 혹은 마을회 조직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손자녀 세대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특히 제 주말)을 잘 알아들으며, 대화에 지장이 없다.	①	②	③	④
3	유선전화나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여 필요할 때 쉽게 전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주소명, 각종 노인 지원제도)가 변경될 때 신속하게 잘 전달해준다.	①	②	③	④
5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안내문이나 서류양식은 글자 크기가 충분히 커서 읽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8)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1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급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의료 기관, 119 구급대 등)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	①	②	③	④
2	보건(지)소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3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혹은 마을)에는 시장보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	①	②	③	④

## 나. 행복감

※ 다음은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감 등), 관계적 측면(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 집단적 측면(내가 속한 집단, 마을/동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삶의 각 측면에서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귀하는 그러한 삶의 각 측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점)’ 까지의 보기 중에서 3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1.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_\_\_\_\_
2.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_\_\_\_\_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만족한다. \_\_\_\_\_

※ 다음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경험한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생각해 주시고 나서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전혀 느끼지 않음’에서부터 ‘항상 느꼈다(7점)’까지의 보기 중에서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전혀 느끼지 않았다					
1	2	3	4	5	6

- 4. 즐거움 \_\_\_\_\_
- 5. 행복함 \_\_\_\_\_
- 6. 편안함 \_\_\_\_\_
- 7. 짜증남 \_\_\_\_\_
- 8. 부정적임 \_\_\_\_\_
- 9. 무기력함 \_\_\_\_\_

점수계산

만족감 총점 : 문항 1+2+3, 긍정정서 총점 : 문항 4+5+6, 부정정서 총점 : 문항 7  
 최종 행복 점수 : 만족감+긍정정서-부정정서

## 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1	성별	① 남                      ② 여
2	출생년도	_____년 (만 _____세)
3	학력	① 무학(글자 모름)                      ② 무학이지만 글자 해독 ③ 초등학교 중퇴·졸업                  ④ 중학교 중퇴·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졸업                  ⑥ 전문대학 중퇴·졸업 ⑦ 대학교 중퇴·졸업 이상
4	결혼 상태	① 기혼(배우자와 함께 살고있음)                      ② 사별 ④ 결혼한 적 없음    ⑤ 기타(동거 등 _____)
5	월평균 소득(본인 및 배우자)	약 _____만원
6	어르신께서는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비중이 가장 큰 것 <b>하나</b> 만 선택)	① 본인(혹은 배우자)이 일해서 번 돈                      ② 자녀, 친인척 ③ 집세, 부동산 및 저축이자 등                              ④ 공적연금, 퇴직금 등 ⑤ 개인연금이나 보험    ⑥ 기초생활보장 ⑦ 기초연금 등    ⑧ 기타 (_____)

7	현재 거주하시는 동네에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_____년
8	주택소유형태	① 자가 소유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연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기타 (_____)
9	주택 유형	① 단독주택(일반단독, 다가구주택) ② 연립주택/다세대주택 ③ 아파트 ④ 오피스텔 ④ 비주거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⑤ 단칸방(쪽방 등) ⑥ 노인전용 주택/생활시설 ⑦ 기타(_____)
10	3년 이내에 이사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1	어르신은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계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	① 혼자 산다                      ② 배우자                      ③ 아들 ④ 딸                                      ⑤ 손자녀                      ⑥ 부모 ⑦ 배우자의 부모              ⑧ 기타 (_____)

## 참고문헌

- 고승한, 이소정(2014), 고령사회도래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화전략과 대응과제, 제주발전연구원
- 고승한, 임병우(2011),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김경혜, 김선자, 노은이, 김현정(2010),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선자, 김경혜, 김현정(2008),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서울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경희, 이윤경, 오영희, 김상철, 노명우, 박신영, 설재훈, 방효정(2006), 고령화 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발전모델 개발, 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2010),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68호, pp. 102~112
- 정경희(2011), 고령친화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액티브 에이징 2기 자료집,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pp.183-195.
- 제주특별자치도(2014),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2014~2018)
-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37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3·6·5 약속 실천계획서
-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도 인구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통계청(2014), 장래인구추계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2012). AARP

launches new network to foster age-friendly communities. Retrieved September 1, 2012 from <http://www.aarp.org>.

Canadian Association on Gerontology (2010). Age-friendly Communities Canada Collaboration (AFCCC): Building, Examining and Translating Different Lines of Evidence to Inform Age-Friendly Community Development and Design: Strategic Plan. Toronto, Ontario.

Chui, E. (2008). Ageing in place in Hong Kong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a capitalist Chinese city. *Ageing International*, 32 (3), 167-182.

Harding, E. (2007). Towards lifetime neighborhoods: Designing sustainable communities for all. Retrieved September 17, 2012 from [http://www.lifetimehomes.org.uk/data/files/Lifetime\\_Neighbourhoods/towards\\_lifetime\\_neighbourhoods\\_ilc\\_discussion\\_paper.pdf](http://www.lifetimehomes.org.uk/data/files/Lifetime_Neighbourhoods/towards_lifetime_neighbourhoods_ilc_discussion_paper.pdf)

Hwang, E., Glass, A. P., Gutzmann, J., & Shin, K. (2008). The meaning of a livable community for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2, 216-239.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2007). A blueprint for action: Developing a livable community for all ages. New York: Author.

Oberlink, M. R. (2008). Opportunities for creating livable communities. New York: AARP Policy Institute.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10). Healthy living e-bulletin – Theme: Age-friendly communities. Retrieved June 10, 2010 from <http://www.phac-aspc.gc.ca/hl-vs-strat/e-bulletin-eng.php>.

Scharlach, A. E. (2009). Frameworks for fostering aging-friendly

- community change. *Generations*, 33, 71-73.
- Sixsmith, A., & Sixsmith, J. (2008). Aging in place in the United Kingdom. *Ageing International*, 32, 219-235.
-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8). *Lifetime homes, lifetime neighborhoods*. London, UK: Author.
- United Nations(1991),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6/91 of 16 December 1991*
- United Nations(2002), *Political Declaration and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Madrid, Spain, 8~12 April, 2002*
- United Nations. (2009). *Population ageing and development*. Retrieved September 10, 2012 from
- <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ageing/ageing2009chart.pdf>.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n.d.). *Growing smarter, living healthier*. Washington, DC: Author.
- Virginia Department for the Aging. (2009). *Virginia's four-year plan for aging services*. Retrieved September 1, 2012 from <http://www.vda.virginia.gov/pdfdocs/FourYearPlanForAgingServices-RD461-2009.pdf>.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Geneva, Switzerland: Author.
- \_\_\_\_\_.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project*. Geneva, Switzerland: Author.
- \_\_\_\_\_.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 A Guide*.

Geneva, Switzerland: Author.

\_\_\_\_\_. (2010). WHO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Geneva, Switzerland: Author.

##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고 승 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서 연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 공동연구원

Eunju Hwang (미국 버지니아텍대학교 주거학과 교수)  
Nancy Brossoie (미국 버지니아텍대학교 주거학과 교수)  
Julia Beamish (미국 버지니아텍대학교 주거학과 교수)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철 (동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